

연구보고서 2021-33

#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조성호  
이지나·김근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근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부교수

연구보고서 2021-33

##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30-3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33>

## 발|간|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1년 2차 기본계획, 2016년 3차 기본계획을 거쳐 2021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목적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회복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1.5’라는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 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양육 여건이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떠오름에 따라, 남녀 간의 평등한 노동 및 양육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과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야 개인들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되어, 2018년 12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인구정책 대응 목표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 및 성평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목표는 계승되고 있다.

기존의 인구정책 대응 목표하에서 출산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기존의 정책 목표와 동일선에서 출산율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발상을 전환하여,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부부가 무자녀를 선택하는 요인 및 과정에 대한 분

---

---

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무자녀를 선택하는 요인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단면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공헌이 크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출산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성호 부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김근태 교수, 이지나 연구원이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하며 완성하였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국민대학교의 계봉오 교수, 원내의 우해봉 연구위원, 익명의 원외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 론 .....</b>	<b>9</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5
<b>제2장 이론적 배경 .....</b>	<b>19</b>
제1절 무자녀 부부의 개념 .....	21
제2절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8
<b>제3장 무자녀 부부의 현황과 선택 요인 .....</b>	<b>45</b>
제1절 무자녀 부부 현황 및 특성 .....	47
제2절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요인 .....	76
<b>제4장 무자녀 부부 심층면접조사 .....</b>	<b>115</b>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117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	123
제3절 소결 .....	180
<b>제5장 결 론 .....</b>	<b>187</b>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89
제2절 정책과제 .....	193
<b>참고문헌 .....</b>	<b>209</b>

## 표 목차

〈표 3-1〉 결혼 연차별 신혼부부 분포 .....	49
〈표 3-2〉 신혼부부 자녀 분포 .....	49
〈표 3-3〉 신혼부부 결혼 연차별 자녀 분포 .....	50
〈표 3-4〉 자녀 수별 부부의 (추가) 출산 의향 .....	50
〈표 3-5〉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소득별 비교 .....	51
〈표 3-6〉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주택 소유 형태별 비교 .....	51
〈표 3-7〉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교육수준별 비교 .....	52
〈표 3-8〉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취업상태별 비교 .....	53
〈표 3-9〉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직종별 비교 .....	53
〈표 3-10〉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결혼 만족도 점수 비교 .....	54
〈표 3-11〉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부부간 가사 분담 비율 비교 .....	54
〈표 3-12〉 무자녀 부부의 가구소득별 비교 .....	55
〈표 3-13〉 무자녀 부부의 주택 소유 형태별 비교 .....	56
〈표 3-14〉 무자녀 부부의 교육수준별 비교 .....	56
〈표 3-15〉 무자녀 부부의 취업상태별 비교 .....	57
〈표 3-16〉 무자녀 부부의 직종별 비교 .....	57
〈표 3-17〉 무자녀 부부의 결혼 만족도 점수 비교 .....	58
〈표 3-18〉 무자녀 부부의 부부간 가사 분담 비율 비교 .....	58
〈표 3-19〉 지역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	65
〈표 3-20〉 출산 완료 기혼여성(만 40세 이상)의 무자녀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	80
〈표 3-21〉 출산 완료 기혼여성(만 40세 이상)의 무자녀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83
〈표 3-22〉 기혼여성의 자녀 수 분포: 1~7차 자료 .....	88
〈표 3-23〉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유형: 2~6차 .....	90
〈표 3-24〉 기초 통계량: 무자녀 부부 전체 .....	94
〈표 3-25〉 기초 통계량: 무자녀 부부 유형별 .....	96
〈표 3-26〉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아내) .....	97



〈표 3-27〉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아내) .....	99
〈표 3-28〉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남편) .....	100
〈표 3-29〉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가치관 요인(아내) .....	103
〈표 3-30〉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지역 및 주거 변수(공통) .....	102
〈표 3-31〉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전체 요인(아내) .....	104
〈표 3-32〉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남편) .....	106
〈표 3-33〉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전체(아내와 남편 일자리 변수 포함) .....	108
〈표 4-1〉 무자녀 기혼부부의 유형 분류 .....	120
〈표 4-2〉 심층면접조사 참석자의 일반적 특성 .....	120
〈표 4-3〉 심층면접조사 참석자 명단 .....	121
〈표 4-4〉 현재 출산 의향과 최초 출산 의향의 비교 .....	128
〈표 4-5〉 무자녀 유형별 아이 선호 여부 .....	134
〈표 4-6〉 무자녀 유형별 아이 선호 여부와 출산 의향 .....	136
〈표 4-7〉 무자녀 유형별 아이에 대한 생각 변화 .....	137
〈표 4-8〉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의 장점 .....	138
〈표 4-9〉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의 단점 .....	139
〈표 4-10〉 무자녀 유형별 아이로 인한 삶의 긍정적 변화 .....	143
〈표 4-11〉 무자녀 유형별 아이로 인한 삶의 부정적 변화 .....	145
〈표 4-12〉 유형별 입양에 대한 생각 .....	147
〈표 4-13〉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에 대한 주변의 반응 .....	150
〈표 4-14〉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 .....	152
〈표 4-15〉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의 난임 치료 시기 .....	173
〈표 4-16〉 난임 치료 중 겪은 상처와 좌절 .....	173
〈표 4-17〉 난임으로 인한 우울 여부 .....	178
〈표 4-18〉 난임으로 우울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의 유형 .....	179
〈표 5-1〉 시술비 지원사업 범위 확대 .....	198
〈표 5-2〉 전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현황 .....	202



〈표 5-3〉 주요국의 가구 형태별 조세 부담률 현황(2000년, 2010년, 2020년) .....	205
〈표 5-4〉 주요국의 가구 형태별 조세 부담률 및 상대 비율 현황: 2020년 .....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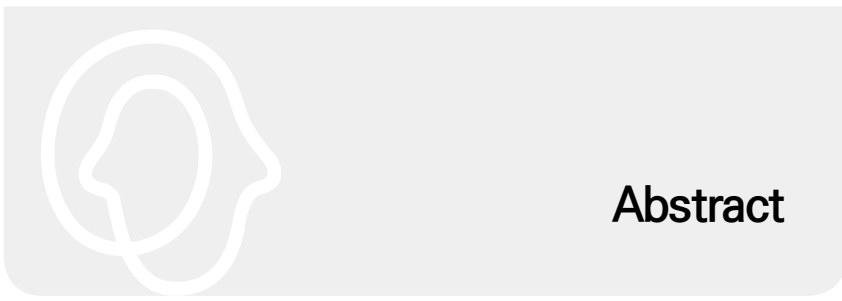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분석 대상 .....	16
[그림 1-2] 연구 흐름도 .....	19
[그림 3-1]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시점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변화 .....	60
[그림 3-2] 출생 코호트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	63
[그림 3-3]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시점 및 교육수준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	67
[그림 3-4] 출생 코호트 및 교육수준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	68
[그림 3-5] 센서스 시점별 및 출생 코호트별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	69
[그림 3-6] 센서스 시점, 출생 코호트, 교육수준별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	71
[그림 3-7] 출산 의도와 교육수준에 따른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변화 .....	73
[그림 3-8] 출산 의도와 초혼연령에 따른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변화 .....	74
[그림 3-9] 교육수준 및 초혼연령별 자발적/비자발적 무자녀 비중 변화, 2005-2015 ..	76
[그림 3-10] 초혼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무자녀 선택 확률(만 40세 이상 기혼여성) ..	86





## Abstract

### Factors and Policy Challenges for Married Couple's Childless Choice

Project Head: Cho, Sung-ho

Unlike in the past when adult men and women would naturally have children once married, the number of married couples without children is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is research was done with the purpose of deriving policy measures for them.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childless was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age of first marriage. The childless status showed that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is and the higher the first marriage age is, the higher the childless ratio would be. And the regression analyses of childless choice revealed that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is, the higher the probability is of becoming childless or continuing to remain childless, and the higher the age of first marriage is, the higher the probability is of becoming childless. However,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is, the greater the likelihood is of choosing life without children, whereas in Korea, the opposite effect was found. Perhaps this is because the environment for raising children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In Korea, due to the high burden of rais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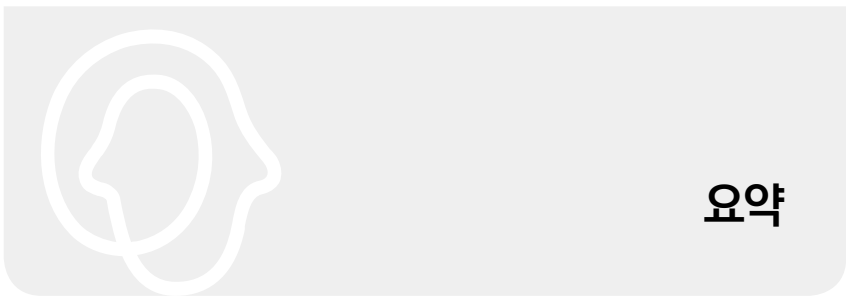
Co-Researchers: Lee, Jina · Kim, KeunTae

## 2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children, the tendency is to prioritize one's own life and career without children as the costs of child support are also high.

The policy measures were drawn mainly for the cases of childless life due to external and physical factors. First of all is to create a society suitable for raising children, which implies a wide variety of factors. This was largely due to the very large burden of such costs as especially the cost of childcare, school tuition,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so that it is impossible to work while raising children. You will need it above all else. And, for the couples who have to involuntarily choose childless, the policy goal should be to support them to have children at no extra cost even in the process of pregnancy, on an equal basis to those who have children, rather than approaching them from an economical point of view. In the mid-to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sider the tax system by family type, an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fertility testing for all the newlyweds.

**Keyword :** married couple, choice of childlessness, voluntary, involuntary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성인 남녀가 결혼하면 대부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결혼했음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배경으로, 무자녀 부부의 특성과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저출산 대책이 출산 장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자녀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포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이 출산 행동에 주목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산하지 않는 미출산 행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 2. 주요 연구결과

무자녀 부부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1970년대 이전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특히 중졸 이하 저학력 여성들의 무자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가능성이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무자녀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강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현황 및 회귀분석, 그리고 종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은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이

#### 4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었다. 무자녀 현황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무자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선택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이라는 요인은 무자녀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특히 교육수준이라는 요인은, 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교육수준이 높으면 소득이 높고, 따라서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 이외에 실제 소득 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 증가는 지속해서 무자녀를 선택하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자녀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이론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환경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의 부담이 큰 우리나라는 본인의 커리어를 우선시해서 무자녀를 선택하기보다 양육비 부담 때문에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무자녀 선택 과정은 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났는데, ‘자발-사회경제’ 유형은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여건 및 커리어 등에 집중하다가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 분석과도 연결되는데, 출산 연기 유형은 출산 의향이 있음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는 출산을 연기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그 요인은 심층면접조사의 결과

와 유사하게 취업 여부로 나타났다.

다만, 실증 분석에서 취업 여부는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도 유의하게 증가시킨 요인이었는데, 결국 이 결과는 육아 및 가사 일을 하는 전업주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일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출산으로 전환될 확률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서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 특히 여성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일하는 여성의 경우 어릴 때부터 커리어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라,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가치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 이후 자신의 일이나 목적인 바에 집중하기 위하여 출산을 보류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보류했던 출산을 준비하였으나, 이미 가임 가능성이 작은 연령대에 들어서게 되어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 경우이다. 이들은 임신을 위한 난임 치료도 진행하였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로 인하여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경우가 있었다. 즉 힘든 난임 치료를 거치면서 건강에 문제를 겪거나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무자녀 의사를 확정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연적으로 생기면 낳고 싶다면 희망을 버리지 않거나, 난임 치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양적 분석 결과와 같이 자녀를 낳기로 했다가 낳지 않기로 한 경우

가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결혼 후 출산까지의 기간이 이전과 같다 하더라도,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 기간이 점차 짧아지므로 임신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무자녀에 이르는 과정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먼저,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이들은 보통 결혼 이전부터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결혼 전후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이를 결정하였으므로 정책 개입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은, 결혼 후 출산을 연기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해서 출산을 연기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으려 했으나 가임이 어려워 아이 없는 삶을 택하게 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를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경우(‘자발-사회경제’), 후자를 ‘비자발’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 두 경우는 아이 있는 삶을 꿈꾸었지만 외부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에 의하여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는 아이 키우기에 적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 특히 아이가 어릴 때 드는 돌봄비용부터 학교 등록금, 사교육비 등의 비용 부담이 매우 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기에,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할 수밖에



에 없는 부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출산하여 자녀를 갖는 이들과 동등하게 임신 과정에서 별도 비용 없이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 형태별 조세제도에 관해 깊이 고민해야 하며, 모든 신혼부부에 대한 난임 검사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 기혼부부, 무자녀 선택, 자발적, 비자발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성인 남녀가 결혼하면 대부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최근에는 결혼했음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OECD에서는 40~44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을 무자녀 여성으로 정의하고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자녀 비율은 1990년대 중반에 3.6%였으나 2010년대는 6.8%로 증가하였다(OECD, 2021<sup>1)</sup>). 그러나 이러한 무자녀 부부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OECD 국가의 무자녀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은 1990년대 중반 14.0%에서 2010년대에 20.0%, 오스트레일리아는 동 기간 12.8%에서 16.0%, 핀란드는 14.6%에서 19.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무자녀 비율은 비교적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가세는 타국과 비교할 때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신혼부부(결혼 후 5년 미만)를 대상으로 무자녀 부부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2015년의 무자녀 비율이 35.5%였던 것에 비하여 2019년에는 40.2%로 4년 동안 4.8%p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2020). 신혼기를 지나면 출산 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시기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하면, 무자녀로 남게 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2021.2.1. 인출.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이유로 한정할 수 없지만, 경제학에서는 자녀를 갖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자녀를 갖는다고 설명한다(Becker, 1981). 예를 들어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익이 크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자녀의 노동력으로 얻는 편익보다 양육하고 가르치는 비용이 점점 커지면서 자녀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철학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해악(harm)이라는 반출생주의도 존재한다(데이비드 베나타, 2019). 반출생주의는 자녀를 낳아서 경험하게 될 괴로움과 고통 등은 처음부터 자녀를 낳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게 될 일들이라고 설명하며, 자녀를 낳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즉 나쁜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지 않은 일은 아니므로 자녀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인생을 시작할 가치와 지속할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기혼과 미혼 모두에게 무자녀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1985년 8.9%에서 2018년 16.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이소영 외, 2018), 미혼남성의 경우, 2009년 12.9%에서 2018년 28.9%로 증가하였고, 미혼여성의 경우, 2009년 14.6%에서 2018년 48.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9; 이소영 외, 2018). 이 같이 자녀 필요성 의식이 감소하는 것은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2018년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는 그동안의 출산율 향상 대신 삶의 질 향상으로 목표를 선회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2016년 시행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출산율 목표는 2020년에 1.5명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및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향상이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목표를 수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이러한 정책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출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연구에서 탈피하여,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도 포용적인 관점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출산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출산이라는 사건(event)이 발생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등의 출산 이행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으나 앞에서 살펴본 경향을 고려할 때,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자녀 부부의 결혼지속기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한 무자녀 부부의 특성과 부부의 무자녀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자녀 부부의 연구에서는 출산의 템포 효과(tempo effect)를 고려하여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최근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 증가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sup>2)</sup> 이와 함께 출산을 하고 싶는데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자녀 선택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심층적

2) 앞에서 언급한 신혼부부의 통계가 최근 5년간 결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 결혼 이후 늦게 출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면 이들의 출산 패턴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 분석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경우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자녀 부부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 요인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파악해 왔기에, 부부가 무자녀를 선택한 요인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무자녀 선택 요인에 대해 시간적인 개념을 반영한 종단면 자료를 분석하여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자녀 부부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여성(아내)뿐만 아니라 남성(남편)도 함께 하기 때문에, 남성의 특성 또한 무자녀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출산이 부부 상호 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에도 그동안 무자녀 부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성도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sup>3)</sup>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결혼 이후 무자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선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려 한

3) 다만, 이 연구에서 미혼 인구는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 간에 양(+)의 상관성이 있으므로 최근 미혼화의 증가는 무자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미혼 인구를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석의 필요성을 상쇄하는 기제로 작용함. 이는 미혼율이 곧 무자녀 비율과 매우 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별 미혼율과 무자녀 비율은 약간의 오차(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무자녀 비율 등을 예측할 수 있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최근의 경우에도 6%를 넘지 않으므로,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이것은 곧 무자녀 선택과 결혼 선택의 결정요인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미혼 인구의 무자녀 선택은 결혼 선택 분석과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기에 이 연구의 분석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다. 특히, 횡단면 자료뿐만 아니라 종단면 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 질적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무자녀 선택 요인을 다양하게 보여주려 한다. 다만, 무자녀 부부의 특성은 남편과 아내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무자녀 부부의 특성 및 선택에 대해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무자녀 부부의 특성은 결혼지속기간 및 연령, 그리고 자발성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무자녀 부부를 분류하여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무자녀 부부의 특성 및 선택분석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남편·아내), 가치관 요인, 주거 요인을 도입하여 분석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무자녀 부부에 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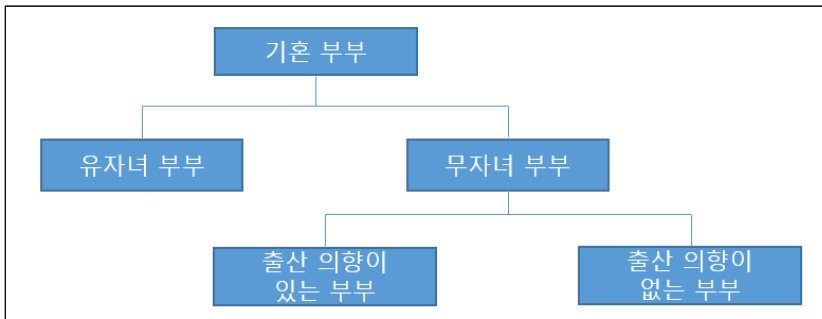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무자녀 부부가 무자녀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선택 이유가 사회경제적인 요인 및 신체적인 요인일 경우, 정책적으로 보완 및 지원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자녀 부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자녀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하고,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무자녀 부부를 정의해왔다. 특히,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를 연령 및 결혼지속기간 또는 자발성 여부로 분류하지만, 상기 두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더 엄밀하게 무자녀 부부를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2장 이론적 배경의 첫 번째 절에서는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분류되어 온 무자녀 부부의 정의 방식을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결혼하면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자녀 부부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최연실, 성미애, 이재림, 2014),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자녀 부부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2장 이론적 배경의 두 번째 절에서는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를 시대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그림 1-1] 분석 대상



주: 필자 작성

다음으로 제3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무자녀 부부의 현황에 대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하, 센서스 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보려 한다. 분석 대상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이하, 결혼과 출산 조사)<sup>4)</sup>」를 이용하여, 무

4) '결혼과 출산 조사'는 2019년 7월 말을 기준으로 혼인 7년 차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만 18~49세의 아내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 '결혼과 출산 조사'는 가구와 개인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가구 조사에서는 가구원 수 및 관계, 생년, 성별, 동거, 신혼집(마련 비용, 명의), 동거인, 주택 유형·점유 형태·비용·규모, 거주지역 등을 조사하였음. 이 조사의 특징은

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 간의 특성, 그리고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비교한다. 그러나 무자녀 부부는 출산 의향이 있는 부부(비자발적), 출산 의향이 없는 부부(자발적)로 나누어 이들의 차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센서스 자료로는 무자녀 부부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60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향을 분석한다. 제3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횡단면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고려할 수 있는 종단면 자료(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양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질적 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이루어진 양적 분석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하는 자료 대부분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므로 연구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조사(in-depth interview)를 수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40대 이상 무자녀 남녀로, 서로 부부는 아니지만 성별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고려하여 총 19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결혼한 연령 및 연차, 자발성 여부에 따른 무자녀 유형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안배하였다. 혼인연령은 만 30~34세 미만, 35~39세 미만, 40세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설정했고, 혼인 연차는 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설정해 조사 대상을 모색하였다. 무자녀 유형은 무자녀 선택의 자발성과 그 이유에 따라 ‘자발-가치관’, ‘자발-사회경제’, ‘비자발’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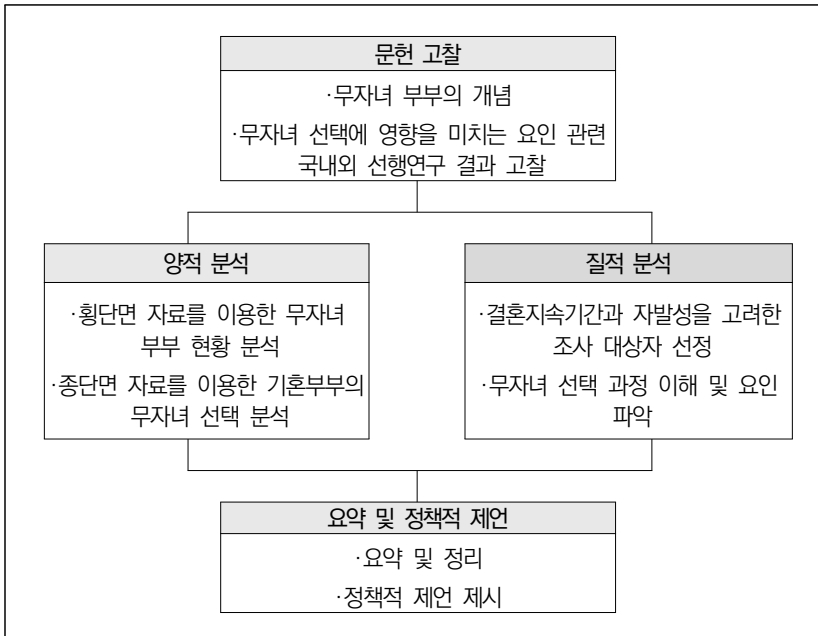
최종학교 졸업, 결혼, 출산 시점에서의 일자리와 주거의 변화에 대한 문항이 설계되어 부부가 되어 출산 이후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부부를 모두 조사하여 남편·아내의 출산 의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임.

## 18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해 적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만들어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유소년기의 경험과 가족 간의 관계, 무자녀 선택의 자발성 여부, 아이에 대해 평소 갖고 있는 생각, 무자녀임을 주변에 밝혔을 때의 반응,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직장에서 무자녀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했는지 여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노후와 죽음에 대한 생각 및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전체적인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그림 1-2).

[그림 1-2] 연구 흐름도



주: 필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무자녀 부부의 개념

제2절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무자녀 부부의 개념

무자녀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하다(González & Jurado-Guerrero, 2006; Hagestad & Call, 2007). 적절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거나, 미혼모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을 미루다 임신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그다지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González & Jurado-Guerrero, 2006; Rowland, 1998; Tanturri & Mencarini, 2008).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무자녀에 이르는 과정 중의 하나인 반면, 유럽 등의 경우는 동거 및 혼외출산 비율이 높으므로 결혼과 무자녀 간의 관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Miettinen, Rotkirch, Szalma, Donno, & Tanturri, 2015, p.4). 이 절에서는 다른 연구에서 무자녀 부부를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령 및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무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자녀가 없는 부부를 뜻한다. 다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가임기간이 인구학적으로 15~49세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령을 고려하여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가임기간이 49세까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출산이 20~30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40대 이후에도 자녀가 없는 부부를 무자녀 부부로 정의하곤 하는데, González & Jurado-Guerrero(2006)는 40~41세 중 자녀가 없는 경

우, 菅桂太(2008)는 40세 시점(기혼)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Tanturri & Mencarini(2008)는 40~44세의 자녀가 없는 여성, Bagavos(2010)는 41~45세의 자녀가 없는 여성을 무자녀로 정의하였다. Jalovaara & Fasang(2017)는 42세 시점에서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이들은 무자녀를 45세 또는 50세 시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이에 가장 근접한 것이 42세이기 때문에 42세 시점으로 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Jalovaara & Fasang, 2017, pp.1706). Tocchioni(2018)는 1907~1969년 사이에 출생한 남녀(40세 이상)<sup>5)</sup> 중 자녀가 없는 경우를 무자녀라 하였다.

그러나 40세 이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인희, 김은지, 이상림, 정다운(2015)은 무자녀 부부의 규모를 추정하면서 30세 이상의 여성 중 현재 혼인상태가 '유배우' 상태이며,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를 잠정적 무자녀 부부로 정의하였고, 계봉오·김두섭(2015)은 아내의 연령이 35~64세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로 정의하였다. Fiori, Rinesi & Graham(2017)은 25~39세 여성과 25~44세 남성이 조사 시점에 자녀가 없는 경우 무자녀 부부로 정의하였다.<sup>6)</sup>

연령 이외에 결혼지속연수를 고려하여 무자녀 부부를 정의한 경우도 있는데, 이수현(2012)은 연령보다 2010년의 동태통계연보에서 첫째 자녀 출산이 결혼 후 3년 이내에 90% 이상 일어나는 것을 근거로 결혼 후 3년 이상임에도 자녀가 없는 경우를 무자녀 부부로 정의하였다. 박시내, 박라나, 박혜균(2020)은 결혼한 지 5년 이상인 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

5)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9년에 조사되었음.

6) Fiori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없는 이들이 계속 무자녀로 남을 것인지의 출산 의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하한 연령은 출산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을 고려하여 25세 이상으로 한 반면, 상한 연령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가임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여성은 39세, 남성은 44세까지로 정의하였음.



를 무자녀로 정의하였다.

## 2. 자발성 여부에 따른 무자녀 부부

앞에서 살펴본 연령에 따른 구분은 여성의 가임능력이 약화되는 50세 이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사 시점의 특정 연령까지 무자녀라 하더라도 그 연령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여 유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출산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즉, 무자녀를 정의할 때, 그 결정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욕,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의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경우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가 본인의 의도에 따른 자발적인 결정(childless by choice)인지, 또는 외부적인 상황(경제적, 제도적, 미혼 등) 등에 따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자발적인 결정(childless by circumstance)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Avison & Furnham, 2015; Bloom & Pebley, 1982).

따라서 자발적 무자녀를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앞으로의 출산 의향(future intent)과 의향의 크기(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Ho-useknecht, 1987). 왜냐하면 Bloom & Pebley(1982)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자녀가 없어 무자녀라 해도 앞으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의 크기(정도)에 따라서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유추해볼 수 있

7) 이러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2차 데이터가 무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무자녀를 추출하게 되면 샘플의 규모가 매우 작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분석이 가능한 규모의 샘플을 확보하고자 한계 연령을 낮추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기 때문이다. 만일 영구적인 무자녀를 파악하려 한다면, 자녀의 출산이 완결되었다고 생각되는 연령대(40대 이후)의 무자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Bloom & Pebley, 1982, pp.204-206).

한편, 자발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한 이들의 무자녀 결정 시기에 따라 생애 초기(청소년기)에 이미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여성을 초기 결정자(early articulator), 결혼 이후에 무자녀 결정을 한 여성을 지연자(postponer)로 분류하였다(Veevers, 1973; Houseknecht, 1979). 그러나 Dariotis(2004)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들 중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결정자뿐만 아니라 후기 결정자(late articulator)로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후기 결정자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이며, 이들의 결정은 커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되는 것과 일을 지속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나, 결혼 상대자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Houseknecht(1979)가 제안했던 지연자를 더 세분화하여 영구 지연자(perpetual postponer)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커리어, 교육, 결혼(지연) 등으로 인하여 가임기를 넘어서버리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즉, 이러한 분류는 출산 결정이 인생에서 자기 주도적(active)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passive)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Dariotis, 2004, pp.9-12).

반면, 무자녀 선택의 비자발적인 요인은 주로 불임(subfecundity)으로 불임은 유전(genetic), 정신병(psychopathology), 질병(disease), 영양실조(nutritional deficiency)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러한 요인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질병 및 영양실조 등이 비자발적 무자녀 요인

으로 나타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주로 자발적인 요인이 무자녀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자녀 비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U자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전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무자녀 비율이 감소하고, 선진국에서는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무자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oston & Trent, 1982, pp.474-478).

Frejka(2017)는 출산 의향을 고려하여 무자녀 여성을 일시적(temporary), 비자발적(involuntary), 자발적(voluntary)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시적 무자녀는 현재 아이가 없지만 앞으로 낳으려는 경우, 비자발적 무자녀는 불임 등으로 아이를 갖기 어렵거나 의료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의사가 임신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경우, 자발적 무자녀는 가임 또는 피임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술을 하였으나 아이를 가질 의향이 없는 경우이다.

### 3. 연령·결혼지속기간과 자발성 여부에 따른 무자녀 부부의 정의 및 유형화

앞에서는 연령 및 결혼지속기간, 그리고 자발성 여부를 각각 고려한 무자녀 부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조금 더 엄밀하게 무자녀 부부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Houseknecht(1979, p.82)는 본인의 의향으로 자녀를 갖지 않은 여성 중 결혼 이후 5년 이상의 여성을 자발적 무자녀 여성, 본인 및 배우자의 신체적인 이유(난임 및 불임)로 무자녀를 선택한 여성들은 비자발적으로 분류하였다. Heaton, Jacobson & Holland(1999, pp.532-534)는 1988년(1차)과 1994년(2차)에 조사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

개인의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행동 간의 비교를 통하여 무자녀 부부를 정의 및 유형화하였다. 19~39세 남녀를 대상으로 무자녀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출산 연기자(postponer)로서 1차에서 아이를 원했으나 2차에서 아이가 없는 경우(2차에서도 아이를 원함), 두 번째는 무자녀 전환자(switch to childless)로서 1차에서는 아이를 원했으나 2차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한 경우(아이는 여전히 없음), 세 번째는 의향 부모(intentional parents)로서 1차에서 아이를 원했고 2차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2차에서의 아이를 원하는지는 관계없음), 네 번째는 지속적 무자녀(consistently childless)로서 1차와 2차에서 모두 아이가 없으면서 두 시기 모두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섯 번째는 부모 전환자(switch to parents) 및 아이를 원하는 부모(wanting a child)로서 1차에서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나 2차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이다.<sup>8)</sup>

이민아(2012)는 20대 후반에서 40대의 기혼남녀 중 계획적 무자녀 가족을 무자녀 부부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계획적 무자녀란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고 앞으로도 가질 계획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최연실 외(2014)는 50세 미만 남녀로 결혼 이후 3년 이상<sup>9)</sup>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자녀를 갖고자 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연기형으로 분류하였다. 최인희, 김은지, 이상림, 정다운(2015)은 무자녀 부부의 특성 분석에서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30대, 40대 여성)과 그 배우자 중에서 유배우이면서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를 추출하고, 이들 중 출산 의향이 없거나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를 자발적 무

8) 단, 조사 시기 사이에 출산하지 않은 경우임.

9) 3년 이상으로 한정된 이유는 신혼부부가 무자녀인 경우를 제외하려 한 것으로 당시(2008년) 국토해양부의 신혼부부는 결혼 후 3년 이내였기 때문이며, 50세 미만으로 한 이유는 가능한 가임기 범위 내로 한정하려 했기 때문임(최연실 외, 2014, pp.49).

자녀 부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를 미출산 부부로 정의하였다.

Miettinen et al.(2015)은 40~45세 시점에 자녀가 없는 경우를 생애 무자녀(lifetime childlessness) 및 영구 무자녀(permanent childlessness)로 정의하였는데, 자녀를 갖고 싶은 의향과 이상 자녀 수를 고려하여 무자녀를 구분하였다. 비의향 무자녀(unintended childlessness)는 아이를 갖고 싶은 의향은 있으나 아이가 없는 경우, 의향 무자녀(intended childlessness)는 자녀를 갖고 싶은 의향이 없고 현재 아이가 없지만 이상 자녀 수는 0이 아닌 경우, 자발적 무자녀(voluntarily childlessness)는 자녀를 갖고 싶은 의향이 없고, 현재 아이가 없으며 이상 자녀 수도 0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守泉理惠(2019, pp.38-39)는 먼저 파트너십 경험 여부에 따라 ① 미혼 또는 동거 경험 있음, 이혼·사별 경험, ② 미혼 또는 동거 경험 없음, ③ 초혼 유배우 및 재혼 유배우의 3개 기준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이상적인 생애주기 타입과 이상(理想)·예정 자녀 수 기준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①에 해당하는 독신 여성은 ‘a 파트너십 해소형’ 무자녀로 분류하였다. ②에 해당하는 독신 여성은 본인의 이상적인 생애주기를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것’을 선택하거나,<sup>10)</sup> ‘희망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경우를 ‘b 미혼형’ 무자녀, 그리고 이상적인 생애주기를 미혼 또는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 것, 그리고 기타<sup>11)</sup>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이상·예

10) ‘귀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타입입니까?’란 질문에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만 일을 계속한다’,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만 결혼 및 출산을 기회로 일단 퇴직하고 어느 정도 육아가 끝나면 다시 일한다’,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만 결혼 및 출산을 기회로 일단 퇴직하고, 이후에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임.

11) ‘귀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타입입니까?’란 질문에 ‘결혼하지 않고 일을 지속한다’, ‘결혼하지만 아이는 갖지 않고 일을 지속한다’, ‘기타’ 중의 하나를 선택한 여성임. 다만, ‘결혼하지 않고 일을 지속한다’는 선택지는 아이 여부를 묻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아이를 가지려는 의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정 자녀 수가 0명인 경우를 ‘㉔ 미혼 무자녀 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③의 유배우 여성 그룹에서는 이상 자녀 수가 0명인 경우와 1명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상·예정 자녀 수 모두 0명인 경우를 ‘㉕ 유배우 무자녀 지향형’으로 분류하고, 이상·예정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상·예정 자녀 수가 같고, 불임 걱정이 없거나 있어도 의료기관 등에 가지 않은 경우와 이상 자녀 수보다 예정 자녀 수가 적지만, 불임 및 건강상의 이유를 선택하지 않은 여성을 ‘㉖ 출산 연기형’으로 분류하였다. 또 하나의 분류는 불임 및 건강상 이유로 무자녀로 추정되는 케이스로서 이상 자녀 수보다 예정 자녀 수가 적고, 그 이유로 불임·건강상 이유를 선택한 여성, 또는 이상·예정 자녀 수가 같지만, 불임 걱정으로 검사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여성을 ‘㉗ 불임·건강 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자발 여부로 분류하면 전체 ㉕부터 ㉗ 형태 중 ㉗를 비자발적 무자녀라 할 수 있고, 이외 나머지는 자발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유진(2020)은 25~39세 여성 중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를 ‘무자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 4.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무자녀 부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무자녀 부부는 연령, 결혼지속기간, 앞으로의 출산 의향을 고려하여 정의되어 왔다. 이 중 연령은 가임기를 고려한 분류이고, 결혼지속기간은 출산의 80% 이상이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이상림, 이지혜, 2018), 출산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 이후를 무자녀의 조건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 의향은 앞으로의 자녀 유무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및 결혼지속기간, 출산 의향의 개별 요인만으로 무자녀를 정의한 경우가 있는데, 연령만 고려한 경우는 자료의 한계로 개인의 출산 의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정의되었고, 결혼지속기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연차 이후의 출산 발생 확률이 낮으므로 이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산 의향은 그 자체만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대부분 다른 요인(연령 및 결혼지속기간)과 함께 적용되었다.

무자녀 부부는 상기 3개의 요인을 모두 적용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건이 가미될수록 표본 수가 적어지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조금씩 완화하여 표본 수를 확보한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무자녀 정의에 따라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려 한다.

## 제2절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국외 선행연구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변화를 겪어 오고 있는 영미 및 유럽 등의 국가는 무자녀 부부도 증가하여 무자녀 부부의 추세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Frejka, 2017; Fiori et al., 2017; Sobotka, 2017). 특히,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Houseknecht(1979)는 결혼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51명의 자발적 무자녀 여성(25~40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가족 배경 요인(가족 관계, 강압적 분위기 등), 가치관 요인(자율성, 성취 성향 등) 등의 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하여 앞에서 언급한 생애 초기(청소년기)에 이미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초기 결정자와 결혼 이후에 무자녀를 결정한 지연자 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결정자의 가정은 부모의 기대가 크고, 가정의 따뜻함이 적은 특징이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따뜻함이 적고, 부모의 기대가 큰 가정에서 살아왔던 경험을 재현하고 싶지 않은 의향의 발로(發露)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자주성을 독려한 부모를 둔 경우는 지연자가 된 경향이 컸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Bloom & Pebley(1982)의 연구에서는 미국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소득, 이동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는데, 주거지가 도시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무자녀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loom & Trussel(1984)의 연구에서는 1976년 NSFG(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Cycle II), 1978년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ng Women, p.14-24), 1980년 6월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3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장된 Coal-McNeil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 분석에서는 무자녀뿐만 아니라 출산 연기에 관한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출산 연기는 흑인 여성보다 비흑인 여성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크지만, 인종 변수가 무자녀 선택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ouseknecht(1987)는 자발적 무자녀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이의 양육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므로 자기 성취 및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것, 결



혼 관계에서 더욱 큰 만족을 준다는 것, 여성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으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무자녀 선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출생순위, 첫째의 무자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가족 배경 중에서는 자율성(autonomy)이 클수록, 직업 커리어를 중시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은 직업 위신·소득이 높은 편이고, 특히 여성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자녀 부부의 결혼 적응도(marital adjustment)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종교가 없는 경우도 무자녀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Heaton et al.(1999)의 연구는 1차(1988년)와 2차(1994년) NSFH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5가지 유형, 출산 연기자, 무자녀 전환자, 의향 부모, 지속적 무자녀, 부모 전환자로 분류하였는데, 출산 연기자가 45%로 가장 많고, 의향 부모가 25%, 무자녀 전환자가 13%, 지속적 무자녀가 7%, 부모 전환자 및 아이를 원하는 부모는 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5가지 분류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로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소득, 희망 노동시간, 배우자와의 관계 안정성, 혼인관계(미혼, 동거 및 기혼)를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자녀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결혼생활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지속적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연기 및 무자녀 확률이 높아지고, 소득은 무자녀 선택과 양(+)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Bloom & Pebley(1982)와 Bloom & Trussel(1984), 그리고 Houseknecht(1987)

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Bloom & Trussel(1984)의 결과와 다른 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흑인 여성이 비흑인 여성보다 출산 연기 및 무자녀 경향이 작다는 것이었다.

Hoem, Neyer & Andersson(2006)은 1955~1959년 사이에 태어난 스웨덴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무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2002년의 센서스 데이터와 1998년의 교육 데이터(education register data)를 결합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교육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보통 여성의 경우, 전문직 등 소득이 높은 경우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이들의 출산이 감소하는 것이 이전까지 연구의 정설이었으나(Becker, 1960, 1981; Cigno, 1991),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무자녀 선택에서는 교육수준보다 전공 분야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 및 의료 분야 종사자의 경우, 교육수준과 관계 없이 무자녀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 및 인문학 전공자 또는 종교적 직업을 가진 경우도 무자녀 경향이 낮은 것을 지적하였다.

González & Jurado-Guerrero(2006)는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데이터(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페인)를 이용하여 무자녀 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모델의 특징은 무자녀로 남아 있는 이들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을 고려한 Heckman(1979) 모델을 이용한 점이다. 주로 이 모델은 여성의 임금이 일하는 경우에만 관찰되므로, 임금함수를 추정할 경우, 관찰되지 않는 요인(unobserved factor)에 의한 편향(bias)을 고려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즉, 관찰되지 않는 유보 임금 등의 요인은 일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임금함수 추정에서 제외되어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ion)을 도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패널조사 기간 내 무자녀인 여성들로, 이들이 해당 기간 중에 출산하게 되면 샘플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sup>12)</sup>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패널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제외하게 되어 선택 편의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이 연구에서는 무자녀를 추정할 경우, Heckman(1979)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미 자녀가 있는 이들(이미 무자녀에서 벗어난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1단계 추정은 이미 자녀를 낳은 경우이고, 2단계 추정은 조사 기간 중 자녀를 낳아 무자녀에서 벗어난 여성(leaving childless)이 대상이다. 독립변수는 고용 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용 기간, 고용 형태, 주거 소유 형태, 개인소득, 혼인상태, 연령, 교육수준이다. 분석 결과,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고용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무자녀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은 반면, 주거 소유가 월세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무자녀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택 편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inverse Mill's ratio: IMR)가 유의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의 선택 편의 경향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菅桂太(2008)의 연구는 2004년에 조사된 일본판 GGS(Generation & Gender Survey) 1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자녀 부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 기준이 아닌 개개인의 40세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15세 또는 초혼에서부터 시작되는 리스크 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젊은 코호트일수록 40세까지의 출생 리스크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40

12) 데이터는 1994~2000년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1955~1982년에 태어난 18~39세임.

세를 기준으로 하면 15세부터 시작되는 출생 리스크가 모든 샘플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sup>13)</sup> 40세 시점이 기준이기에 분석대상은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따라서 조사 시점(2004년)에서부터 역산하면 1934년부터 1964년 코호트가 분석대상이 된다. 회귀분석은 40세 시점에서 자녀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 모델로 분석하였는데, 초혼연령이 무자녀 선택에 양(+)<sup>14)</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는 여성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무자녀 부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무자녀 부부를 세분화할수록 샘플이 적어지는 점과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의 변수가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Tanturri & Mencarini(2008)는 독자적으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세 지역을 선정<sup>14)</sup>하여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자발적 무자녀 현상이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확대될 것으로 지적하였다. 기존 통계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무자녀 비율이 1.5%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이 연구에서 추정된 결과에 의하면 6~7% 정도의 무자녀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무자녀 선택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는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이를 개인적인 커리어 성취에 방해물이라 생각하여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 고학력 취업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agavos(2010)의 연구는 2000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조사 데이터

13) 다만, 결혼 시기에 따라 출생 리스크 기간이 달라지지만, 이는 랜덤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14) 지역을 모두 도시지역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비전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함(Tanturri & Mencarini, 2008, p.58).

를 이용하여 1955~1959년에 태어난 그리스 여성의 무자녀 경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교육과 무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자녀 경향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히려 Hoem et al.(2006)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전공 분야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고 하였는데, 교육과 헬스케어를 전공한 경우 무자녀 경향이 낮다고 하였다.

Miettinen & Szalma(2014)의 연구는 2001~2011년 유럽에서 조사된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자녀 의향(childless intention)과 이상(ideals)<sup>15)</sup>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럽 전체 평균으로 보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무자녀 의향 및 무자녀 이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전통적인 가족관이 강한 국가에서는 무자녀가 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ori et al.(2017)은 유럽에서도 무자녀 비율이 높은 수준인 영국과 이탈리아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영국의 자료는 2009년부터 시작된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이탈리아는 2009년 이탈리아의 통계청이 조사한 FSS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González & Jurado-Guerrero(2006)가 도입한 Heckman(1979) 모델을 이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자녀를 갖지 않고 있는 이들(무자녀로 남아 있는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자녀 상황과 출산 의향을 2단계로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무자녀로 남아 있는 확률은 양국 모두 연령이 낮거나 동거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결혼지속

15) 무자녀 이상은 이상적 자녀 수가 0명인 경우를 의미함.

기간이 길수록 낮았으며, 여성(아내 및 파트너)이 일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국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중·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 다 아닌 경우보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자녀 확률이 감소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영국에서는 무자녀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의향을 추정한 결과는 양국 모두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파트너와의 연령 차이가 3세 이상일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차이점을 보면, 영국에서는 동거하는 경우 무자녀 의향이 증가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남성 본인이 실업자인 경우, 여성 배우자가 파트타임이나 실업자의 경우 무자녀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외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이탈리아의 경우는 여성에게서, 영국의 경우는 남성에게서 무자녀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 편향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편의를 나타내는 파라메터가 유의하지 않아 그들이 제기한 선택 편향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탈리아와 영국 간의 큰 차이는 이탈리아의 무자녀 현상은 생애주기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비자발적인 것에 반하여, 영국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자녀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 취업, 혼인 관계(partnership status), 혼인력(partnership history)이 중요하며(Jalovaara & Fasang, 2017, p.1704),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약 20년간 혼인 및 동거의 성립과 해체 등의 혼인관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핀란드 통계청의 인구 관련 행정 데이터<sup>16)</sup>를 이용하여 혼

인관계의 동태적인 변화와 안정성에 따른 무자녀 선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Heaton et al.(1999)의 연구와 유사하게 생애주기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Heaton et al.(1999)의 연구는 1차와 2차 데이터의 간격이 6년인 것에 비하여 이들의 연구는 약 20년간의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퀀스, 클러스터, 다항로지트 모델로 분석하였다. 시퀀스 분석에서는 자녀가 없는 이들의 혼인관계 변화를 미혼(never married), 동거 불안정(cohabitation instability), 짧은 결혼(little marriage)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분석에서는 미혼 그룹, 짧은 동거 그룹, 동거 그룹, 기혼 그룹의 4가지로 분류하였고, 미혼 그룹이 45%(남성: 52%, 여성 35%), 짧은 동거 그룹은 25%, 동거 그룹은 19%, 기혼 그룹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항 로지트의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미혼 확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무자녀 남성은 짧은 동거 가능성을 높이고, 동거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골(rural) 출신 남성은 미혼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도시 남성은 동거를 반복하면서 무자녀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守泉理恵(2019)의 연구는 일본의 무자녀 현황을 분석하고, 무자녀 여성 증가의 원인과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출생동향기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배우 여성의 무자녀 분류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지트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비교를 위해 유자녀 여성을 포함하여 ① 이상·예정 자녀 수가 0인 ‘무자녀 지향형 무자녀 여성’, ② 이상 자녀 수보다 예정 자녀 수가 적은 이유에 불임 및 건강을 응답하였거나 이상 자녀 수와 예정 자녀 수가 같더라도 불임치료 경험이 있는 ‘불임·건강 이유형

16) 1940~1995년에 태어난 이들 중 11%의 샘플을 추출하여, 1970~2010년까지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임.

무자녀 여성', ③ 앞의 2종류 이외의 '출산 연기형 무자녀 여성'이다. 분석 대상은 30~49세 여성으로, 30세 미만을 제외한 이유는 30세 미만의 젊은 유배우 여성은 최근의 경향과 비교하여 조혼이라 할 수 있고, 출산 의욕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불임 등의 신체적 이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40세 이상을 포함한 이유는 무자녀 지향형 무자녀 여성의 비율이 고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유배우 여성 전체에서 무자녀 지향형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20~30대에서 1~2%인 것에 비하여 40대에서는 4.5% 정도였다. 분석 결과, 유자녀 여성과 비교하여 무자녀 지향형 무자녀 여성이 될 확률은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크고, 소득이 없는 여성에 비하여 연 수입이 100만 엔 미만일 경우 무자녀 여성이 될 확률이 낮아졌다. 이것은 일본의 전업주부들이 대부분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가계의 보조적 수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무자녀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불임·건강 이유형 무자녀에서는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무자녀일 확률이 커지고, 출산 연기형 무자녀 여성은 연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내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영미 및 유럽 등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출산율 감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혼하게 되면 거의 모든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무자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특정 연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김한곤, 1991; 2014), 무자녀 부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수현(2012)의 연구는 무자녀 결정 시기 및 요인에 대해 20대 후반부



터 40대 중반의 무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무자녀 결정 시기는 불임 요인이 있는 경우는 불임 치료 전과 후, 불임 요인이 없는 경우는 결혼 전과 후로 구분되고, 무자녀 결정요인은 내생적 성향, 자신에게 충실한 삶의 추구, 주위의 영향, 양육 자원의 부족, 높은 부모 됨의 책무성, 인위적 임신의 부담감이라는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결정의 경로는 불임이 아님에도 결혼 전과 후에 결정한 경우, 그리고 불임 이후 치료 전과 후에 결정한 경우로 종합해 볼 수 있다.

불임이 아닌데도 결혼 전에 결정한 경우는 무자녀 선택의 자기 결정성이 강조된 형태로, 결혼 후에도 결혼 전의 무자녀 지향이 변화되지 않은 측면에서 자기 추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불임이 아닌데도 결혼 후 결정한 경우는 결혼 후 경제적인 상황에 의하여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로, 결혼 전에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에 내적 충동을 일으킨 경우이다. 자녀가 없다는 장점을 되뇌며 스스로 자위하지만 이미 이전에 형성된 가족에 대한 이미징(명절에 복적대는 이미지 등)가 남아 지속적인 충동을 보여준다. 불임임에도 치료 전에 결정한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 및 치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원인이나, 이러한 결정이 배우자의 의향과 일치한다는 자신감이 없고, 이에 따라 스스로 내적으로 고찰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불임 치료 후 무자녀를 결정한 경우는 자녀 출산을 통해 충족되는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상실감 및 괴로움 극복을 위한 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치료 후에 무자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적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무자녀를 결정한 행위가 행위자의 능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아(2012)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 연구가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어 개인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무자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와 육아에 관한 가치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부부의 결혼 기간은 1년부터 15년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분석 결과, 무자녀 계획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결혼 후 자녀 출산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무자녀를 의도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적, 문화적, 인지적 맥락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자녀 계획은 자녀 중심적 가치관에 대항하여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조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 가치관이 가족 중심적 가치관과 상호 배타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경합하며 공존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자녀에 대한 몰입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은 과도한 사교육 등 자녀에게 몰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행복과 기쁨보다는 갈등과 괴로움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기보다는 '(비)자발적 포기'에 가까운 것이라 지적하였다.

최연실 외(2014)는 지금까지 무자녀 연구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무자녀 집단 내의 다양성에 주목하지 않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여 무자녀 집단을 파악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하여 총 544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무자녀 유형을 자발적, 비자발적, 연기형으로 분류하고,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부부관계 특성, 자녀에 대한 태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형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며 자녀를 크게 원하지 않고 이상 자녀 수도 적은 특징이 있었다. 반면, 비자발형은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고, 자녀 관련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자발형에서 소득이 높고, 연기형은 경제적 여건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자발형이 연기형에 비하여 주관적 행복도, 자존감,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계봉오·김두섭(2015)과 최인희 외(2015)의 연구는 김한곤(1991)의 연구 이후 20여 년 만에 센서스 조사라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자녀 부부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이다. 특히, 계봉오·김두섭(2015)의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 무자녀 가구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는데, 그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10년 2.1%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자녀 가구 아내의 특징으로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평균 연령이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졌다고 강조하였다. 유자녀 가정과 비교하면, 교육수준은 무자녀 가정 아내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적 무자녀 가정의 비중은 고학력 사무·관리·전문직 부부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자녀 부부의 상당수가 일시적 무자녀 가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녀를 가지려 할 것이므로 영구적인 무자녀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최인희 외(2015)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센서스 데이터(2000~2010년의 3개년)를 이용하여 무자녀 부부가족의 규모를 추정하고, 무자녀와 유자녀 가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로 무자녀 부부가족의 규모를 산출한 결과, 30~50대의 출산 미경험 여성 중 무자녀 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의 출산 의향을 고려하여 자발적 무자녀 부부를 추정한 결과, 전체 여성 인구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아 무자녀 부부가 출산을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기본 특성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남편보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유자녀 부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과 2012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하, 출산력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부 유형을 구분하여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유형은 자발적 무자녀, 미출산, 유자녀 부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 경제적 자립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고,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부부만의 생활 즐기기 등의 가치관과 관련한 이유가 12.9%인 것에 비하여 난임 등의 건강문제는 72.7%에 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혼인기간 3년 이상인 무자녀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개인적 가치관보다 신체적 및 환경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가 등의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점(자유로움)에서 배우자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무자녀 부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진(2020)의 연구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관심이 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에만 주목해 왔던 것에 더하여, 앞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현상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문제의식하에서 이루어졌다. 2018년에 조사된 출산력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25~39세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수별 출산계획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산계획 유형은 먼저 자녀 수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향후 출산 의향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현재 자녀가 없고 앞으로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를 ‘무자녀 집단’, 현재 1명의 자

녀가 있는데 앞으로 출산 의향이 없으면 '한 자녀 집단', 현재 1명의 자녀가 있고 앞으로 출산 의향이 있으면 '다자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상기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로짓 모델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무자녀 집단'은 '한자녀 집단'에 비하여 정서적 자녀 가치관<sup>17)</sup>이 약하고, 가사 공평감 및 성역할 태도가 강한 반면, '다자녀 집단'은 정서적 자녀 가치관과 도구적 자녀 가치관<sup>18)</sup>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평등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등은 출산 의도에 양(+)<sup>19)</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를 자녀 출산 이후의 부부간 공평함이 유지될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및 불신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3. 소결

무자녀 부부에 관한 연구는 무자녀 부부가 되는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보고,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 회귀분석의 경우는 무자녀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거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웨이브 간의 변화를 무자녀 선택의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의 분석에서는 패널 데이터보다는 주로 횡단면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패널 데이터를

17) 정서적 자녀 가치관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임(강유진, 2020, p.10-11).

18) 도구적 자녀 가치관은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임(강유진, 2020, p.10-11).

이용한 분석을 통해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려 한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무자녀 선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loom & Pebley, 1982; González & Jurado-Guerrero, 2006; Houseknecht, 1987; Heaton et al., 1999; Jalovaara & Fasang, 2017; 계봉오·김두섭, 2015, 최인희 외, 2015). 다만, 외국의 연구에서는 주로 교육수준과 무자녀 간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에 비하여,<sup>19)</sup> 한국의 연구는 음(-)의 영향(최인희 외, 2015)이 나타나 아직 교육수준에 관한 명확한 결과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며 취업상태에 있고 소득이 낮은 경우와(Bloom & Pebley, 1982; González & Jurado-Guerrero, 2006),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높은 것도 무자녀 선택에 영향이 있었다(최인희 외, 2015). 이외에 출생순위와 자율성, 그리고 직업 위신(Houseknecht, 1987), 배우자와의 관계(Heaton et al., 1999), 초혼연령(菅桂太, 2008), 경제적 상황 및 소득(Fiori et al., 2017; González & Jurado-Guerrero, 2006; 守泉理惠, 2019, 최인희 외, 2015), 성평등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자녀 가치관(Miettinen & Szalma, 2014; Tanturri & Mencarini, 2008; 강유진, 2020) 등이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교육수준이 우리나라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분석된 요인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여 이들 요인이 무자녀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양적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요인들은 질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고, 이렇게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자녀 기혼부부에게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려 한다.

19) 물론 Bagavos(2010)와 같이 유럽(그리스)의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무자녀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존재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무자녀 부부의 현황과 선택 요인

제1절 무자녀 부부의 현황 및 특성

제2절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요인





## 제 3 장 무자녀 부부의 현황과 선택 요인

### 제1절 무자녀 부부의 현황 및 특성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자녀 부부의 증가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며,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다. 많은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 사회의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eyenfeld & Konietzka, 2017). 주지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자녀 부부의 비중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자녀 현상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Hagestad & Call, 2007).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출산이라는 현상은 개인의 일생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자녀(childless)”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출산 종료 시점을 정한 뒤 자녀를 출산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45세 또는 만 40세를 기준으로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무자녀 여성으로 규정한다(박시내, 2020). 그러나 통일된 출산 종료 시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자녀 현상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의 출산력을 묻는 형태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여성이 출산한 후 자녀가 사망한다면 이들은 설문조사에서 출산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여성의 출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자녀도 성

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이를 무자녀로 간주해야 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무자녀 연구들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인구 관련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 있다. 그러나 무자녀 현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통계청 센서스 조사 2% 샘플 자료를 활용하여 196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러나 무자녀 비율의 시계열적 추이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시점의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를 비교하고, 무자녀 부부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살펴본 후에 장기적인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려 한다.

## 1.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특성 비교분석

이 절에서는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특성, 그리고 무자녀 부부의 특징을 ‘결혼과 출산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려고 한다.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결혼과 출산 조사’의 응답자인 신혼부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무자녀 부부와 무자녀 부부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특징은 가구 소득, 주택 소유 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직종, 결혼 만족도, 가사 분담 비율에 따른 차이로 살펴본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자녀 부부 중에서도 본인의 의향으로 자녀를 갖지 않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와 자녀를 낳을 의향은 있지만 아직 출산하지 않은 ‘비자발적 부부’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신혼부부의 일반적 특징

먼저 결혼 연차별로 신혼부부를 살펴보면, 적게는 11.5%에서 많게는 20.9%로 분포하고, 이들의 자녀 수를 보면, 무자녀가 38.2%, 1명이 38.2%, 2명 이상이 23.6%로 나타난다.

〈표 3-1〉 결혼 연차별 신혼부부 분포

결혼 연차	%(N)
1	13.3
2	16.8
3	12.6
4	11.5
5	12.4
6	12.5
7	20.9
합계	100.0(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표 3-2〉 신혼부부 자녀 분포

자녀 수	%(N)
0명	38.2
1명	38.2
2명 이상	23.6
합계	100.0(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신혼부부의 결혼 연차별로 자녀 분포를 살펴보면, 연차가 낮을수록 자녀가 적지만, 무자녀 비율은 5년 차부터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3% 정도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신혼부부 결혼 연차별 자녀 분포

결혼 연차	0명	1명	2명 이상	합계
1	34.1	0.7	0.0	13.3
2	31.5	11.8	1.0	16.8
3	15.8	16.3	1.4	12.6
4	8.8	16.3	8.1	11.5
5	3.4	19.4	15.7	12.4
6	3.0	14.9	24.3	12.5
7	3.4	20.6	49.5	20.9
합계	100.0(679)	100.0(680)	100.0(420)	100.0(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부부의 출산 의향을 자녀 수별로 각각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간의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편: 75.0%, 아내: 73.6%),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은 남편이 30.2%, 아내가 24.6%로 남편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낳을 의향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낳지 않을 것의 비율은 아내가 5%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자녀 수별 부부의 (추가) 출산 의향

자녀 수	남편			아내			%(N)
	낳을 것	안 낳을 것	모르겠음	낳을 것	안 낳을 것	모르겠음	
0명	75.0	13.8	11.2	73.6	14.6	11.8	100.0(679)
1명	30.2	42.3	27.5	24.6	50.0	25.4	100.1(680)
2명 이상	3.3	82.2	14.5	2.6	87.1	10.2	100.0(420)
합계	40.9	40.9	18.2	38.1	45.3	16.6	100.0(1,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나.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특징 비교

먼저, 가구소득별로 무자녀와 유자녀 부부의 분포를 보면, 450만 원 미만의 경우, 무자녀 부부가 24.9%, 유자녀 부부가 45.6%, 450~600만 원 미만은 무자녀 부부 39.0%, 유자녀 부부 26.2%, 600만 원 이상은 무자녀 부부 36.1%, 유자녀 부부 28.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자녀 부부보다 무자녀 부부의 가구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소득별 비교

무자녀			% (N)	유자녀			% (N)
~450만 원	450~600만 원	600만 원~		~450만 원	450~600만 원	600만 원~	
24.9	39.0	36.1	100.0(679)	45.5	26.2	28.3	100.0(1,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주택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무자녀 부부가 20.9%, 유자녀 부부가 37.5%로 유자녀 부부의 자가 비율이 높고, 전세는 무자녀 부부 56.0%, 유자녀 부부 46.6%로 무자녀 부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무자녀 부부 23.1%, 유자녀 부부 15.9%로 무자녀 부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주택 소유 형태별 비교

무자녀			% (N)	유자녀			% (N)
자가	전세	기타		자가	전세	기타	
20.9	56.0	23.1	100.0(679)	37.5	46.5	15.9	100.0(1,100)

주: 기타는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연세, 사글세, 무상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52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를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무자녀 부부가 15.8%, 유자녀 부부가 16.1%, 2~3년제 대학은 무자녀 부부가 22.1%, 유자녀 부부가 22.9%, 4년제 이상은 무자녀 부부가 62.1%, 유자녀 부부가 61.1%로,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경우는 유자녀 부부의 남편이 약간 더 높고, 무자녀 부부 아내의 교육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교육수준별 비교

	무자녀			% (N)	유자녀			% (N)
	고졸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고졸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전체	15.8	22.1	62.1	100.0(1,358)	16.1	22.9	61.1	100.0(2,200)
남편	16.2	18.4	65.4	100.0(679)	13.6	18.7	67.6	100.0(1,100)
아내	15.5	25.8	58.8	100.0(679)	18.6	27.0	54.5	100.0(1,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의 전체 취업률(83.3%)이 유자녀 부부의 취업률(63.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살펴보면, 남편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무자녀 부부의 아내는 78.2%, 유자녀 부부의 아내는 36.0%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무자녀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유자녀 부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소득도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8〉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취업상태별 비교

	무자녀		% (N)	유자녀		% (N)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전체	83.3	16.7	100.0(1,145)	63.5	36.5	100.0(1,919)
남편	88.3	11.7	100.0(580)	89.3	10.7	100.0(989)
아내	78.2	21.8	100.0(565)	36.0	64.0	100.0(9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직종별로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관리·전문직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무직은 4.6%p, 서비스·판매직은 3.5%p 무자녀 부부가 더 높은 반면, 기능·장치·단순·기타 직종은 유자녀 부부가 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직종별 비교

	무자녀				% (N)	유자녀				% (N)
	관리·전문	사무	서비스·판매	기능·장치·단순·기타		관리·전문	사무	서비스·판매	기능·장치·단순·기타	
전체	11.5	53.5	24.2	10.8	100.0(954)	12.8	48.9	20.7	17.6	100.0(1,218)
남편	11.7	51.0	19.7	17.6	100.0(512)	13.4	47.7	16.9	22.1	100.0(883)
아내	11.3	56.3	29.4	2.9	100.0(442)	11.3	52.2	30.8	5.7	100.0(3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비교하면, 전체 평균은 무자녀 부부가 7.82점, 유자녀 부부가 7.54점으로 무자녀 부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경우도 무자녀 부부가 유자녀 부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사 분담 비율을 보면, 무자녀 부부의 남편(39.8%)이 유자녀 부부의 남편(31.2%)보다 분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결혼 만족도 점수 비교

	무자녀		유자녀	
	평균	N	평균	N
전체	7.82	1,358	7.54	2,200
남편	7.86	679	7.65	1,100
아내	7.78		7.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표 3-11〉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부부간 가사 분담 비율 비교

	무자녀		유자녀	
	평균	N	평균	N
남편	39.8	679	31.2	1,100
아내	61.2		70.2	

주: 주관적인 가사 분담 비율로서 본인 분담 비율과 배우자 분담 비율의 합이 10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다. 무자녀 부부의 특징 비교

앞에서 살펴본 무자녀 부부는 본인들의 의도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은 있지만 아직 출산하지 않은 부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의 특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도를 갖고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를 ‘자발적 무자녀’ 부부, 자녀를 낳을 의향은 있으나 아직 낳지 않은 경우를 ‘비자발적’ 부부로 분류하여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가구소득과 주택 소유 형태의 경우, 가구 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부부의 각각의 출산 의향을 반영하여 비교하였으므로, 가구소득과 주택 소유 형태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수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50만 원 미만의 경우,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35.2%,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21.6%, 450~600만 원 미만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 30.1%,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 41.5%, 600만 원 이상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 34.7%,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 36.9%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발적 무자녀 부부보다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가구소득이 높고,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소득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sup>20)</sup> 남편과 아내를 살펴보면,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경우, 남편의 고소득 비율이 비교적 높고, 아내의 저소득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무자녀 부부의 가구소득별 비교

	자발적			% (N)	비자발적			% (N)
	~450만 원	450~600만 원~	600만 원~		~450만 원	450~600만 원~	600만 원~	
전체	35.2	30.1	34.7	100.0 (193)	21.6	41.5	36.9	100.0 (1,009)
남편	33.0	29.8	37.2	100.0 (94)	22.6	40.9	36.5	100.0 (509)
아내	37.4	30.3	32.3	100.0 (99)	20.6	42.2	37.2	100.0 (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주택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28.0%,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20.4%로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자가 비율이 높고, 전세는 자발적 무자녀 부부 44.0%,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 59.4%로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자발적 무자녀 부부 28.0%,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 20.2%로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 다만,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경우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1/5 정도의 크기로 절대적인 비교보다는 경향의 비교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표 3-13〉 무자녀 부부의 주택 소유 형태별 비교

	자발적			% (N)	비자발적			% (N)
	자가	전세	기타		자가	전세	기타	
전체	28.0	44.0	28.0	100.0 (193)	20.4	59.4	20.2	1,009 (100.0)
남편	27.7	42.6	29.8	100.0 (94)	19.8	59.3	20.8	509 (100.0)
아내	28.3	45.5	26.3	100.0 (99)	21.0	59.4	19.6	500 (100.0)

주: 기타는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연세, 사글세, 무상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자발적 무자녀 부부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26.9%,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13.6%, 2~3년제 대학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21.8%,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23.0%, 4년제 이상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51.3%,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63.4%로, 전체적으로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교육수준이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경우를 살펴봐도, 전체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무자녀 부부의 교육수준별 비교

	자발적 무자녀				% (N)	비자발적				% (N)
	고졸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고졸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전체	26.9	21.8	51.3	100.0(193)	13.6	23.0	63.4	1,009(100.0)		
남편	29.8	14.9	55.3	100.0(94)	14.0	19.1	67.0	509(100.0)		
아내	24.2	28.3	47.5	100.0(99)	13.2	27.0	59.8	500(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전체 취업률(80.1%)과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취업률(84.3%)을 비교할 때 비자발적 무자녀 부

부의 취업률이 4.2%p 높게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살펴보면, 자발적 무자녀 부부 남편의 취업률(92.0%)이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남편(81.0%)보다 높고, 자발적 무자녀 부부 아내의 취업률(68.4%)이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아내(87.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무자녀 부부의 취업상태별 비교

	자발적		% (N)	비자발적		% (N)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전체	80.1	19.9	100.0(193)	84.3	15.7	100.0(1,009)
남편	92.0	8.0	100.0(94)	81.0	19.0	100.0(509)
아내	68.4	31.6	100.0(99)	87.4	12.6	100.0(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 서비스·판매직, 기타 직종의 비율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보다 각각 3.6%p, 9.3%p, 5.6%p 높았으나, 사무직은 18.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과 아내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서비스·판매직 수치가 높은 것은 아내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6〉 무자녀 부부의 직종별 비교

	자발적				% (N)	비자발적				% (N)
	관리·전문	사무	서비스·판매	기능·장치·단순·기타		관리·전문	사무	서비스·판매	기능·장치·단순·기타	
전체	14.9	38.0	32.2	14.9	100.0(193)	11.3	56.6	22.9	9.3	100.0(1,009)
남편	14.5	43.5	20.3	21.7	100.0(94)	11.3	53.9	19.5	15.4	100.0(509)
아내	15.4	30.8	48.1	5.8	100.0(99)	11.3	59.7	26.7	2.3	100.0(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결혼 만족도는 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발적 무자녀 부부 중 남편보다 아내의 결혼 만족도 점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편: 7.67점, 아내: 7.47점). 반면,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 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남편: 7.93점, 아내: 7.91점). 그리고 가사 분담 비율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무자녀 부부의 결혼 만족도 점수 비교

	자발적		비자발적	
	평균	N	평균	N
전체	7.57	193	7.92	1,009
남편	7.67	94	7.93	509
아내	7.47	99	7.91	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표 3-18〉 무자녀 부부의 부부간 가사 분담 비율 비교

	자발적		비자발적	
	평균	N	평균	N
남편	40.2	94	39.6	509
아내	60.8	99	60.4	500

주: 주관적인 가사 분담 비율로서 본인 분담 비율과 배우자 분담 비율의 합이 10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2. 무자녀 비율 변화 분석

센서스 조사는 1960년 이후 1966년을 제외하고,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통계청은 조사 결과 중 2% 샘플조사 결과를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센서스 조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더불어 총 출생아 수와 사망한 자녀 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조사에서 총 출생아 수와 사망한 자녀 수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 1975년, 1980년, 그리고 1995년 조사에서는 총 출생아 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본 분석에는 이들 연도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출산력에 관한 질문은 만 15세 이상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분석에서는 만 15세 이상 기혼여성(즉, 미혼이 아닌 배우자 있음, 이혼/별거, 사별 여성을 모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사망한 자녀는 고려하지 않고, 조사 시점까지 여성이 경험한 총 출산의 횟수가 0인 경우를 무자녀 여성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한 주된 이유는 과거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성인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센서스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사망한 자녀가 있더라도 아예 출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측정할 방법은 없으며, 센서스 조사 자료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 센서스 조사 실시 시점별로 출산을 완료한 기혼여성들 중 한 번도 출산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비중을 연령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출산 완료 시점인 만 40세에서 45세 사이이고, 두 번째는 만 40세부터 59세까지이다.<sup>21)</sup> 만 59세까지 연령을 확대한 두 번째 구분은 60세 이후 고령층의 경우 회고 오차(re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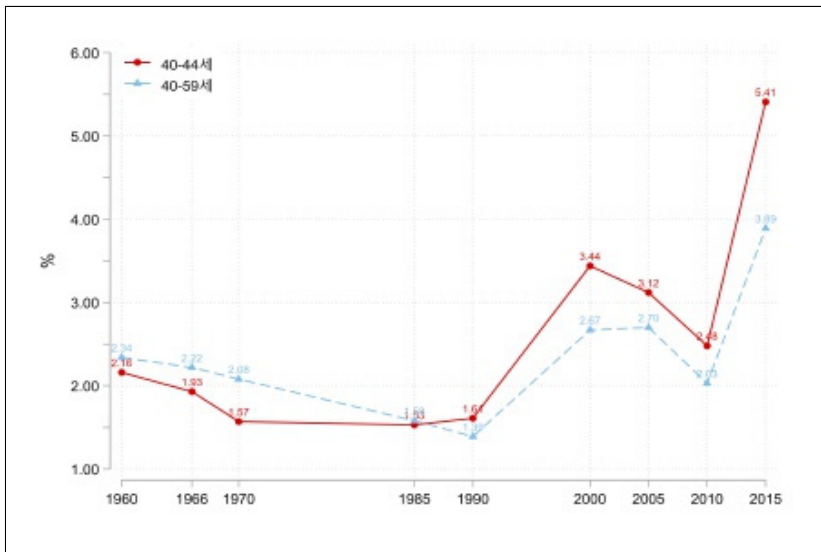
21) 이후부터의 연령은 만 연령을 나타냄.

bias)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까지 무자녀로 기록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자녀 비중을 살펴보면, 1960년 시점의 40~44세 여성 중 2.16%가 한 번도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 완료 여성의 범위를 40세부터 59세까지로 확대하면 그 비중은 2.34%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1960년 시점의 4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여성 중에서 무자녀의 비중이 40대 초반 여성보다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1]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시점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변화

(단위: %)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이러한 무자녀 여성의 비중은 1980년대 후반까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40~44세의 여성 중 무자녀 비중이 1966년, 1970년, 1985년에 각각 1.83%, 1.57%, 그리고 1.53%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연령대를 40~59세까지 확대해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급속한 인구 팽창을 고려할 때 무자녀 여성의 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90년 시점의 40~44세 여성 중 1.61%가 무자녀였으나, 10년 뒤인 2000년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3.44%를 보인다. 하지만 2005년과 2010년에 무자녀 여성의 비중은 다시 감소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출산을 완료하는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up>22)</sup> 하지만 1970년생이 출산을 완료하기 시작한 2015년 결과에 의하면, 전체 40~44세 여성 중 5.41%가 무자녀 여성으로 밝혀져, 센서스 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40~44세 무자녀 비중과 40~59세 무자녀 비중에서 1990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1990년 이전에는 40~59세 무자녀 비중이 40~44세 비중보다 높았지만, 이후에는 반대로 40~44세 비중이 40~59세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아마도 만혼과 그로 인한 노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22) 여기에서는 센서스 시점별로 무자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센서스가 실시된 해의 여성 연령을 40~44세 또는 40~59세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과 다르지 않음. 즉, 40~44세의 경우 2010년 결과에는 1966~1970년생 여성만 포함되었으며, 2005년 결과에는 1961~1966년생 여성들만이 포함되었음. 2015년 센서스 결과에는 1971~1975년생이 포함되었음.

23) 센서스 시점별 무자녀 비중에 대한 해석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특정 기간의 40세 이상으로 하면 해당되는 코호트 크기가 커지고, 한 코호트 내에서도 연령 분포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각 코호트의 무자녀 비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호트 크

센서스 조사 실시 시점별 무자녀 비중은 기간 효과(period effect)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출생 코호트별로 재정렬하여 각 출생 코호트가 40~44세가 되는 시점과 40~59세가 되는 시점의 무자녀 비중을 측정하였다.<sup>24)</sup> 결과를 살펴보면, 1910년대생부터 1930년대생까지는 무자녀 비중이 약 2.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40년대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무자녀 비중이 1.56%까지 감소하였고, 전체 출생 코호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무자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들이 바로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통계청, 2012). 유럽 28개국을 대상으로 무자녀 현상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도 1940년대생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Kreyenfeld & Konietzk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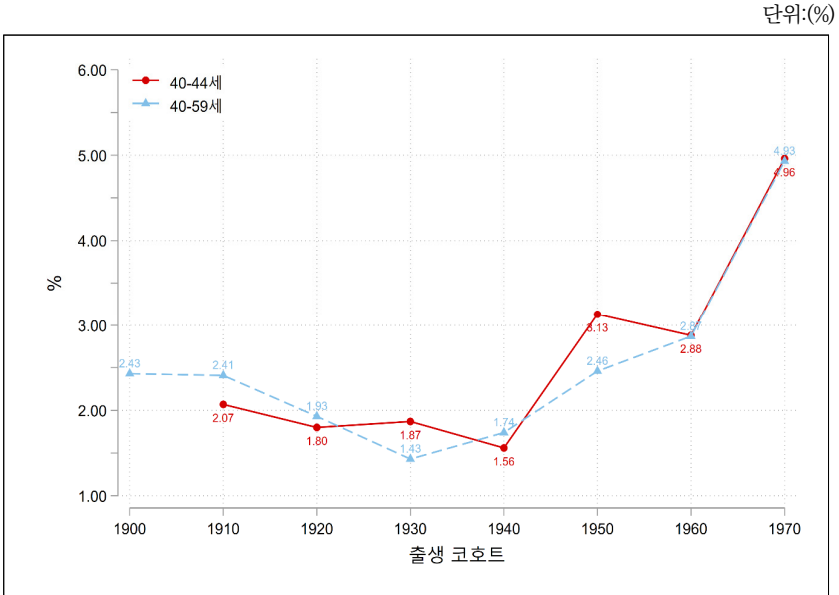
---

기의 변화에 따라 무자녀 비율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센서스 조사 시점별 결과보다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이 더 안정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음.

- 24) 전술한 것과 같이 1975년과 1980년에는 자녀 출산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이 두 센서스 시점에서는 무자녀 비중을 계산할 수 없음. 따라서 40~44세 무자녀 비중의 경우 1931~1940년생과 1951~1955년생 결과가 제외되었음. 그러나 40~59세 무자녀 비중의 경우, 1900년부터 1975년까지 모든 코호트 결과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40~44세 무자녀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음.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40~44세 결과와 40~59세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임.



[그림 3-2] 출생 코호트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의 경우 그들의 부모세대에 비해 무자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두 시기의 경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1950년대생의 경우 무자녀 비중이 3.13%까지 증가하였지만, 1960년대생의 경우 2.88%로 약간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70년대생의 경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무자녀 비중이 4.96%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보면 1980년대생의 무자녀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 무자녀 비중의 변화 양상은 1960년 시점에서 40~44세 여성들의 무자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1960년에도 서울이 가장 큰 대도시였지만, 당시 강원도는 활발한 관광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았으므로 현재와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김근태, 2015). 또한,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의 무자녀 비중 역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화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1970년대에는 지역별 무자녀 비중의 편차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충북의 무자녀 비중은 0.4%에 그쳤으나, 서울은 같은 시기에 2.4%를 보여 그 차이가 약 6배로 나타났다. 이후 지역별 편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 세종의 무자녀 비중이 6.6%로, 6.5%인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15년 세종 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은 1.8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구성하는 인구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며, 세종시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출산하고, 동시에 아예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3-19) 지역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단위: %)

	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	
	40-44	40-59	40-44	40-59	40-44	40-59	40-44	40-59	40-44	40-59	40-44	40-59	40-44	40-59	40-44	40-59	40-44	40-59
서울	2.5	3.4	2.6	2.7	2.4	3.1	1.8	1.9	1.8	1.5	4.9	3.5	3.7	3.0	2.6	2.0	6.5	4.3
부산	---	---	2.5	2.6	1.5	1.9	1.8	1.6	1.9	1.7	3.4	2.7	3.3	2.7	2.6	1.9	5.4	3.9
대구	---	---	---	---	---	---	2.0	1.8	1.3	1.3	2.3	1.9	2.3	2.1	1.6	1.8	4.8	2.9
인천	---	---	---	---	---	---	1.8	1.6	1.5	1.4	3.5	2.9	2.8	2.8	3.1	2.4	5.9	4.0
광주	---	---	---	---	---	---	---	---	1.2	0.9	2	1.4	1.9	1.4	1.8	1.6	3.5	3.2
대전	---	---	---	---	---	---	---	---	2.0	1.6	2.8	2.6	2.9	2.4	1.7	1.5	2.9	2.7
울산	---	---	---	---	---	---	---	---	---	---	3.6	3.0	1.5	2.5	1.9	2.0	4.9	3.2
세종	---	---	---	---	---	---	---	---	---	---	---	---	---	---	---	---	6.6	5.3
경기	2.3	2.5	1.5	2.2	1.8	2.1	2.4	2.0	2.0	1.7	4.8	3.8	3.0	2.9	2.5	2.0	5.6	4.0
강원	3.0	2.6	1.9	2.4	1.7	1.7	1.5	1.6	1.1	1.2	2.5	2.0	4.6	3.2	4.3	3.0	5.6	4.5
충북	1.8	2.0	1.1	1.3	0.4	1.2	0.9	1.1	0.5	0.8	2.8	2.3	3.7	2.9	2.3	2.5	5.2	3.8
충남	1.9	2.4	1.5	2.2	1.2	2.0	1.0	1.2	2.3	1.1	3.3	2.5	3.7	3.1	3.1	2.3	5.4	4.3
전북	1.6	2.0	1.6	2.4	1.5	1.9	1.1	1.1	1.0	1.1	1.7	1.6	2.6	2.0	2.3	1.9	5.4	3.7
전남	1.4	1.9	2.0	2.0	1.1	1.8	0.7	1.2	0.9	0.9	1.8	1.4	2.5	2.0	1.5	1.2	4.3	3.6
경북	2.0	1.9	2.2	2.1	1.5	2.1	1.0	1.5	1.2	1.5	2.2	1.8	3.6	2.7	2.3	1.9	3.8	3.7
경남	2.9	2.6	1.8	2.3	1.5	1.7	1.1	1.4	1.5	1.4	2.2	2.0	2.9	2.6	2.5	2.2	5.6	3.9
제주	2.4	2.8	2.2	1.7	2.6	2.9	1.2	2.4	1.4	1.1	3.0	1.9	2.7	2.5	4.2	3.0	4.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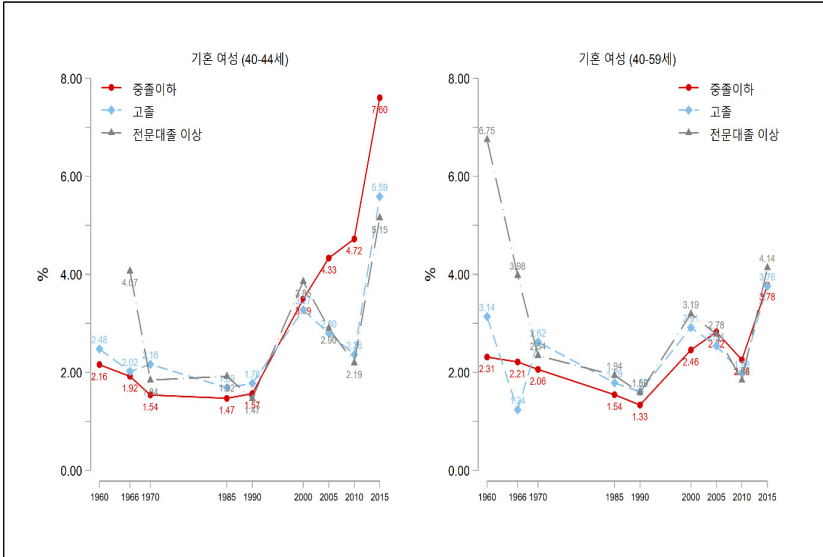
주: 샘플 기증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교육수준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 (life-course events)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교육수준과 무자녀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Baudin, Croix & Gobbi, 2015). 한국 센서스 조사 자료를 분석한 계봉오·김두섭(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무자녀 여성이 유자녀 여성에 비해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봉오·김두섭(2015)의 연구에서는 출산을 완료한 여성의 범위를 35세부터 65세까지 매우 넓게 설정하였고, 자료의 범위를 1975년 이후로 한정된 것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출산 완료 시점을 만 40세부터 44세까지로 한정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센서스 조사 자료를 활용한 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교육수준과 무자녀 비율은 약간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고학력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고졸이나 중졸 이하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시기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무자녀 비중이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 다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는 교육수준에 따른 무자녀 비중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특히 2005년 이후 정비례 관계가 반비례 관계로 변환되었는데, 2015년 시점의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7.60%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경우 5.15%를 나타냈다.

[그림 3-3]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시점 및 교육수준별 출산 완료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단위: %)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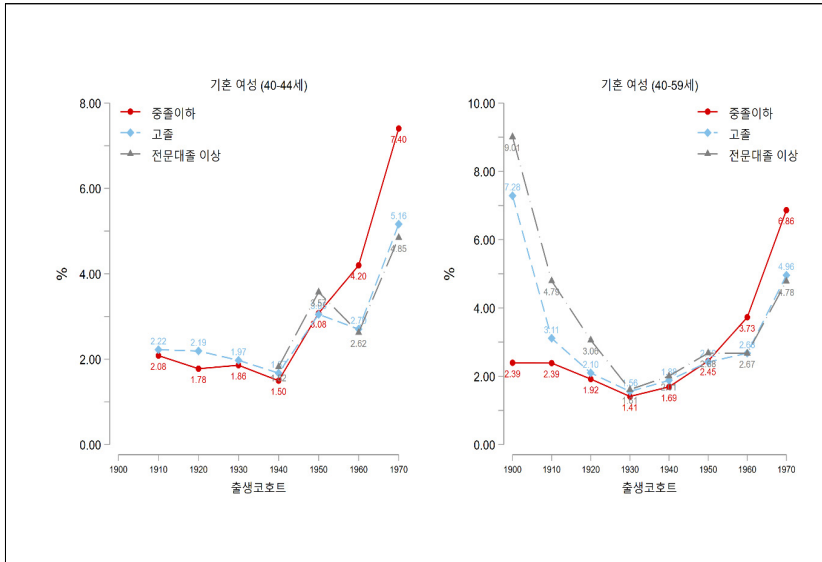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율의 격차는 출산 완료 연령을 59세까지 확대할 경우, 1970년 이전까지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격차는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패턴은 1970년대 이전에는 40대 중반 이후의 고학력 여성들은 점점 더 출산이 어려워졌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이 그동안 연기하였던 출산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일한 분석을 센서스 조사 실시 시점이 아닌 출생 코호트를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 교육수준에 걸쳐 1910년대생부터 1940년대생까지의 무자녀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생부터 무자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1960년대 코호트의 고졸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무자녀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중졸 이하 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발견되었다. 1970년대생의 경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무자녀 비중이 1960년대생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중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그림 3-4] 출생 코호트 및 교육수준별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단위: %)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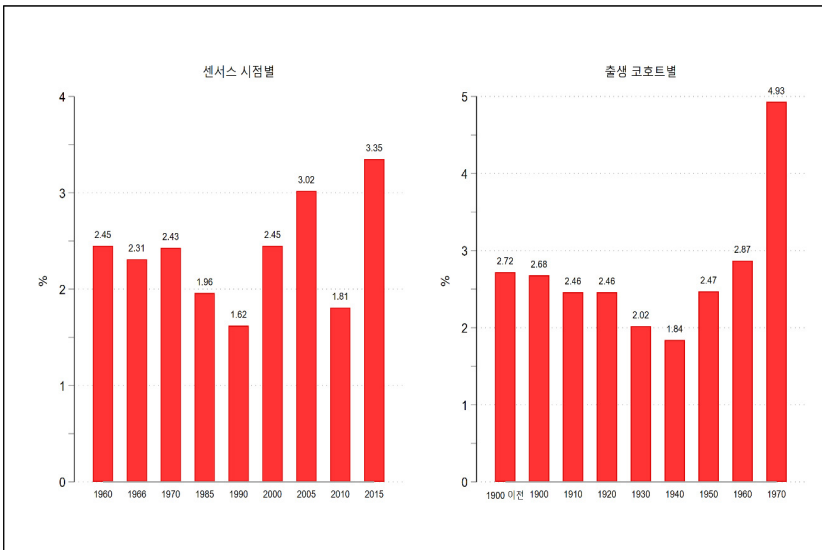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그렇다면 출산을 완료한 여성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무자녀 비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센서스 실시 시점과 출생 코호트별 만 40세 이상 여성의 무자녀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출산 완료 여

성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의 무자녀 비중은 40~44세로 한정된 경우보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약간 증가하고, 2000년대부터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40세 이전에 출산을 완료하였지만, 2000년대부터는 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40세 이후에도 이전 시기에 비해 출산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5] 센서스 시점별 및 출생 코호트별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단위: %)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위와 같은 방식으로 40세 이상 모든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중을 살펴보면,<sup>25)</sup>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중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약간 감소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5년, 2010년, 2015년 센서스 조사 2% 샘플에서는 총 출생아 수에 대한 질문에 더해 향후 추가적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만일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고자 하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무자녀 여성을 다음과 같이 2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인구주택총조사 시점까지 출산 경험이 없으나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는 '비자발적 무자녀(*involuntary childlessness*)'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인구주택 실시 시점까지 출산 경험이 없고, 향후 자녀 출산 계획도 없는 경우는 '자발적 무자녀(*voluntary childlessness*)'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점은 Kreyenfeld and Konietzka(2017)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것 같이 비자발적 무자녀와 자발적 무자녀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출산의도 또는 출산 결과 등과 관련한 많은 회고적 연구(*retrospective research*)에서 여성이 사후 합리화(*ex post rationalization*)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불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무자녀 상태가 된 경우에도 사후에 자신이 스스로 무자녀 상태를 선택하였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osenzweig & Wolpin, 1993).<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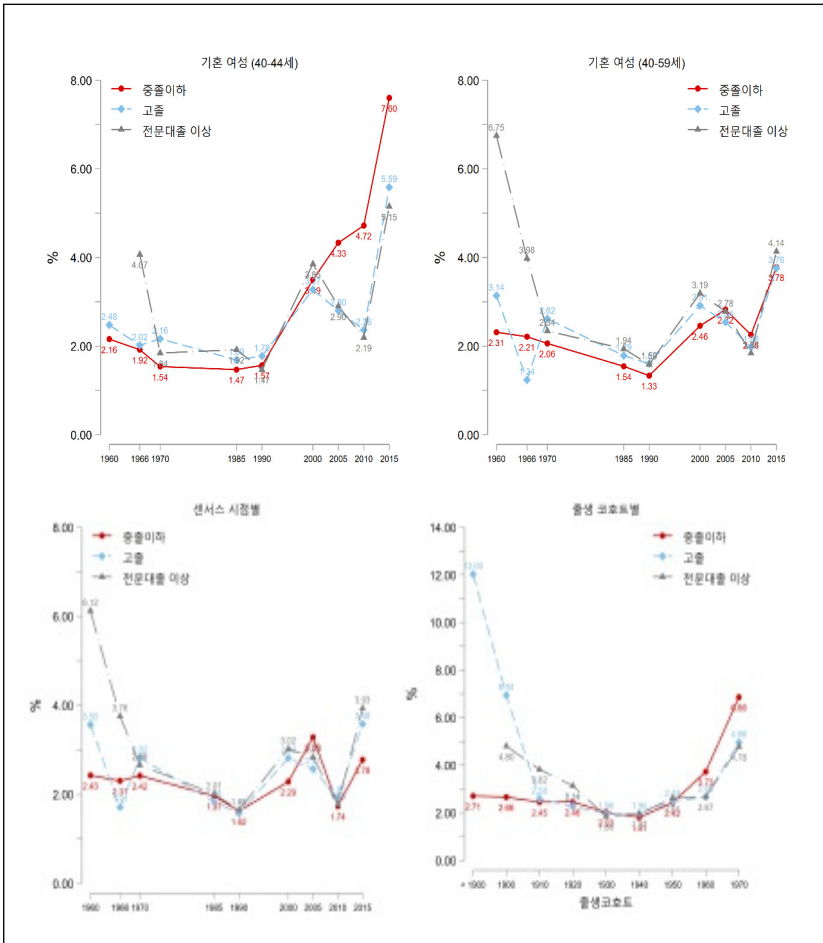
25) 이 분석에서와 같이 40세 이상으로 연령의 범위를 넓히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코호트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추이 변화를 해석할 때 출생 코호트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 무자녀 비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이런 해석상의 어려움은 [그림 3-4]에 제시된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임. 또한 [그림 3-4]와 같이 연령을 제한한 경우와 [그림 3-6]과 같이 40세 이상을 모두 포함한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음.

26)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무자녀 자발성에 대한 더 정밀한 측정은 불가능하였음.



[그림 3-6] 센서스 시점, 출생 코호트, 교육수준별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단위: %)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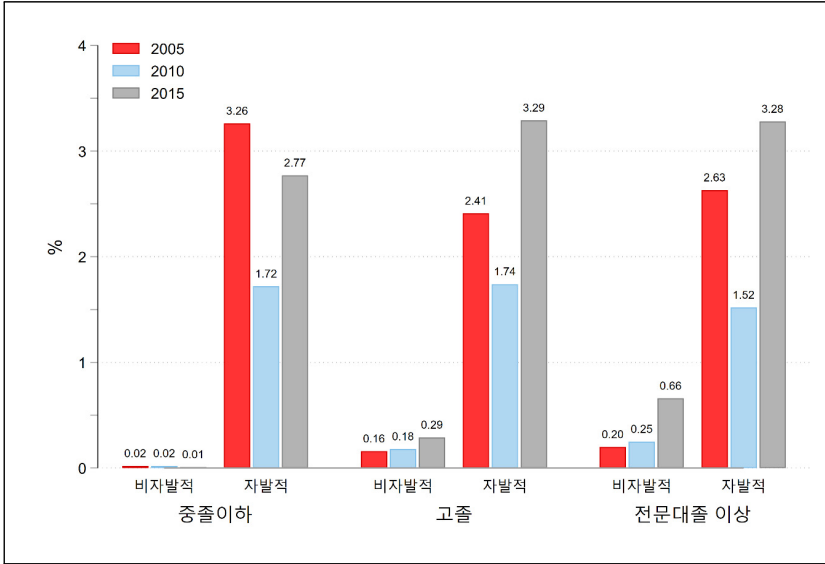
교육수준별로 만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을 보면, 우선 모든 교육수준에서 자발적 무자녀의 비중이 비자발적 무자녀 비

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한데, 이 분석에서 모든 응답자는 40세 이상이므로 여성 스스로 추가적인 임신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나 이미 종료되었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주의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정하기 어려운 경향성은 고졸 이상의 여성 사이에서 비자발적 무자녀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예를 들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출산 완결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2005년, 2010년, 2015년 각각 0.20%, 0.25%, 0.66%, 동일 기간의 고졸 여성은 0.16%, 0.18%, 0.29%로 각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므로 40세에 이를 때까지 무자녀로 남아 있다면 고졸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에 비해 출산 자체를 빨리 포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7] 출산 의도와 교육수준에 따른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변화

(단위: %)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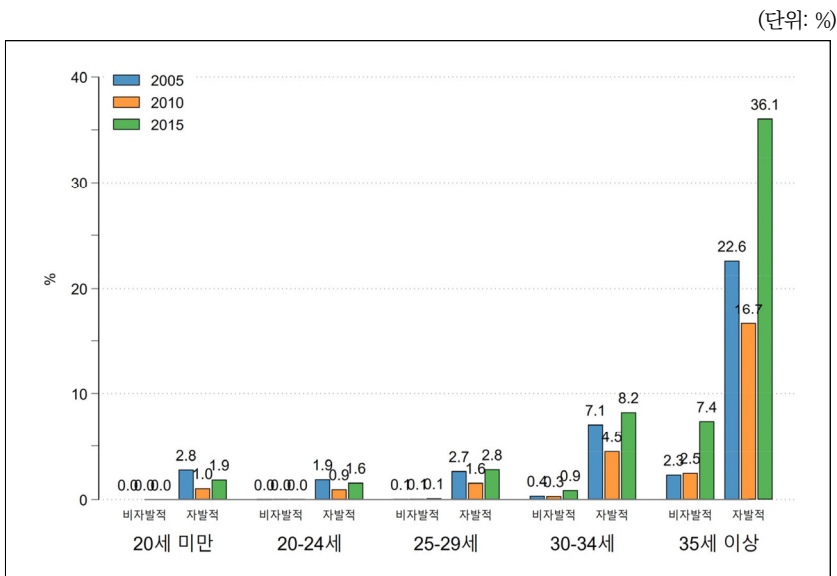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초혼연령(age at first marriage)은 완결 출산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이 보고되었다(Preston, Heuveline, and Guillot 2001). 즉 대다수의 사회에서 여성의 초혼연령은 임신과 출산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완결 출산력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5년 센서스 조사 2% 자료에 존재하는 기혼여성의 초혼연령 정보를 바탕으로 ① 20세 미만, ② 20~24세(20대 초반), ③ 25~29세(20대 후반), ④ 30~34세(30대 초반), ⑤ 35세 이상(30대 후반 이후)의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 74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이렇게 구분한 초혼연령의 범주별로 자발적 무자녀와 비자발적 무자녀 비중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무자녀 비중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 발견한 것과 같이 여성의 초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자발적 무자녀 비중과 비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가 폭은 여성의 초혼연령이 30세 이상, 특히 35세 이상인 경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10년 시점의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16.7%인 것에 비해, 2015년 시점에서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초혼연령 35세 이상의 여성 중 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2배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림 3-8] 출산 의도와 초혼연령에 따른 40세 이상 출산 완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 변화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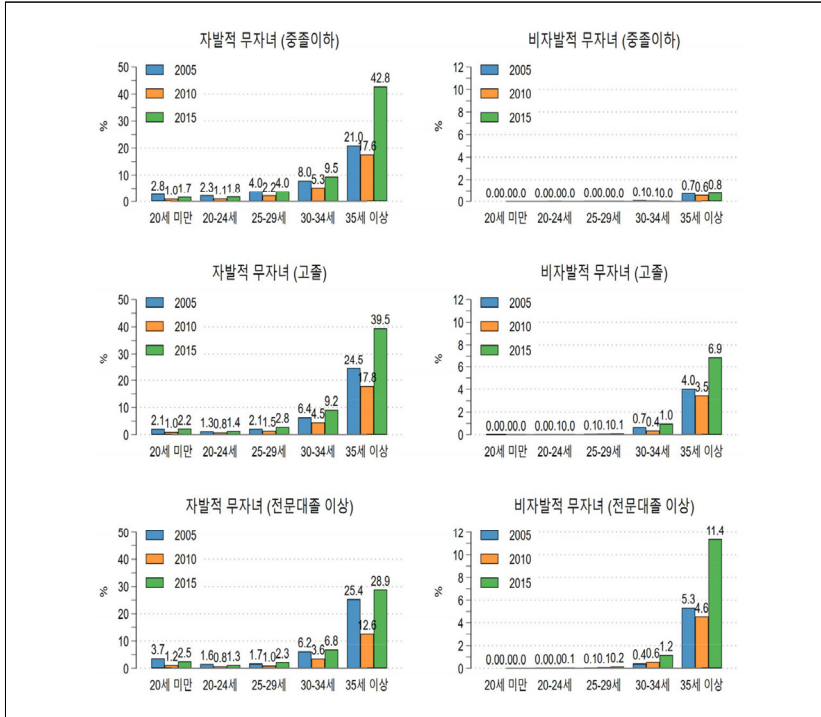
2000년에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5세, 남성은 29.3세였으나, 2020년에는 여성은 30.8세, 그리고 남성은 33.2세까지 증가하였다(통계청, 2021). 20년 동안 여성의 초혼연령이 4.3세 증가한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자발적 및 비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초혼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e.g., Kim,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혼연령과 교육수준이 상호작용하여 무자녀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과 초혼연령에 따른 무자녀 비중을 살펴보면,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 초혼연령이 상승할수록 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혼연령이 20대 후반인 경우와 30대 초반인 경우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자발적 무자녀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2005년에 초혼연령이 35세인 경우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자발적 무자녀 비중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과 2015년에는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5세 이상에서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무자녀 비중의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자발적 무자녀의 경우 초혼연령이 30세 미만에서는 교육수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혼연령이 30~34세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고, 35세에서는 상승 폭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비자발적 무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9] 교육수준 및 초혼연령별 자발적/비자발적 무자녀 비중 변화, 2005-2015

(단위: %)



주: 샘플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제2절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요인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요인은 횡단면 자료와 종단면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횡단면 자료는 시간 경과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시간 불변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현재 무자녀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무자

녀 부부 현황에서 사용된 ‘결혼과 출산 조사’는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보다 표본이 풍부하여 무자녀 선택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센서스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단면 자료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였고, 종단면 자료는 횡단면 자료에 비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패널 차수별 특성을 이용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1.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수준이나 직업 및 소득 같은 기본적인 사회경제적인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reyenfeld & Konietzka, 2017).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가족에 대한 태도, 가치관, 사회화 과정 등이 오랜 기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 무자녀 상태라는 것이다(박시내, 2020; Houseknecht, 1979). 다만, 이 분석에서는 센서스 조사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가치관이나 태도 또는 생애 과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을 중심으로 무자녀 선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변수 설명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만 40세 이상 기혼여성 중 센서스 조사가 실시된 시점까지 한 번도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1, 그리고 1회 이상 출산을 경험한 경우를 0으로 하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여기에서 출산 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사 시점 당시에 무자녀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

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무자녀 상태를 출산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무자녀 선택과 논리적으로 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27)</sup>

주요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교육수준은 연수가 아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즉, 응답자의 학력 상태를 기준으로 졸업이 아닌 수료, 중퇴, 재학 등의 상태라면, 보고된 학력 상태에서 한 단계 낮추는 방법으로 최종 학력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는 대졸로 하였다. 다음으로, 출생 코호트는 조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그 후 10년 간격의 코호트로 재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였다.<sup>28)</sup> 센서스 시점은 센서스가 실시된 연도를 의미하며, 2005년, 2010년, 2015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읍면동부는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읍면 또는 동부로 구분하였으며, 읍면부는 농어촌 지역을 그리고 동부는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혼연령은 응답자가 보고한 자신의 초혼연령을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모델에 투입하였다. 사망한 자녀 유무는 조사 시점까지 사망한 자녀

27) 인구총조사 2% 샘플에서는 응답자의 출산 경험을 2가지 질문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음. 우선 응답자가 출산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남아와 여아를 각각 몇 명씩 낳았는지를 물었음. 그리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하여 출산한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묻고, 만일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남아와 여아 각각 몇 명인지를 물었음.

28) 출생 코호트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2005년 자료의 경우 예전 코호트 (예를 들면 40년 이후 출생자)는 2005년, 2010년, 2015년에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70년대생의 경우에는 적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볼 때 특정 코호트는 계속 포함되고, 특정 코호트 이외는 적게 포함되어 샘플 크기를 계산할 때 특정 코호트가 너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기술통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코호트들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고, 연령이 가장 높은 192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이는 데이터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분석 결과 자체를 중대하게 바꿀 정도로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함.



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술통계 분석은 유자녀와 무자녀 여성을 제시하였다. 연령의 경우 유자녀 응답자가 무자녀 응답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세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자녀 여성의 평균 연령은 58.3세인 반면, 무자녀 여성의 평균 연령은 5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자녀 여성이 유자녀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자녀 여성 중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은 각각 55%, 30%, 15%로 나타났지만, 무자녀 여성의 경우 같은 학력 수준이 각각 49%, 33%, 18%로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무자녀 여성들이 유자녀 여성들에 비해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자녀 여성의 평균 연령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약간 높은 만큼 출생 코호트도 유자녀 여성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1940년대생과 1950년대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자녀 여성은 유자녀 여성에 비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출산 완료 기혼여성(만 40세 이상)의 무자녀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

(단위: 세, %)

	유자녀		무자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세)	58.3	12.5	56.4	12.9
교육수준				
중졸 이하	54.5		49.2	
고졸	31.0		33.1	
전문대졸 이상	14.5		17.6	
출생 코호트				
1920년대생	4.5		5.6	
1930년대생	15.5		13.3	
1940년대생	19.4		13.8	
1950년대생	26.6		23.1	
1960년대생	27.4		30.3	
1970년대생	6.6		13.9	
센서스 시점				
2005년	28.8		31.4	
2010년	34.5		22.3	
2015년	36.7		46.3	
읍면동부				
읍면부	47.8		48.3	
동부	52.2		51.7	
초혼연령				
20세 미만	21.1		13.9	
20~24세	48.8		26.0	
25~29세	24.2		22.3	
30~34세	4.3		12.4	
35세 이상	1.7		25.4	
사망한 자녀 유무				
없음	93.3		53.7	
있음	6.7		46.3	
N	696,937		19,325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센서스 시점의 경우 2005년 조사에서는 유자녀와 무자녀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 센서스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무자녀 여성의 비율보다 높았고, 2015년에는 반대로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유자녀 여성의 비중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분석에서 여성의

연령을 만 40세로 제한함으로써 센서스 시점마다 포함되는 코호트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한편,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분포는 읍면동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초혼연령은 유자녀와 무자녀 여성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자녀 여성의 경우 초혼연령이 20대 중반 이전인 경우가 무자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고, 반대로 무자녀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의 비중이 유자녀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혼연령이 무자녀 상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넷째, 사망한 자녀 유무도 무자녀와 유자녀 여성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유자녀 여성의 경우 사망한 자녀가 없는 경우가 93%이고,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비율은 7%에 그쳤다. 그러나 무자녀의 경우 46%가 한 번 이상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자녀의 사망이라는 트라우마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사망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무자녀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검증할 수 없지만, 향후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다.

## 나. 분석 결과

무자녀 선택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었는데, 모델1에는 교육수준, 출생 코호트, 센서스 시점, 그리고 읍면동부를 도입하였다. 모델2에는 모델1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더하여 초혼연령이 투입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델3에는 사망한 자녀의 유무가 더해졌다. 이러한 순차적

변수 투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매개효과(mediating effect)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치는 승산비(odds ratio)로 표시하였다.

모델1 결과에 의하면, 고졸 여성의 경우 중졸 이하의 여성에 비해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은 13.2%p 감소하였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 여성의 경우 중졸 이하 여성에 비해 무자녀로 남아 확률이 12.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코호트별로 보면, 1920년대생과 비교하여 1970년대생을 제외한 모든 코호트에서 무자녀 상태가 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감소 폭은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인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1970년대생의 경우 오히려 무자녀 확률이 50.5%p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것은 최근 관측되고 있는 무자녀 여성의 증가가 1970년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센서스 실시 시점별로 보면,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무자녀 확률이 4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센서스 실시 시점에 포함된 출산 완결 여성들의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인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무자녀 확률이 약 1.5%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은 차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표 3-21〉 출산 완료 기혼여성(만 40세 이상)의 무자녀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Model1	Model2	Model3
교육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0.868*** (0.002)	0.784*** (0.002)	0.879*** (0.003)
전문대졸 이상	0.872*** (0.003)	0.649*** (0.002)	0.718*** (0.003)
출생 코호트 (Ref. 1920년대생)			
1930년대 생	0.678*** (0.004)	0.803*** (0.005)	1.220*** (0.007)
1940년대생	0.544*** (0.003)	0.622*** (0.004)	1.525*** (0.009)
1950년대생	0.656*** (0.003)	0.718*** (0.004)	2.367*** (0.014)
1960년대생	0.868*** (0.005)	0.842*** (0.005)	2.924*** (0.019)
1970년대생	1.505*** (0.010)	1.128*** (0.008)	3.511*** (0.026)
센서스 시점 (Ref. 2005)			
2010	0.562*** (0.002)	0.533*** (0.002)	0.438*** (0.002)
2015	0.991** (0.004)	1.051*** (0.004)	0.550*** (0.002)
읍면동부 (읍면=1)	0.985*** (0.003)	0.982*** (0.003)	0.917*** (0.003)
초혼연령 (Ref. 20세 미만)			
20~24세		0.847*** (0.003)	1.166*** (0.005)
25~29세		1.472*** (0.006)	2.238*** (0.010)
30~34세		4.465*** (0.020)	6.372*** (0.031)
35세 이상		24.610*** (0.100)	29.669*** (0.138)
사망 자녀 유무 (있음=1)			21.735*** (0.061)
상수	0.047*** (0.000)	0.031*** (0.000)	0.006*** (0.000)
N	716,262	716,262	716,262
Log-likelihood	-4.272e+06	-3.772e+06	-3.196e+06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지수형)

2)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모델2에서는 무자녀 현상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여성의 초혼연령이 더해졌다. 결과를 보면, 첫 혼인을 20세 미만인 한 여성에 비하여 20대 초반(20~24세)에 한 경우 무자녀 확률이 15.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중반 이후 첫 혼인을 한 경우에는 모두 20세 이전의 경우보다 무자녀 확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에 혼인한 경우 무자녀 확률이 47.2%p 증가하고, 30대 초반인 경우 4.5배(4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2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보다 무자녀 확률이 2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시기에 따른 무자녀 확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1에서 사용하였던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도는 모델2에서 초혼연령을 투입하여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수준, 출생코호트, 센서스 조사 시점, 읍면동부 등의 효과가 무자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초혼연령이 매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들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무자녀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3은 모델2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에 더하여 자녀의 사망 경험 유무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조건들을 통제된 후에도 자녀의 사망을 1회 이상 경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무자녀 확률이 약 21.7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망 여부와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임신·출산 과정에서 유산 등으로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자녀의 사망 경험은 무자녀로 이행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녀 사망 유무를 모델에 투입하게 되면 두 번째 모델까지 사용된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

다. 특히 출생 코호트의 경우 자녀 사망 여부가 더해지면 회귀계수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여성들의 연령이 높고, 즉 이른 코호트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이유로 초혼연령의 효과도 모두 양으로 변화했고 확률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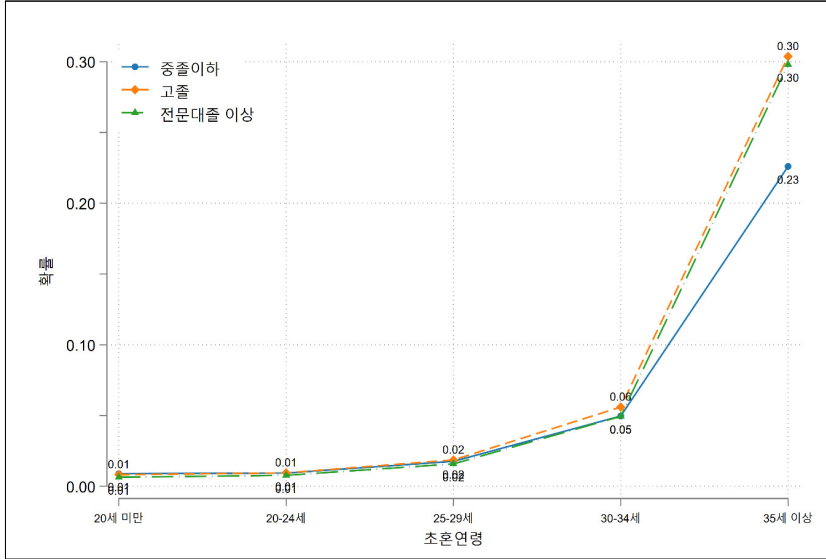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과 이 분석에서 밝혀진 바를 고려할 때 무자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에 따라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을 계산하였는데,<sup>29)</sup>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 초혼연령이 상승할수록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무자녀 확률은 여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급격하게 상승하며, 35세 이후 결혼하게 되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다. 다만, 동일한 결혼 연령 내에서 교육수준이 무자녀로 남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성에 예외가 있었는데 초혼이 35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고졸이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 여성의 무자녀 확률보다 중졸 이하 여성의 무자녀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9)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는 출생 코호트가 중복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대표성에 있어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그러나 회귀분석에 포함된 코호트는 1920년대생부터 1970년대생까지 각각 4.6%, 15.4%, 19.3%, 26.5%, 27.5%, 그리고 6.8%를 보였음. 따라서 고령층이 중복해서 샘플에 들어가는 문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회귀식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n\left(\frac{p}{1-p}\right) = \alpha + \beta_1 Edu + \sum_{i=2}^k \beta_i X_i$$

여기에서 Edu 값만 변화할 뿐 절편은 유지되며,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평균치가 적용되어 계산됨.

[그림 3-10] 초혼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무자녀 선택 확률(만 40세 이상 기혼여성)



주: <표 3-21>의 모델 3 결과에서 초혼연령과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를 각 변수의 평균 값으로 대체한 후 확률을 계산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2.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 가. 기혼부부의 자녀 분포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분석은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무자녀 부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혼부부의 자녀 분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0)</sup> 이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2020년 3월 27일 버전의 'klowf\_01\_07\_p\_L.dta' 자료 파일(STATA)을 기준으로 변수 구축 및

30)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대상자는 조사 대상 가구 내의 여성으로 엄밀히 부부가 아니지만 현재 유배우인 여성만을 추출하였으므로 편의상 기혼부부로 서술함.



데이터 가공을 거쳐 분석하였다. 상기 자료 파일은 이용자 친화적으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개인 자료를 1차부터 7차까지 통합해 놓은 자료이다. 기혼부부의 자녀 분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차수 별 여성의 출산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출산 정보 또한 이용자 친화적으로 1차(2008년)부터 7차(2018년)까지의 출산 이력 정보를 통합한 자료 파일(KLOWF\_birth\_history\_01-07(200330))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였다.

다만, 상기 출산 이력 자료는 1차 조사 부분의 출산 정보를 이용하면 여성의 자녀 수를 쉽게 산출할 수 있었으나, 2차 자료부터는 추가 출산과 새롭게 패널에 진입한 여성들의 출산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이들을 식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일 이들이 식별되었다 하더라도 차수별 현재 자녀 수를 알 수 없고, 이 자료에서는 추가 출산 자녀 수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총 자녀 수는 1차 자료를 통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를 연쇄적으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를 통합해야 전 차수의 자녀 수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키 변수가 필요한데, 주로 개인 ID 변수와 패널 차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함께 이용되지만, 출산 이력 자료에는 패널 차수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차선택으로 출산조사 차수와 순번을 나타내는 변수(WBOD)를 이용하여 패널 차수를 구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녀를 식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혼부부의 자녀 수를 산출하였고, 그 분포를 살펴보면,<sup>31)</sup> 1차에서 무자녀는 5.4%(320명)로 나타났고, 2차는 3.7%(178명), 3차는 3.9%(163명), 4차는 3.8%(138명), 5차는 4.3%(135명), 6차는 5.4%(202명), 7차는 5.4%(167명)로 나타났다. 기혼부부의 자녀 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자녀 수가 2명으로 전 차수 평균이

31)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함(50세 미만).

60.1%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1명으로 19.4%, 3명은 14.5%로 나타났다.

〈표 3-22〉 기혼여성의 자녀 수 분포: 1~7차 자료

(단위: %, 명)

자녀 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합계
0명	5.4	3.7	3.9	3.8	4.3	5.4	5.4	4.6
1명	20.3	19.1	18.0	17.6	18.3	21.1	21.4	19.4
2명	59.7	61.4	62.1	61.5	60.3	57.5	57.0	60.1
3명	13.2	14.3	14.7	15.8	15.7	14.6	14.6	14.5
4명	1.2	1.4	1.1	1.2	1.2	1.3	1.3	1.2
5명	0.2	0.1	0.1	0.1	0.1	0.2	0.2	0.1
6명	0.0	0.0	0.0	0.0	0.0	0.0	0.0	0.0
N	5,914	4,854	4,196	3,638	3,147	3,762	3,069	28,580

주: 자녀가 6명인 표본은 1명으로 반올림한 결과 0.0으로 표기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a). 여성가족패널 1~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나.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분포 및 종속변수

무자녀 부부의 무자녀 선택 요인에 관한 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Heaton et al.(1999)의 실증 분석 모델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라 1차에서 아이를 원했으나 2차에서 아이가 없는 경우(2차에서도 아이를 원함)는 ‘출산 연기’, 1차에서는 아이를 원했으나 2차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한 경우(아이는 여전히 없음)는 ‘무자녀 전환’, 1차에서 아이를 원했고 2차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2차에서의 아이를 원하는지는 관계없음)는 ‘의향 출산’, 1차와 2차에서 모두 아이가 없으면서 두 시기 모두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지속적 무자녀’, 1차에서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나 2차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 ‘출산 전환’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상기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차수의 출산 의향과 출산 행동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출산 의향은 기혼여성 중 자녀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차 자료는 제외하고 변수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변수 구축은 2차 조사에서의 출산 의향을 기준으로 3차에서의 실제 출산 행동 변수를 조합하였고, 3차 조사의 출산 의향을 기준으로 4차에서의 실제 출산 행동 변수를 조합하는 형태로 7차까지 구축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 간격과 출산 의향 변수의 기간 적용이다. 즉, 출산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 간격이 2년인데, 2년을 넘어선 출산 의향은 다음 차수의 조사에서 출산 의향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행히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출산 의향에 대한 시기를 1년 이내, 1~2년 사이, 2년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어서 2년 이상의 경우는 다음 차수에서 출산 의향이 다시 조사되므로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sup>32)</sup>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자료에서는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출산 의향 정보가 없어 2차부터 범주를 분류하여 구축하였으며, 6차의 출산 의향과 7차의 실제 출산 행동을 조합하여 분류하므로 2차부터 6차까지의 변수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은 자녀를 낳을 의향을 갖고 다음

32) 분석에 사용된 표본 중 출산 의향에 대한 시기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8.8%로 나타나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추가로 출산 의향에 대한 시기가 2년 이상일 때 출산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음.

출산 의향 시기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1년 이내	46.9	49.2	50.5	53.1	53.9	50.2
1~2년 사이에	46.3	36.3	40.6	39.1	39.8	41.1
2년 이상	6.9	14.5	8.9	7.8	6.3	8.8
N	175	124	101	64	128	592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차수에 자녀를 낳은 의향 출산으로 36.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속적 무자녀는 25.4%, 출산 전환 17.7%, 출산 연기 10.6%, 무자녀 전향 9.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차에서 4차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은 의향 출산으로 2차 47.5%, 3차 34.3%, 4차 33.8%이고, 5차와 6차에서는 지속적 무자녀가 각각 38.1%와 33.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23〉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 유형: 2~6차

(단위: %, 명)

무자녀 선택 분류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출산 연기	10.6	12.8	13.0	9.0	7.8	10.6
무자녀 전향	6.3	4.4	13.0	9.0	18.0	9.7
의향 출산	47.5	34.3	33.8	26.1	32.0	36.7
지속적 무자녀	18.2	21.1	24.0	38.1	33.0	25.4
출산 전환	17.5	27.5	16.2	17.9	9.2	17.7
N	303	204	154	134	206	1,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3.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구축한 무자녀 선택 유형 5가지(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의향 출산,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델을 이용하였고, 5가지 유형 중 ‘의향 출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5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은 무자녀 선택 분석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종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차수 간의 변화를 충분히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출산 분석에서는 자녀의 출산 여부만을 고려하고 있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 이것이 본인의 의지로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자녀를 낳고 싶다가도 낳고 싶지 않게 되는 변화를 파악하

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유형화함에 따라 조금 더 상세한 분류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는 5가지 유형 중 ‘의향 출산’을 기준으로 그 외의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한 유의성을 가진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것은 유형별 결정요인의 비교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5가지 분류 중 ‘의향 출산’은 무자녀를 선택한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분류한 것이며, 출산 전환은 단지 자녀를 낳으려는 생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므로 출산으로 이행한 것은 아니기에 무자녀 상황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은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 남편의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 주거 요인을 각각 추정한 후, 전체 요인을 추정한다. 이렇게 개별 그룹별로 추정하는 이유는 각 요인 그룹별 다중공선성(collinearity)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각각을 별도로 추정하고 이후 전체 요인을 도입하여 추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만일 개별 요인과 전체 요인 간의 효과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강건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 추정에서는 아내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과 남편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을 별도로 추정한 후 두 요인 전체를 추정한다. 다만, 본 분석에 앞에서 예비 분석한 결과, 아내의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의 경우, 취업 여부와 가사시간,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간에 큰 상관성이 존재하여 취업 여부와 그 외 요인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종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종단면 자료의 특성을 이용한, 즉 시간의 경과 개념을 도입한 분석은 아니며, 종단면 자료를 사용한 목적은 출산 의향과 그다음 시기의 출산 선택이라는 표본의 시기별 행동 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분석은 각 차수의 변수를 횡단면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점별로 조사된 표본을 한 시점으로 배열한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다만, 이렇게 가정할 경우의 문제점은 동일 개인이 여러 번 분석에 포함되어 회귀분석의 일반적인 가정인 등분산성(homoskedasticity)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경우 표준오차가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띠게 되고, 이는 효율성(efficiency) 상실을 발생시켜 최적 선형 불편 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을 도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분석에서는 Eicker-White standard errors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가. 기초통계 분석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축하였으며, 아내의 특성 변수, 남편의 특성 변수, 공통 변수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일자리 및 소득 변수, 가치관 변수, 거주 관련 변수로 구성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교육수준, 형제자매 수, 초혼연령이며,<sup>33)</sup>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2·3년제 대졸, 4년

33)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우리나라 남편의 연령과 아내의 연령은 대략 3세 정도의 차이가 균일하게 존재하여 두 연령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쪽의 연령을 도입하는 것이 보통임. 다만, 이 분석에서는 초혼연령을 도입하는데 이 초혼연령 변수가 무작위로 발생한다면 모든 변수를 함께 분석에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보통 결혼 적령기가 있으며 또한 만혼화라는 경향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인의 연령과도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혼연령 변수만을 도입하였음. 그리고 앞에서 이루어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독립변수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려 하였으나, 패널 자료의 한계 및 표본 수 확보를 위하여 유사하게 구성하지 못하였음. 예를 들어, 출생 코호트의 경우 센서스 조사 자료는 표본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기에 출생 코호트가 다양하게 분포하나, 종단면 자료를 이용한 경우, 총 1,001 표본 중 1960년대 코호트의 수가 98, 1970년대 490, 1980년대 코호트가 302, 1990년대 코호트가 11로, 1970년과 1980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분포를 분석에 도입하려면 1970년대 이전 코호트와 1980년대 이후 코호트로 하는 2항 변수로 구축하여 도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초혼연령 및 교육수준도 표본분포의 차이로 인하여 범주를 동일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위가 있음. 그리고 사망 자녀 변수의 경우,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2차

제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4년제 대졸 이상이 45.1%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가 30.5%, 2·3년제 대졸이 24.4%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수는 González & Jurado-Guerrero(2006)의 연구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도입하였으며, 평균 3.4명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의 증가는 가임 기간의 축소로 출산 행동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많은 출산 행동 관련 연구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으며(은기수, 2001; 조성호, 2016; 조성호·문승현·김종훈, 2020), 평균 28.1세로 나타났다. 일자리 및 소득 변수는 취업 여부, 가사시간,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으로 구성되며, 아내의 취업 비율은 44.9%로 나타났고, 이 중 맞벌이는 43.0%로 나타났다. 가사시간과 근로시간은 시간배분적 관점에서 가정 내에서의 시간적인 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주당 가사시간<sup>34)</sup>과 주당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아내의 주당 가사시간은 24.1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18.7시간이며, 월평균 소득은 78.1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변수 중 결혼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현 남편과의 요즈음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변수로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1~3차 패널조사에서는 7개 척도로 응답을 받았고, 4~7차 조사에서는 10개 척도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해 100점 만점으로 변환된 변수를 이용하였다. 결혼 만족도 점수 평균은 71.8점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가치관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

조사 이외에서는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 도입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34)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가사시간(집안일)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집안일을 하는지를 질문했는데, 평일을 5배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더한 값을 주당 가사시간 변수로 구축함.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개 척도를 변수로 구축하였으며, 평균 2.44점으로 나타났다. 자녀 필요성은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4개 척도)을 변수로 구축하였는데, 평균 2.98점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주당 가사시간은 3.6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9.2시간으로 가사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6.7배 많은 반면, 근로시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2.6배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281.1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3-24〉 기초 통계량: 무자녀 부부 전체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b>교육수준</b>			
고졸 이하		0.305	0.460
2·3년제 대졸	998	0.244	0.430
4년제 대졸 이상		0.451	0.498
<b>형제자매 수</b>			
형제자매 수	997	3.369	1.386
<b>초혼연령</b>			
초혼연령	931	28.124	4.234
<b>아 취업 여부(취업=1)</b>			
아 취업 여부(취업=1)	998	0.449	0.498
<b>내 맞벌이 여부(맞벌이=1)</b>			
내 맞벌이 여부(맞벌이=1)	998	0.430	0.495
<b>가사시간</b>			
가사시간	998	24.141	21.904
<b>근로시간</b>			
근로시간	998	18.712	22.646
<b>월평균 소득(만 원)</b>			
월평균 소득(만 원)	998	78.1	107.5
<b>결혼 만족도</b>			
결혼 만족도	986	71.873	17.344
<b>성역할 가치관</b>			
성역할 가치관	998	2.441	0.778
<b>자녀 필요성 가치관</b>			
자녀 필요성 가치관	998	2.977	0.818
<b>남편</b>			
가사시간	986	3.601	4.659
근로시간	871	49.172	13.139
월평균 소득(만 원)	866	281.1	127.8
<b>수도권 거주</b>			
수도권 거주	998	0.341	0.474
<b>공통 주택 소유 형태</b>			
자가		0.466	0.499
전세	997	0.346	0.476
그 외		0.188	0.39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마지막으로 거주 관련 변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구축하였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34.1%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 전세,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형태를 기타로 묶어 변수를 구축하였는데, 자가가 46.6%, 전세가 34.6%, 그 외가 18.8%로 분포하였다.

그리고 무자녀 부부의 5가지 유형별 특징을 보기 위하여 유형별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의 고졸 이하 비율이 40.6%로 가장 높고, 4년제 이상의 비율은 출산 연기가 5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수는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출산을 연기한 여성이 3.1명으로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초혼연령은 의향 출산 유형의 여성이 27.5세로 가장 낮고, 무자녀로 전향한 여성이 30.1세로 가장 높았다.

가사시간은 출산으로 전환한 여성이 33.8시간으로 가장 길고, 무자녀로 전향한 여성이 14.8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무자녀로 전향한 여성이 24.8시간으로 가장 길고, 의향 출산 유형의 여성이 15.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월평균 소득은 무자녀로 전향한 여성이 101.5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이 67.7만 원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 만족도는 무자녀로 전향한 여성이 75.0점으로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이 66.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가치관은 무자녀 전향 여성과 출산 전환 여성이 2.49점으로 유사하고, 출산을 연기한 여성이 2.28점으로 가장 낮다. 자녀의 필요성은 의향 출산 여성이 3.17점으로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이 2.65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시간은 출산하거나 출산하려고 전향한 여성에서 평균 4.2~4.3점의 분포를 보였으나, 그 이외의 유형에서는 2.6~

2.9점의 분포를 보여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무자녀로 전향한 여성이 261.0만 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이 297.1만 원으로 가장 많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출산으로 전환한 여성이 39.0%로 가장 많고,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이 26.8%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의 경우 지속적으로 무자녀인 여성이 54.7%로 가장 높고, 전세는 무자녀로 전환한 여성이 42.3%, 그 외는 지속적 무자녀 여성이 23.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5〉 기초 통계량: 무자녀 부부 유형별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의향 출산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b>교육수준</b>					
고졸 이하	0.274	0.340	0.253	0.406	0.266
2·3년제 대졸	0.217	0.237	0.248	0.232	0.271
4년제 대졸 이상	0.509	0.423	0.499	0.362	0.463
<b>형제자매 수</b>					
초혼연령	3.142	3.351	3.183	3.798	3.288
28.382	30.066	27.487	28.737	27.284	
<b>아 취업 여부(취업=1)</b>					
0.528	0.598	0.379	0.469	0.446	
<b>내 맞벌이 여부(맞벌이=1)</b>					
0.509	0.567	0.365	0.445	0.429	
<b>가사시간</b>					
16.187	14.830	27.858	18.815	33.748	
<b>근로시간</b>					
21.741	24.771	15.708	19.520	18.650	
<b>월평균 소득(만 원)</b>					
100.0	101.5	70.1	67.7	84.5	
<b>결혼 만족도</b>					
74.214	75.029	74.342	66.381	71.553	
<b>성역할 가치관</b>					
2.283	2.485	2.431	2.465	2.486	
<b>자녀 필요성 가치관</b>					
2.962	2.866	3.169	2.646	3.119	
<b>가사시간</b>					
2.802	2.655	4.220	2.905	4.326	
<b>근로시간</b>					
48.255	47.261	50.148	48.188	50.111	
<b>월평균 소득(만 원)</b>					
276.4	261.0	278.5	297.1	278.6	
<b>수도권 거주</b>					
0.377	0.371	0.349	0.268	0.390	
<b>주택 소유 형태</b>					
<b>자녀 유형</b>					
자녀 유형	0.434	0.423	0.445	0.547	0.435
전세	0.415	0.423	0.372	0.220	0.390
그 외	0.151	0.155	0.183	0.232	0.175

주: 표본 수는 '출산 연기'가 106, 무자녀 전향이 97, 의향 출산이 367, 지속적 무자녀가 254, 출산 전환이 177임. 다만, 초혼연령, 남편 가사시간, 결혼 만족도 변수의 경우, 결측치에 따라 상기 수치보다 약간 적은 수의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나. 회귀 분석 결과

### 1) 개별 그룹 요인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 이상에 비하여 고졸 이하인 경우 출산 의향을 갖고 출산한 아내와 비교하여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적인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증가하고,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무자녀로 전향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아내)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교육수준(Ref. 4년제 이상)				
고졸 이하	1.294 (0.467)	2.118* (0.679)	2.203** (0.649)	1.092 (0.247)
2·3년제 대졸	0.994 (0.380)	1.604 (0.516)	1.398 (0.500)	1.361 (0.281)
형제자매 수	0.942 (0.131)	1.055 (0.119)	1.412*** (0.145)	1.082 (0.081)
초혼연령	1.057 (0.042)	1.133*** (0.031)	1.036 (0.033)	0.982 (0.023)
패널 차수 더미(Ref. 2차)				
3차	1.309 (0.384)	0.822 (0.393)	1.875** (0.379)	2.115** (0.584)
4차	1.496 (0.529)	2.552* (0.985)	2.330*** (0.592)	1.386 (0.425)
5차	1.299 (0.559)	2.586* (1.134)	4.720*** (1.339)	1.718 (0.575)
6차	1.035 (0.379)	4.172*** (1.402)	3.956*** (1.009)	0.788 (0.251)
상수	0.053** (0.054)	0.002*** (0.002)	0.025*** (0.023)	0.419 (0.275)
log-likelihood	-1284.925			
Observations	930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음으로 아내의 일자리 및 경제적 변수를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1의 취업 여부는 출산 의향을 갖고 출산한 아내에 비하여 출산을 연기할 확률과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를 유지할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지만, 출산으로 전향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가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있을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사시간은 보통 전업주부, 즉 일하지 않는 여성일 경우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전업주부일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를 유지하는 경향은 작고, 출산하는 경향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1에서 유의했던 취업 여부의 유의성이 사라지고, 가사시간으로 그 유의성 크기가 전이된 것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을 확률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27〉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아내)

	model1			model2		
	출산 연기	무자녀 전환	지속적 무자녀	출산 연기	무자녀 전환	지속적 무자녀
취업 여부(취업=1)	1.846* (0.457)	2.206** (0.536)	1.334 (0.281)	1.487 (0.890)	2.313 (1.308)	2.136 (1.067)
가사시간				0.957*** (0.009)	0.948*** (0.012)	0.979*** (0.006)
근로시간				0.993 (0.013)	1.003 (0.012)	1.007 (0.011)
월평균 소득				1.001 (0.002)	0.997 (0.002)	0.994** (0.002)
패널 차수 더미(Ref. 2차)						
3차	1.592 (0.434)	0.816 (0.363)	1.561* (0.289)	1.496 (0.419)	0.770 (0.349)	1.499* (0.287)
4차	1.658 (0.524)	2.767*** (0.972)	1.813* (0.422)	1.316 (0.423)	2.285* (0.825)	1.589 (0.384)
5차	1.397 (0.555)	2.295 (0.982)	3.616*** (0.923)	1.033 (0.423)	1.827 (0.801)	3.243*** (0.855)
6차	0.998 (0.345)	3.801*** (1.192)	2.569*** (0.586)	0.726 (0.266)	3.122*** (1.000)	2.390*** (0.569)
상수	0.177*** (0.037)	0.096*** (0.026)	0.349*** (0.062)	0.581 (0.181)	0.348** (0.128)	0.647 (0.153)
log-likelihood	-1433.339			-1379.651		
Observations	998			998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표 3-28〉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남편)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가사시간	0.917** (0.026)	0.905** (0.029)	0.921* (0.033)	1.008 (0.018)
근로시간	0.988 (0.009)	0.990 (0.012)	0.995 (0.009)	1.001 (0.007)
월평균 소득	1.000 (0.001)	0.998* (0.001)	1.001 (0.001)	1.000 (0.001)
패널 차수 더미(Ref. 2차)				
3차	1.526 (0.434)	0.675 (0.334)	1.407 (0.315)	1.767 (0.517)
4차	1.431 (0.478)	2.207* (0.812)	1.724* (0.461)	1.351 (0.425)
5차	1.373 (0.571)	2.562* (1.118)	3.686*** (1.069)	1.868 (0.640)
6차	0.957 (0.344)	3.820*** (1.281)	2.461*** (0.652)	0.885 (0.287)
상수	0.623 (0.348)	0.608 (0.455)	0.546 (0.311)	0.339* (0.151)
log-likelihood	-1232.542			
Observations	864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남편의 일자리 및 소득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자녀를 유지할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가치관 요인(아내)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결혼 만족도	0.999 (0.007)	1.004 (0.008)	0.974*** (0.005)	0.990 (0.005)
성역할 가치관	0.781 (0.107)	1.213 (0.185)	1.139 (0.148)	1.053 (0.130)
자녀 필요성 가치관	0.726* (0.100)	0.610*** (0.084)	0.455*** (0.061)	0.920 (0.118)
패널 차수 더미(Ref. 2차)				
3차	1.676 (0.455)	0.838 (0.375)	1.659* (0.327)	1.912* (0.516)
4차	1.722 (0.552)	2.752** (0.972)	1.683* (0.427)	1.262 (0.370)
5차	1.483 (0.580)	2.526* (1.066)	3.916*** (1.072)	1.597 (0.523)
6차	1.020 (0.350)	4.062*** (1.275)	2.723*** (0.644)	0.788 (0.241)
상수	1.180 (0.954)	0.289 (0.248)	18.414*** (11.497)	0.876 (0.548)
log-likelihood	-1369.575			
Observations	986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아내의 가치관 변수를 추정한 결과에서는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 가치관의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30〉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지역 및 주거 변수(공통)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수도권 거주(거주=1)	1.085 (0.302)	1.073 (0.272)	0.751 (0.196)	1.162 (0.209)
주택 소유 형태(자가=1)				
전세	1.111 (0.304)	1.262 (0.328)	0.530* (0.132)	1.002 (0.201)
그 외	0.852 (0.357)	0.969 (0.346)	1.100 (0.308)	0.964 (0.233)
패널 차수 더미(Ref. 2차)				
3차	1.621 (0.438)	0.839 (0.372)	1.616* (0.301)	2.107** (0.556)
4차	1.686 (0.529)	2.850** (0.993)	1.835* (0.432)	1.272 (0.370)
5차	1.515 (0.594)	2.560* (1.084)	3.675*** (0.932)	1.825 (0.567)
6차	1.069 (0.371)	4.214*** (1.312)	2.580*** (0.588)	0.762 (0.234)
상수	0.218*** (0.056)	0.120*** (0.034)	0.504** (0.107)	0.359*** (0.067)
log-likelihood	-1425.625			
Observations	997			

주: 1) 본 분석에는 시간 비의존 변수가 통제되어 있음.

2)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개별 요인의 마지막 그룹인 지역 및 주거 변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택 소유 형태 중 전세일 경우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혼부부 대부분의 주택 소유 형태는 전세라고 할 수 있는데,<sup>35)</sup> 이들은 자녀의 출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신혼기의 부부일

35) 조성호 외(2019)에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주거는 자가 29.7%, 전세 53.7%로 나타남(표 7-45 참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식(2017)의 연구에서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전세의 출산율이 다른 범주(자가, 월세 및 기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전체 요인

앞에서 살펴본 개별 요인을 모두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추정 결과와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 이상에 비하여 고졸 이하인 아내의 경우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강건한(robust) 추정 결과라고 생각된다.

취업 여부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 여부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별도의 모델로 추정한 모델2에서는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확률이 감소하지만, 출산 전환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있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 만족도가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감소하였고, 자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 형태의 영향은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전세일 경우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전체 요인(아내)

	model1			model2			
	출산 연기	무자녀 선택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무자녀 전환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교육수준(Ref. 4년제 이상)							
고졸 이하	1.554 (0.591)	2.444** (0.808)	2.174* (0.715)	1.140 (0.267)	2.441** (0.831)	1.992* (0.676)	1.141 (0.269)
2-3년제 대졸	1.018 (0.391)	1.664 (0.529)	1.550 (0.539)	1.460 (0.314)	1.816 (0.590)	1.583 (0.558)	1.442 (0.317)
형태자매 수	0.918 (0.128)	1.025 (0.114)	1.317** (0.126)	1.067 (0.083)	1.006 (0.115)	1.319** (0.130)	1.086 (0.085)
초혼연령	1.056 (0.041)	1.129*** (0.032)	1.033 (0.034)	0.980 (0.023)	1.131*** (0.034)	1.029 (0.035)	0.980 (0.023)
취업 여부(취업=1)	2.014* (0.566)	2.906*** (0.743)	1.955** (0.472)	1.389 (0.284)	3.109 (1.843)	3.615* (1.866)	1.494 (0.871)
가사시간					0.956*** (0.010)	0.976** (0.008)	1.013** (0.004)
근로시간					0.996 (0.013)	0.998 (0.011)	1.002 (0.013)
월평균 소득					1.000 (0.002)	0.995* (0.002)	1.000 (0.002)
결혼 만족도	0.996 (0.008)	1.006 (0.008)	0.978*** (0.006)	0.991 (0.006)	1.001 (0.008)	0.976*** (0.006)	0.993 (0.006)
성역할 가치관	0.765 (0.111)	1.283 (0.218)	1.229 (0.176)	1.094 (0.142)	1.245 (0.218)	1.160 (0.170)	1.107 (0.149)
자녀 필요성 가치관	0.737* (0.111)	0.570*** (0.088)	0.426*** (0.061)	0.947 (0.127)	0.774 (0.090)	0.427*** (0.062)	0.933 (0.127)

	model1				model2			
	출산 연기	무자녀 진행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출산 연기	무자녀 진행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수도권 거주(거주=1)	1.066 (0.311)	1.064 (0.304)	0.824 (0.232)	1.137 (0.218)	1.033 (0.304)	1.057 (0.307)	0.863 (0.245)	1.130 (0.218)
주택 소유 형태(자가=1)								
전세	0.924 (0.283)	1.181 (0.327)	0.525* (0.149)	0.974 (0.209)	0.905 (0.287)	1.084 (0.307)	0.527* (0.151)	0.943 (0.207)
그 외	0.870 (0.367)	0.835 (0.330)	1.001 (0.306)	1.012 (0.261)	0.779 (0.345)	0.703 (0.269)	0.896 (0.276)	1.053 (0.279)
패널 차수 더미(Ref. 2차)								
3차	1.317 (0.398)	0.760 (0.383)	1.885** (0.406)	1.959* (0.552)	1.296 (0.405)	0.747 (0.390)	1.811** (0.407)	2.002* (0.567)
4차	1.459 (0.551)	2.216* (0.888)	1.908* (0.540)	1.314 (0.406)	1.155 (0.448)	1.857 (0.765)	1.647 (0.482)	1.665 (0.536)
5차	1.175 (0.526)	2.169 (0.976)	3.994*** (1.216)	1.440 (0.503)	0.861 (0.408)	1.672 (0.767)	3.437*** (1.070)	1.803 (0.649)
6차	0.901 (0.343)	3.492*** (1.199)	3.375*** (0.919)	0.762 (0.243)	0.649 (0.273)	2.651** (0.933)	2.961*** (0.840)	0.959 (0.315)
상수	0.281 (0.414)	0.003*** (0.004)	1.264 (1.556)	0.712 (0.667)	1.268 (1.908)	0.018** (0.024)	3.936 (4.941)	0.343 (0.334)
log-likelihood	-1206.601				-1163.891			
Observations	922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표 3-32〉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일자리 및 경제적 요인(남편)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향
교육수준(Ref. 4년제 이상)				
고졸 이하	1.429 (0.575)	2.046* (0.696)	1.905 (0.654)	1.132 (0.295)
2·3년제 대졸	1.028 (0.402)	1.835 (0.637)	1.764 (0.671)	1.444 (0.359)
형제자매 수	0.973 (0.149)	1.138 (0.126)	1.392** (0.146)	1.132 (0.094)
초혼연령	1.048 (0.047)	1.129*** (0.037)	1.037 (0.036)	0.997 (0.027)
남편 가사시간	0.922** (0.026)	0.904** (0.033)	0.937 (0.035)	1.009 (0.019)
남편 근로시간	0.986 (0.010)	0.993 (0.013)	0.995 (0.010)	0.998 (0.007)
남편 월평균 소득	1.000 (0.001)	0.997* (0.001)	1.001 (0.001)	1.000 (0.001)
결혼 만족도	0.996 (0.009)	1.010 (0.009)	0.978*** (0.007)	0.992 (0.006)
성역할 가치관	0.597*** (0.089)	1.041 (0.185)	1.114 (0.165)	1.024 (0.139)
자녀 필요성 가치관	0.820 (0.137)	0.665* (0.115)	0.482*** (0.074)	1.131 (0.167)
수도권 거주(거주=1)	1.194 (0.375)	1.174 (0.348)	0.714 (0.211)	1.044 (0.226)
주택 소유 형태(자가=1)				
전세	1.022 (0.335)	1.024 (0.303)	0.537* (0.156)	1.109 (0.261)
그 외	1.071 (0.481)	0.766 (0.308)	0.994 (0.323)	1.150 (0.337)
상수	1.406 (2.475)	0.012** (0.020)	1.275 (1.826)	0.247 (0.284)
log-likelihood	-1048.481			
Observations	802			

주: 1) 본 분석에는 패널 차수 변수가 통제되어 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남편의 일자리 및 소득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남편의 일자리 및 경제적 변수를 모두 도입하여 추정하였다. 다만,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취업 여부를 맞벌이 여부로 재구축하여 추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는 이전 결과와 유사하게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확률이 감소하지만, 출산 전환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계속해서 무자녀로 있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추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강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결과도 앞에서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33〉 아내의 출산 선택 유형 분석: 전체(아내와 남편 일치리 변수 포함)

	model1			model2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향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교육수준(Ref. 4년제 이상)							
고졸 이하	1.615 (0.678)	2.428** (0.832)	2.131* (0.752)	1.214 (0.321)	2.536** (0.905)	1.983 (0.718)	1.220 (0.325)
2-3년제 대졸	1.090 (0.431)	1.983 (0.697)	1.860 (0.715)	1.476 (0.367)	2.171* (0.779)	1.898 (0.732)	1.488 (0.375)
형제자매 수	0.949 (0.146)	1.090 (0.121)	1.359** (0.139)	1.117 (0.092)	1.069 (0.123)	1.356** (0.144)	1.144 (0.098)
초혼연령	1.051 (0.047)	1.135*** (0.037)	1.040 (0.036)	0.998 (0.027)	1.141*** (0.039)	1.039 (0.037)	0.998 (0.027)
방법이 여부(방법이=1)	2.191** (0.634)	3.370*** (0.942)	2.344*** (0.604)	1.491 (0.342)	3.255 (2.243)	4.902** (2.740)	1.511 (0.965)
아 내							
가사시간					0.962*** (0.010)	0.982* (0.008)	1.015** (0.005)
근로시간					0.999 (0.015)	0.997 (0.014)	1.002 (0.014)
월평균 소득					1.001 (0.002)	0.999 (0.002)	1.001 (0.002)
결혼 만족도	0.994 (0.009)	1.008 (0.009)	0.977*** (0.007)	0.992 (0.006)	1.002 (0.009)	0.973*** (0.007)	0.995 (0.006)
성역할 가치관	0.654** (0.099)	1.184 (0.214)	1.209 (0.186)	1.074 (0.151)	1.196 (0.220)	1.133 (0.179)	1.103 (0.162)
자녀 필요성 가치관	0.799 (0.134)	0.636* (0.112)	0.470*** (0.073)	1.121 (0.165)	0.644* (0.112)	0.462*** (0.073)	1.098 (0.167)

	model1			model2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
가사시간	0.912*** (0.025)	0.878** (0.036)	0.922* (0.037)	0.942 (0.030)	0.900* (0.042)	0.957 (0.040)
근로시간	0.986 (0.010)	0.994 (0.013)	0.994 (0.010)	0.990 (0.011)	0.996 (0.012)	0.993 (0.010)
월평균 소득	1.000 (0.001)	0.998 (0.001)	1.001 (0.001)	1.000 (0.001)	0.998 (0.001)	1.002 (0.001)
수도권 거주(거주=1)	1.121 (0.346)	1.133 (0.337)	0.687 (0.203)	1.103 (0.344)	1.149 (0.348)	0.728 (0.217)
주택 소유 형태(자가=1)						
전세	1.039 (0.346)	1.015 (0.302)	0.544* (0.160)	1.001 (0.343)	0.927 (0.279)	0.529* (0.157)
그 외	1.069 (0.483)	0.816 (0.337)	1.011 (0.336)	1.015 (0.474)	0.758 (0.305)	0.967 (0.325)
상수	0.910 (1.631)	0.006** (0.010)	0.840 (1.188)	2.486 (4.516)	0.018* (0.031)	1.983 (2.699)
log-likelihood	-1034.723			-1004.190		
Observations	802			802		

주: 1) 본 분석에는 패널 차수 변수가 통제되어 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4. 소결

이 절에서는 횡단면 자료(센서스 조사 2% 샘플, 결혼과 출산 조사)와 종단면 자료(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무자녀 현황과 그 결정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센서스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출산을 완료한 기혼여성 중 2% 미만이 무자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3%대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2015년에는 5.4%에 이르고 있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은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인 1940년대생에서 약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외의 1910년대생부터 1930년대생까지 무자녀 비중은 약 1.8~2.0%에 머물렀지만, 1950년대생부터 3.0%대로 상승하였고, 1970년대생이 5.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2015년 시점의 40~44세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무자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6%)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서울(6.5%)이 잇고 있었다. 반대로 무자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2.9%)이었고, 그 뒤를 광주(3.5%)가 잇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중 결과를 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높았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전이 일어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들의 무자녀 비중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비자발적 무자녀(무자녀 상태이지만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무자녀 비중이 다른 초혼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자녀 상태의 결정 요인 분석에 의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가능성이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무자녀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자료의 분석 결과, 무자녀 상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도 무자녀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쌍으로 조사한 ‘결혼과 출산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비교뿐만 아니라 무자녀 부부 중에서도 출산 의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도를 갖고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를 ‘자발적 무자녀’ 부부, 자녀를 낳을 의향은 있으나 아직 낳지 않은 경우를 ‘비자발적’ 부부로 분류하여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소득, 주택 소유 형태, 교육수준, 취업률, 직종, 결혼 만족도, 가사 분담 비율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자발적 무자녀 부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 유자녀 부부의 특성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자발적 무자녀 부부, 소득이 가장 낮은 경우는 유자녀 부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 특히 아내(여성)의 취업 경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취업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내의 취업은 소득과 동일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녀 부부는 맞벌이, 유자녀 부부의 경우는 아내가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보유는 유자녀 부부가 가장 높고, 자발적 무자녀 부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가장 높고, 유자녀 부부,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관리·전

문직 비율이 가장 높고, 유자녀 부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는,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자발적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사 분담 비율은, 자발적 무자녀 부부의 균등 분담 정도, 즉 남편의 가사 분담 비율이 가장 높고,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 유자녀 부부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자료의 특성인 시간적인 개념을 반영한 개인의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행동의 조합을 통해 자녀 선택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자녀 선택 유형은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나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출산 연기), 무자녀 여성 중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었으나 그 의향이 사라진 경우(무자녀 전향),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고 출산한 경우(의향 출산),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었고 그런 의향이 지속되는 경우(지속적 무자녀),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었으나 가지려는 생각으로 바뀐 경우(출산 전환)로 분류하였다. 분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향 출산이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속적 무자녀가 25.4%, 출산 전환은 17.7%, 출산 연기는 10.6%, 무자녀 전향은 9.7%로 나타났다.

앞에서 구축한 5가지 분류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로짓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수, 일자리 및 소득 변수, 가치관 변수, 거주 관련 변수로 나뉘며, 이 중 일자리 및 소득 변수는 남편의 속성도 도입하였다. 분석은 개별 그룹별로 도입한 분석과 전체 요인을 도입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둘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강건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아내의 특성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에 비하여 고졸 이하인 아내의 경우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

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횡단면 자료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므로,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이 무자녀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취업 여부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와 가사시간 간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가사시간을 별도의 모델로 추정한 결과, 가사시간이 증가하면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지속적 무자녀 확률이 감소하지만, 출산 전환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일 경우 가사시간이 많아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거나 결혼 만족도가 증가하면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을 감소시키며, 자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소유 형태의 영향은 전세일 경우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녀의 출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신혼기의 부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남편의 일자리 및 소득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는, 남편의 가사시간 증가가 출산 연기 및 무자녀 전향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남편의 일자리 및 경제적 변수를 모두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 맞벌이하는 부부는 홀벌이하는 부부와 비교하여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지속해서 무자녀로 있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무자녀 부부 심층면접조사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제3절 소결



## 제4장 무자녀 부부 심층면접조사

###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제3장에서는 전국을 대표하는 양적 자료를 이용하여 무자녀 부부의 현황과 선택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자료는 전국을 대표하는 자료이기에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인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무자녀인 기혼부부의 특성과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자 진행했으며, 무자녀인 기혼부부의 특징과 요구를 파악해 적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설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연구 사례들을 무자녀 선택의 자발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 1. 조사 설계

무자녀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40세 전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Bagavos, 2010; González & Jurado-Guerrero, 2006; Jalovaara & Fasang, 2017; Tanturri & Mencarini, 2008; Tocchioni, 2018; 菅桂太, 2008), 이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조사 대상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였다. 결혼지속연수는 2010년대 초반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이수현, 2012), 최근 연구에서

는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시내 외, 2020). 다만, 이 조사에서는 다양한 연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모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혼인 연령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혼인연령의 차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향도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다양한 혼인연령이 표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녀 성별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안배하였다. 자발성에 따라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가 본인의 의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경우와 외부적인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한 경우가 있으며(Avison & Furnham, 2015; Bloom & Pebley, 1982), 비자발적인 경우는 주로 불임 및 난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Poston & Trent, 1982).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조사 대상의 혼인 연령은 만 30세 이상 34세 미만, 35세 이상 39세 미만, 40세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설정했고, 혼인 연차는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무자녀 유형은 무자녀 선택의 자발성과 그 이유에 따라 ‘자발-가치관’, ‘자발-사회경제’, ‘비자발’의 3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모집하였다. 다만, Avison & Furnham(2015)과 Bloom & Pebley(1982)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외부적인 이유로 인하여 무자녀를 선택한 경우를 비자발 유형이라 정의하였으나, 결국 이들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자발 유형은 두 가지로, 무자녀 선택 당시 자연임신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경우는 ‘자발-가치관’, 자연임신이 가능하였지만 사회경제적인 이유, 즉 양육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내 자녀가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는 ‘자발-사



회경제'로 분류하였다. 반면, 자녀를 갖기를 원했으나 난임 및 불임 등의 신체적인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로 분류하였다.

무자녀 선택의 원인이 현실에서는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도 아이를 갖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든지,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데, 동시에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도 자녀를 갖기 어려운 이유가 함께 있다는 식이다. 이는 연구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자연임신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지한 후 무자녀에 대한 결심이 더 굳어졌거나, 무자녀를 결정한 후에 자연임신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형별 비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보다는 한 가지 유형에만 해당되는 사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자연임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모자보건법 제2조 11호에 따르면,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난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비자발’로 분류하였다. 자연임신이 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녀 선택이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면 ‘자발-사회경제’로 분류하였고,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가치관)에 따른 것이면 ‘자발-가치관’으로 분류하였다.

〈표 4-1〉 무자녀 기혼부부의 유형 분류

자연임신 가능여부	무자녀 선택 이유	무자녀 유형
자연임신 불가능	-	비자발
자연임신 가능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사회경제
	본인 가치관에 따라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발-가치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명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조사 참석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단, 이들은 부부가 아니며 가능한 한 한쪽 성별로 편향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표 4-2〉 심층면접조사 참석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대상자 수	
성별	남성	9	
	여성	10	
혼인연령	30~34세	10	
	35~39세	7	
	40세 이상	2	
혼인연차	5년 미만	3	
	5~10년	7	
	10년 이상	9	
무자녀 유형	비자발-신체	8	
	비자발-사회경제	5	
	자발	6	
거주지역	수도권	11	
	수도권 외 지역	8	
고용상태 및 종사상 지위	취업	상용근로자	13
		자영업자	4
		소계	17
	비경제활동	2	

〈표 4-3〉 심층면접조사 참석자 명단

사례	만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역	혼인 연령	혼인 연차	무자녀 유형
1	42	여	프리랜서(교육)	충청남도	31	11	비자발-신체	
2	43	여	전업주부	경상남도	34	10	비자발-신체	
3	40	여	회사원	서울특별시	39	3	자발	
4	43	남	회사원	서울특별시	36	8	자발	
5	40	남	회사원	서울특별시	32	9	비자발-사회경제	
6	48	여	상담사(자영)	경기도	43	6	자발	
7	45	여	회사원	충청남도	35	11	비자발-신체	
8	46	여	교사	서울특별시	42	3	비자발-신체	
9	42	남	회사원	경기도	35	8	비자발-신체	
10	40	남	사회복지사	경상북도	40	2	비자발-사회경제	
11	40	여	직업상담사(고용)	전라북도	26	14	비자발-사회경제	
12	44	남	회사원	서울특별시	35	11	비자발-신체	
13	45	남	농업(퇴직 후 귀촌)	전라남도	30	16	비자발-사회경제	
14	44	여	전업주부	경상남도	38	8	비자발-신체	
15	42	여	유치원교사	경상남도	34	9	비자발-신체	
16	47	여	프리랜서(방송작가)	서울특별시	35	14	자발	
17	42	남	회사원	서울특별시	30	11	자발	
18	41	남	회사원	경기도	33	9	자발	
19	40	남	회사원	경기도	30	12	비자발-사회경제	

심층면접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전 전화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조사의 섭외 조건에 부합하는지, 해당하는 무자녀 유형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편의를 보장하여 일시와 장소를 정했다. 장소는 주로 유료 회의실에서 진행했는데, 연구 내용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 먼저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질문과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는 대상자의 결혼생활, 건강

정보, 원가족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연구의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어떠한 위압이나 압박 없이 인격과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방법과 소요시간, 조사의 개요 및 내용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관 및 폐기 기한과 방법, 활용 용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린 후에 조사 참여 동의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추후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심의(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쳤다.<sup>36)</sup> 심층면접은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을 이수한 조사전문가가 진행하였으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 2. 조사의 내용

심층면접조사는 기존 통계 및 양적 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와 시사점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해 적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만들어 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36) IRB 승인번호: 제2021-062호.(심사신청일: 2021.7.19., 심사결과 통보일: 2021.7.28.)

먼저 유소년기의 경험과 가족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무자녀 선택에 원 가정에서의 경험과 성장과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무자녀 선택의 자발성 여부를 파악하고, 출산 의향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파악하였다.

이어서 아이에 대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고, 아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조사하여 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주변의 사례를 보고 들으며 형성된 간접경험 등이 현재 무자녀 선택과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무자녀임을 주변에 밝혔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녀 부부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일과 부부생활에 대해 물어보았다. 일하는 공간에서 무자녀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배우자와의 소통 수준과 관계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노후와 죽음에 대한 생각도 질문하였다. 노후나 죽음에 대한 기대나 걱정 등과 함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자녀 유형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 1. 유소년기의 경험 및 가족 간의 관계

결혼을 하고 무자녀를 선택하는 데 원가족과의 부정적 경험이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바 있다. 이번 심층면접에 참

여한 사례들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무자녀를 선택한 ‘자발-가치관’ 유형의 경우, ‘자발-사회경제’ 혹은 ‘비자발’ 유형에 비해 원가정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렸을 때의 일화를 비롯해 원가족 관계에 대한 담화는 인터뷰 도입부에 이루어져 집중적으로 다룬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 일화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가치관’ 유형의 사례 6명 중 5명에서 본인과 가족 간의 관계, 혹은 부모님 간의 관계가 안좋았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3은 어머니가 학대하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소송을 통해 겨우 이혼에 이르렀던 경험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노력하기도 했던 한편, 홀로 친척집을 전전하는 등의 생활을 해야 했다. 어린 시절 큰 사건을 겪었고, 받은 상처 또한 컸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자기 활동을 펼치기보단 어머니와 분리되지 못한 채로 부채감을 갖고 살았으며, 결혼도 39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편과는 결혼 전에 무자녀에 대해 합의 혹은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은 스스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대로 다른 사례에서 이러한 학대적 관계라든가 부모님의 이혼 등을 경험한 경우는 없었다. 다만, 가족의 일화를 들려주는 과정에 상처나 좌절, 결핍의 요소가 될 만한 내용은 존재했다.

부모님이 맞벌이였는데 가사 분담이 되지 않고 모두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자주 싸우던 기억이 있다거나(사례 17),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거나(사례 18), 어머니가 공부를 비롯해 여러 압박을 주었던 기억이 있다거나(사례 16) 하는 것들이었다.

“저희가 그냥 노멀하게 협의이혼이 아니라 좀 되게 치열하게 이혼. 아버를 도망 다니다 보니까. 약간 도망, 야반도주처럼 도망… 그게 너무 서로에게 상처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녀가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래서 단 한 번도 사실 떨어져 살아본 적은 없어요.” (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지금이랑 남녀에 대한 조금 인식 차이가 달랐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면도 있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와도 집안일 몽땅 다 해야 되고 아버지는 술 마시고 와가지고 또 그런 거 없고 하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으신 부부는 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사례 17, 남성, 자발-가치관)

“공부를 계속 잘해야 된단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에서 공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꾸준히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게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16, 여성, 자발-가치관)

“처음으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정말 간절히 제 삶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거를 못 하게 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집안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면서 되게 진짜 막 울면서 다짐을 했었던 게 나는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 뭔가를 원할 때 꼭 해주는 아버지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위치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비자발 유형에서도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아이를 갖는 데 대한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발견되었다. 사례 1은 초등학교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세 남매 중 맏이로 동생들을 챙기며 어머니의 역할을 일부 하면서 살아야 했다.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어머니의 공백을 스스로 느끼며 자랐기에, 자신도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생각은 굳이 아이를 낳기 위해 무리한 노력(난임시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 자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 한 게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케어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 지금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생긴다면 낳아서 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생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제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둘 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사례 1, 여성, 비자발)

사례 중 ‘여성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의 가정 환경에서 자라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 세대 또한 부모님의 발언이나 가정의 분위기가 현재의 사고 방식, 나아가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이제 X세대가 20대였었잖아요. 사회적으로 풍토로 많이,



바뀌었고, X세대는 나는 나, 나 중심, 이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줬던 거 같아요. 여자들의 사회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저희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여자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사례 16, 여성, 자발-가치관)

“엄마는 늘 집에서 아이들 보고 집안일 하고 딱 이런 저기 세대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구직자분들이나 젊은 친구들 만나도, 야기를 낳았다고 너가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만두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네. 그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우리 아버지도 혼자서도 훌륭하게 잘살 수 있다, 요새 뭐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거보다 그냥 혼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 것도 멋진 일이다, 얼마나 멋진 여자들이 많냐, 한 비야 얼마나 멋있어. 자기 딱 구호 활동하고 이런. 너무 멋있지 않냐고.”(사례 8, 여성, 비자발)

반면에 사례 13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흔히 ‘남성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으나 성장하면서 생각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자녀 출산 같은 영역에서도 생각이 변화한 것이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뭐 장인 분도 그렇고 심지어 여기 이제 섬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 왜 안 낳느냐. 후세를 봐야 될 거 아니

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 그런 생각은 이제 부모님 때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강하시고. 저희 때는 좀 많이 바뀌었죠.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장손이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 2. 출산 의향 및 변화

현재 출산 의향에 대해 ‘자발-가치관’ 유형은 모두 단호하게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자발-사회경제’ 유형의 5명 중 1명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극복된다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였고, 나머지 4명은 출산 의향이 없었다. ‘비자발’의 경우, 8명 중 5명이 계속해서 난임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만약에라도 아이가 생기면 낳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다른 3명의 참석자는 이제는 출산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표 4-4〉 현재 출산 의향과 최초 출산 의향의 비교

현재 출산 의향	최초 출산 의향	사례
있음(긍정)	긍정	비자발 2, 7, 8, 9, 15
	부정	비자발 1
		자발-사회경제 10
없음(부정)	긍정	비자발 12, 14
		자발-사회경제 11, 13
	부정	자발-가치관 3, 6, 17
		자발-사회경제 5, 19
		자발-가치관 4, 16, 18

‘자발-가치관’ 유형은 대체로 결혼 전 등 이른 시기에 무자녀를 선택했고, 다른 유형에 비해 무자녀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더 단호하거나 확신이 강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아이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만, 아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아이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잡거나 훈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비롯된 경향이 강했다.

“중학생 때도 그런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냥 어떤 연예인, 누구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더 잘해주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게 저한테도 괜찮게 들렸던 것 같아요. ... 자라나면서 저도 뭔가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비용도 좀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한 사람한테 또 쏟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렇다고 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는 저는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어가지고.”(사례 4, 남성, 자발-가치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접하고 있고, 아동들을 접하고 있고 교사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엄마들을 눈앞에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할 거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사례 6, 여성, 자발-가치관)

“집안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올면서 되게 진짜 막 올면서 다짐을 했었던 게 나는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 뭔가를

원할 때 꼭 해주는 아버지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위치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갖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한편, ‘자발-사회경제’ 유형에서 무자녀 선택의 이유로 주로 다뤄진 것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우리 사회의 병폐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자발-가치관’ 유형과 비교해보면 무자녀를 확고하게 선택하고 실천한 것은 아니었으며,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서 굳이 아이를 낳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 삶의 다른 영역을 더 중요시한 경우들이었다. 경제적 안정, 주거 안정, 일자리 안정, 커리어 축적 등 다른 과제들이 자녀 출산보다 더 우선시되었으며, 자신이 생각한 삶의 우선적인 과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출산 의향이 무자녀로 서서히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자신의 무자녀 선택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아이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발-가치관’과 ‘자발-사회경제’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도 있었다.

“이제, 제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스물여섯에 했다 보니까. ... 아이를 그렇게 빨리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 2, 3년 뒤에 가져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초기에는 둘 다 아기를 천천히 갖자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는 약간 둘 다 서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시기가 어긋나고 그다음부터는 또 잘 안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굳이 애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 같아요.”(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거는 이제 학교 교육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선생님의 그런.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 방식. 이런 게 좀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편은 철밥그릇이다. 선생님이 되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 유치원에서 선행학습해서 와야 되고,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 가서 배워야 되고, 학교는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뭐 이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아이는 싫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 그때도 기본적으로 자녀를 갖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 결정을 하는 거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둘 다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자녀로 가자. 네. 둘 다 아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기 싫어요. ... 교육 때문이 아니라 복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사례 5, 남성, 자발-사회경제)

‘비자발’ 유형에서는 대체로 출산에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결혼하면 아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난임 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난임 치료를 지속하면서 출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제 난임 치료를 포

기하고 앞으로 출산이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포기한 사례의 경우, 무자녀를 결정한 것이 아니며, 상황상 어렵게 된 것일 뿐 아이를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부는 무자녀를 결정했는데, 난임 치료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자녀가 없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는 이제 그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를 딱 느끼는 순간 약간은 이제 좌절이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아, 뭐 애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굳이 이제 애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두 사람만 잘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점차 바뀌었어요, 이제.”(사례 9, 남성, 비자발)*

한편 ‘비자발’ 유형에서는 자녀를 바로 갖지 않고 미루다가 뒤늦게 출산을 결심하고 임신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서 미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직업이나 자신이 뜻하는 일에 몰두하다 시기를 놓친 것이 다수였다. 이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긴 이후 임신을 시도했지만 이미 자연임신이 어려운 나이에 이르게 되었고, 난임 치료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때가 된 사례이다.

*“중국을 나가서 중국어를 배워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되게 잘 정착이 됐어요. 6, 7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가질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 둘 다 외부적인 일을 같이 배워오고 이러는 거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니까. (아이 가질 생각을 못해봤다)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나이가 40, 딱 40대였을 때보다 41, 42, 43*

이렇게 될 때하고는 또 약간 생물학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사례 1, 여성, 비자발)

“일하는 데 올인을 했다고 해야 하나?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6시 반에 일어나서 여덟 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저 때는 또 주 5일 근무가 없었어요. 주 6일 근무로 했어요. (피임은) 저 혼자 했어요. 신랑 몰래.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고 2~3년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있었던 거 같고. 그 당시에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별나셔서. (3년 지난 후에) 이제는 살아도 되겠다. (웃음)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시험관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인제... (임신이 되지 않았다)”(사례 15, 여성, 비자발)

“중국에 재외 한국학교 교사로 5년 나갔다 와서 늦게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그(자녀를 가질) 생각 안 했었어요. 굳이 뭐. 왜냐면 그때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내가 아이를 가져야겠다 한 사건이 터지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엄청나게 그런 서로 교육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일을 봐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실어증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심장마비로 죽은 거였는데, 아, 사람이 이렇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야. 아, 자식이 있어야겠구나. 그 선생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사례 8, 여성, 비자발)

### 3. 아이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시선

#### 가. 아이에 대한 선호

현재 아이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비자발’ 유형과 ‘자발-사회경제’ 유형에서는 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발-가치관’에서는 선호와 비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선호 사례 중 일부는 조카 등 혈연관계에 있는 아이는 좋지만, 그 외의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다.

〈표 4-5〉 무자녀 유형별 아이 선호 여부

아이 선호 여부	무자녀 유형	사례
선호	비자발	1, 2, 7, 8, 12, 14, 15
	자발-사회경제	10, 11, 19
	자발-가치관	3, 17
비선호	비자발	9
	자발-사회경제	5, 13
	자발-가치관	4, 6, 16, 18

아이를 선호한다는 사례에서는 무자녀 유형과 관계없이 아이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선호 사례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는 소극적 비선호와 불호에 가까운 적극적인 비선호로 나뉘었다. 적극적 비선호의 경우, 아이의 정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 등을 비선호의 이유로 들었다.

“애기들은 자체가 정말 천사 아니에요, 진짜? 애기들은? 너무 귀엽죠, 진짜.”(사례 7, 비자발)



“주변에서 좀 안 좋은 경험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 우는 애기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요. 개념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나에게 피해를. 근데 부모가 잘못된 건 맞는데 일단 애는 부모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껌판을 쳐요.”(사례 5, 자발-사회경제)

아이는 좋아하지만 무자녀를 선택한 ‘자발-가치관’ 사례의 경우, 가족이나 연애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경험이나 가족의 질병이 유전될 것에 대한 우려 등 특정한 이유로 인해 무자녀 부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쓴 친구도 있었고 ...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에 대한 불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아빠에 대한 배신, 상처가 나도 모르게 있다 보니까 사람을 잘 못 믿더라고요. ... 남편은 자기도 아이에 대한 생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렇게 뭐 중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 아이 안 낳는 걸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 몸이 아파서. ... 50%는 유전이 되고 50%인데.”(사례 3, 자발-가치관)

“큰 처형 딸이 장애가 있어요. ...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 결혼 초반에는 나중에 조금 안정되면 가지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나이가 조금 조금 더 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이제는 아이를 안 낳고 우리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다.”(사례 17, 자발-가치관)

아이 선호 여부와 출산 의향을 교차해서 보았을 때, ‘비자발’ 유형은 대체로 아이를 선호하고, 출산할 의향 또한 뚜렷하게 있었으며, 다른 두

유형은 아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출산 의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무자녀 유형별 아이 선호 여부와 출산 의향

아이 선호 여부	출산 의향	무자녀 유형	사례
선호	있음	비자발	1, 2, 7, 8, 12, 14, 15
		자발-사회경제	10
	없음	자발-사회경제	11, 19
		자발-가치관	3, 17
비선호	있음	비자발	9
	없음	자발-사회경제	5
		자발-가치관	4, 6, 18
기타	없음	자발-사회경제	13
		자발-가치관	16

한편, 자연 임신을 바라고 있지만, 현재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비자발’의 사례도 있었다. 이전에는 아이를 좋아했지만, 배우자의 항암치료 등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쉽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아이를 좋아하지 않게 된 사례였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네. ... (일부러 멀리한 건 아니고)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없 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사례 9, 비자발)

나아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전과 비교해 변화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성향은 성장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무자녀 유형별 아이에 대한 생각 변화

아이에 대한 생각 변화	무자녀 유형	사례	
선호 → 비선호	비자발	9	
비선호 → 선호	비자발	1, 2, 15	
	자발-가치관	17	
변화 없음	비자발	7, 8, 12, 14	
	선호	자발-사회경제	10, 11, 19
	비선호	자발-가치관	3
		자발-사회경제	5, 13
	자발-가치관	4, 6, 16, 18	

다만, 이전에는 아이를 선호하지 않았으나 직업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변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아이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 제가 이제 한 서른쫓 되고 나니까,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회원들 보면 정말 너무 예뻐고 ... 항상 늘 보는 이 회원도 내 조카 같다. 내 친구 아이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사례 2, 비자발)

#### 나. 무자녀의 장·단점

현재 자녀가 없는 삶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장점의 경우,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난 반면, 단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다소 간 차이가 있었다.

〈표 4-8〉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의 장점

장점	무자녀 유형	사례
경제적 여유	비자발	14, 15
	자발-사회경제	5, 13, 19
	자발-가치관	6, 17, 18
일상 생활의 자유 (여행, 음식메뉴 등)	비자발	1, 2, 7, 8, 9, 14
	자발-사회경제	5, 10, 11, 13, 19
	자발-가치관	3, 4, 6, 16, 17, 18
가족에게 집중 가능 (배우자, 부모 등)	비자발	2, 12
	자발-가치관	18
양육 부담감 없음	비자발	12
	자발-사회경제	11, 13
	자발-가치관	17

먼저, 현재 자녀가 없는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는 크게 일상 생활의 자유, 경제적 여유 등이 있었다. 아이가 없으므로 직장 생활이나 여행, 음식메뉴 선정 등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취향만 반영하면 되어 더 자유롭고, 아이 양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아이 양육으로 인해 가지게 될 부담감이 없다거나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게 되었을 텐데 그 대신 배우자나 부모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의 특성별로 분석했을 때, 무자녀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출산 의향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없는 생활의 장점으로 양육의 부담감이 없다는 사례의 경우, 향후 출산 의향이 없는 사례들이었다.

“그냥 생활이 편한 거요. 신랑이랑 운동 가고 싶으면 운동 가고, 여기서 뭐 애기가 있으면 많은 이렇게 제약들이 많잖아요. 애기들이 있으면 일단 제가 뭐 회사 생활 자체도 못 했을 거고. 저는 오히려 임

신을 바로 했으면 회사 생활을 안 했을 거예요.”(사례 7, 여성, 비자발)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애한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고스란히 저희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으니까.”(사례 19, 남성, 자발-사회경제)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아내의 감정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좋은 점은 일단은 그, 그러니까 자식을 건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에서 부담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크고요. ... 돈만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사례 12, 남성, 비자발)

〈표 4-9〉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의 단점

단점	무자녀 유형	사례
양육의 즐거움 없음	비자발	2, 7, 8, 9, 12
	자발-사회경제	10, 13
양육에 대한 공감대 부족	비자발	1, 9
노후 등 장래에 대한 우려	비자발	9
	자발-사회경제	5, 11, 13
	자발-가치관	3, 16
가족 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비자발	7, 8, 15
	자발-가치관	4, 17, 18
없음	비자발	14
	자발-사회경제	19
	자발-가치관	6

한편, 자녀가 없는 생활의 단점에서는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중에서 ‘양육의 즐거움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자발-사회경제’ 유형에서는 소수 응답인 반면, ‘비자발’ 유형에서는 대다수가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 ‘비자발’ 참석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며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없는 점, 아이를 양육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운 점 등 양육을 해야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겪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사례의 경우, 시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했다.

‘비자발’ 유형 중 자녀가 없는 생활의 단점이 없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우자가 직업을 잃은 특수한 상황이 그 배경이었다.

*“아이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찌 됐건 그 내 새끼가 생기는 거니까.”*(사례 12, 남성, 비자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극복한 그 인내심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참는 부분도 많고 새로 선택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존경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 1, 여성, 비자발)

*“신랑은 계속 원했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또 맏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는 포기는 했는데, 네, 계속 이제 뭐*

좀 그래도 한편으로는 신랑한테 제일 미안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사례 7, 여성, 비자발)

“가족 모임 할 때도 다 애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나만 아이가 없으니까 뭔가 소외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있어요.”(사례 8, 여성, 비자발)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남편 직업도 잃고 이렇게 된 마당이지만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진짜 아... 그거는 진짜 막 끔찍하거든요.”(사례 14, 여성, 비자발)

‘자발-사회경제’ 유형에서는 노후 등 장래에 대한 우려와 양육의 즐거움이 없다는 점이 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혼자 남게 되는 한 사람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별히 단점이 없다는 사례도 있었다.

‘비자발’ 유형이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롯되는 아쉬움이나 어려움을 주로 언급했다면 ‘자발-사회경제’는 노후나 장래에 대한 우려 등 면접자 본인 중심의 아쉬움이 주되게 언급되었다는 점이 차이였다.

“제가 뭐 죽거나 이런 게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면 남겨진 한 명이 되게 좀 서글플 거 같다. 가족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 좀 제일 걱정이 되기는 해요.”(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30년 뒤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우리를 보살펴줄지, 하는 조금

의 불안감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얘기는 해봤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경제력이 있지 않겠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큰 걱정은 없습니다.”(사례 19, 남성, 자발-사회경제)

‘자발-가치관’ 유형에서는 자녀가 없는 생활의 단점으로 가족 등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노후 등 장래에 대한 우려가 주로 다뤄졌고, 단점이 없다는 사례도 있었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었는데, 한 가지는 부모 등 다른 가족이 아이를 낳길 원해서 발생하는 갈등,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한 어려움, 불편함이었다. 앞선 두 유형과 다르게 양육과 관련된 아쉬움은 다루지지 않았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를 안 가지니까 장모님 입장에서도. ... 딱 내딸이 애를 안 가지니까 되게 속타 하더라고요.”(사례 17, 남성, 자발-가치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긴 하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뭐 너네는 애국자도 아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자녀가 없어가지고 뭐 걱정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어요.”(사례 6, 여성, 자발-가치관)



## 다. 아이로 인한 삶의 변화

아이가 있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지,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비자발’과 ‘자발’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부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비자발’과 ‘자발-사회경제’, ‘자발-가치관’ 간에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표 4-10〉 무자녀 유형별 아이로 인한 삶의 긍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무자녀 유형	사례
양육 과정에서의 배움	비자발	1
	자발-사회경제	10
아이와의 새로운 일상	비자발	2, 12
	자발-사회경제	5, 11
	자발-가치관	3, 17
존재 자체에서 오는 행복감	비자발	7, 14
	자발-사회경제	13
외부 시선으로부터 떳떳함	비자발	15
기타 (사회의 배려 등)	비자발	1, 9
	자발-사회경제	11, 19
없음	자발-가치관	4, 6, 18

먼저, 긍정적 변화에 대해 ‘비자발’, ‘자발-사회경제’의 경우, 아이와의 새로운 일상이나 양육 과정에서의 배움, 아이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행복감 등 아이로부터 비롯되는 행복과 그로 인해 성장하는 것을 주되게 언급했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떳떳해질 것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뤄졌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자료들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도 해 보면 좋겠다. ... 아이들이랑 루브르를 이렇게 뭐 즐*

접게 즐기는 방법,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막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뭐 모나리자 사진이라던지 몇 가지 사진을 놔두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봐봐. 이러면서 막 아이들이랑 같이 논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런 거를 나도 한번 해 보면 참 좋겠다. ... 그런 상상들은 좀 해 본 적은 있고요.”(사례 2, 여성, 비자발)

“그래도 조금 떼뻗할 거 같아요. 사람들에게 조금 늦게 뭐 임신에 대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나도 뭐.”(사례 15, 여성, 비자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돌봄 휴가라든가 특별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은 뭐 일이 있거나 그러면 돌봄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자발-가치관’에서도 아이와의 새로운 일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지만, 반면에 양육 과정이나 아이의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세 유형 중 유일하게 아이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아이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조그마한 애가 그냥 뭔가 있으면 귀엽다는 느낌은 들 텐데. 24시간 나랑 같이 있는다, 하면, 네, 그거는 저한테는 되게 악몽 같은 일 이어가지고. 이걸 참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사례

## 4, 남성, 자발-가치관)

“저의 개인 행복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겪어보진 않아서.”(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반면, 긍정적 변화와 달리 부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자발-사회경제’와 ‘자발-가치관’ 유형이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고, ‘비자발’ 유형은 앞선 두 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무자녀 유형별 아이로 인한 삶의 부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무자녀 유형	사례
돌봄의 어려움	자발-사회경제	5, 10, 19
	자발-가치관	4, 16, 18
자유로운 활동 불가	비자발	14
	자발-사회경제	5
경제적 부담 증가	자발-가치관	3, 6, 16
	비자발	15
다른 가족 구성원에 소홀해짐	자발-가치관	17
	자발-사회경제	10, 11
사회 환경에 대한 우려	자발-가치관	18
	비자발	7, 8
기타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 등)	자발-가치관	17
	비자발	1
없음	자발-사회경제	13
	비자발	2, 12

‘비자발’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한 사례가 없었고, 아이로 인한 삶의 부정적 변화는 없다는 사례는 있었는데 다른 두 유형의 경우, 이와는 반대였다.

이 같은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현재 자녀가 없는 삶의 단점과 유사한

것으로, 무자녀 선택의 과정에 외부 조건과 자의적 선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못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거는 이미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45년 동안 해왔으니까, 애가 생기면 뭐 그거는 좀 손해 볼 건 감수해야죠.”(사례 12, 남성, 비자발)

“저는 육아에 치여 완전 지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활력소는 있겠지만, 그게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한 2살, 3살 때 효도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사례 19, 남성, 자발-사회경제)

“아이가 울기 시작하거나 뭐 응가를 하거나 그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철이 들면 그거대로 또 어려운 게 있죠. ... 사람이 저렇게 하면 재는 분명히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엄청 짜증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그렇게 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난 행복하지 않은.”(사례 4, 남성, 자발-가치관)

한편, ‘자발-가치관’의 경우,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해진다는 점도 주되게 언급되었다. 대체로 커리어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제 라이프 이게 깨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블로그, 직장인 밴드, 보육원 활동, 그리고 또 꼬박꼬박 운동) 이런 것들이 아이가 생긴다고 하면 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싹 다 바뀌어야 된다고, 이 중에 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 라. 입양에 대한 생각

무자녀 선택 과정에 입양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무자녀 유형에 따라 다소 간 차이가 있었다.

〈표 4-12〉 유형별 입양에 대한 생각

입양에 대한 생각	무자녀 유형	사례
긍정적으로 고려해본 적 있음	비자발	9
	자발-사회경제	10
	자발-가치관	3, 17, 18
입양 의사 없음	비자발	1, 2, 7, 15
	자발-사회경제	11, 13
	자발-가치관	4, 6, 16
긍정적이지만 주변에서 반대함	비자발	8, 14
생각 안 해봤음	비자발	12
	자발-사회경제	19

참석자들은 대체로 입양은 출산을 하지 않을 뿐 자녀를 기른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직접 낳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입양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고, 긍정적으로 고려해본 경우, 무자녀

유형과 관계없이 자녀 출산의 연장선에서 고려해보았으며, 실제로 입양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지 않지만,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내가 정말 책임감이 있고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면 와이프랑 얘기해가지고 와이프만 동의를 한다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진짜 친 아이, 친자녀가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도, 그러니까 입양하는 것도 괜찮겠다.”*(사례 10, 남성, 자발-사회경제)

입양 의사가 없는 사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친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는데 입양 자녀의 경우, 여러모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이유로 언급되었다. 또한, ‘자발-사회경제’나 ‘자발-가치관’에서는 입양 의사가 없는 이유로, 나아가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기에 고려할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 애는 남의 피라서 이래.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마음을.”*(사례 6, 여성, 자발-가치관)

*“생물학적으로 못 가지는 이유다. 워낙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상황이면 입양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한편, 다른 두 유형과 달리 ‘비자발’ 유형에서는 참석자는 긍정적이지만 주변에서 반대한다는 사례가 있었다. ‘비자발’ 유형의 특성상 자연임신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입양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았으나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한 사례의 경우, 출산 의향이 있고, 난임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상태였고, 난임 치료 과정에서 입원 등 직장과의 조율이나 치료 자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른 한 사례는 난임 치료 중에 어렵게 자연임신이 되었으나 기형아, 자궁외임신으로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했고, 이후 출산할 의향이 없는 상태였다.

“입양을 생각해봤죠. 우리 남편도 아이를 키운다는 입양하는 걸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걸 절대 반대하세요. ... 결혼했을 때부터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일체 딱 자기 자식도 속 썩이고 그러면은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사례 8, 여성, 비자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 입양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다들 반대를 했어요. ... 지인 분들은 반대. 지 새끼도 낳아서 키우면,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진짜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길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출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반대하죠.”(사례 14, 여성, 비자발)

## 마. 사회적 시선

주변 지인들이나 사회에서 무자녀 부부를 어떤 시선으로 본다고 느끼는지, 주로 겪는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먼저, 주변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무자녀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 4-13〉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에 대한 주변의 반응

주변의 반응	무자녀 유형	사례
걱정과 위로	비자발	7, 15
	자발-사회경제	11
궁금해 함	비자발	1, 19, 14
	자발-사회경제	13
권유 또는 훈계	자발-사회경제	10, 19
	자발-가치관	16, 17, 18
편견을 갖고 대함	자발-가치관	6
	자발-사회경제	19
부러워함	자발-가치관	16, 17, 18
	비자발	2, 9, 12
이해, 인정함	비자발	1
	자발-가치관	3

‘비자발’ 유형은 주변에서 이유를 알게 되면 대체로 걱정과 위로, 이해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으며, 모르는 경우에는 왜 자녀가 없는지 궁금해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례들이 주로 다뤄졌다.

‘자발-사회경제’와 ‘자발-가치관’ 사례에서는 자녀를 가질 것을 권유하거나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 훈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외부적 환경 혹은 자의로 아이를 갖지 않고 있으나 신체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롯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출산, 육아를 권유, 훈계하는 반응의 경우, 낮은 연령대보다는 높은 연령대에서, 대규모 도시보다는 소규모 혹은



은 농어촌 지역에서 더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고, 이웃 간 접촉이 잦을 경우, 결혼 여부나 자녀 여부 등 좀 더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며, 자연 임신이 가능한 무자녀 부부에게는 출산, 육아에 대한 권유, 나아가 혼계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 왜 없냐고... 다 그래요. 왜 없냐, 또는 실례지만 물어봐도 되냐? 궁금해하죠. ...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이제 만난 나이 또래들이 점점 더 올드해지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분들은 그냥 거침없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처음 만났는데... “결혼은요?”, “아, 했죠.”, “신랑은, 애는 몇 살이죠?”, “없는데요.”, “애? 애가 왜 없어?”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시골로 가서 더 그래요. 여기 이 지역이.”(사례 14, 여성, 미자발)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 ‘뭐가 좋다더라, 몸에, 이거 먹어라.’ (웃음) 뭐 그러신 분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애가 있어야 된다.’”(사례 19, 남성, 자발-사회경제)

“아무래도 세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다들 이제 그래도 애는 있어야지, 약간 이런 혼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전에 임원분 한 분은 제가 그 회사를 떠났는데도 아직도 가끔 연락하면 ‘애 생겼냐? 안 생겼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이와 함께, ‘자발-가치관’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반응이 있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반응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 자체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일상이 아

이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다. 다만, 그 반응의 무게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일상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벼운 감정일 수 있다. 또한, 무자녀의 장점을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거나 참석자가 자녀 이야기로 자리가 불편해지는 걸 방지하고자 스스로 대화의 흐름을 유도할 경우에도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무자녀인 참석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반응의 일환일 수도 있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게 (권유, 훈계하는 사람과) 반반이에요.”  
(사례 16, 여성, 자발-가치관)

“젊은 친구들은 ‘아,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새 친구들 보면 이렇게 비혼도 많고, 예를 들면 노키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내지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선입견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가까운 주변에서 범위를 확장해 무자녀 부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는지도 확인했다.

〈표 4-14〉 무자녀 유형별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

사회적 시선	무자녀 유형	사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음	비자발	1, 12, 14, 15
	자발-사회경제	13
	자발-가치관	3, 17, 18
변하고 있는 걸 느낌	비자발	1, 2, 7, 8, 9, 14
	자발-사회경제	5, 10, 11, 19
	자발-가치관	4, 16, 17

전반적인 사례에서 연령대나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옛날에는 그래도 무조건 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부부 사이가 이 끈으로 묶이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은 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사례 14, 여성, 비자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요새 되게 많아요.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냐, 나 혼자 이렇게 재밌게 잘살면 되는데, 근데 또 아니면은 결혼했는데 굳이 뭐 애를 가질 필요 있냐.”*  
(사례 17, 남성, 자발-가치관)

한편, 무자녀 부부가 여러 유형의 가정,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비자발’의 경우, 정상의 범주나 평균적인 선에서 벗어난 것 같은 시선을 느끼는 반면, ‘자발-가치관’ 유형의 경우, 저출산 등 사회적인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분위기를 느낀다고 답했다.

*“아무래도 조금 특이하게 보는 거 같긴 하죠. ... 어찌 됐건 아웃라 이어잖아요. ...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그냥 아이 낳고 정상적으로 살고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인가? 뭐 약*

간 이런 생각?”(사례 12, 남성, 비자발)

“요새는 죄인 취급하죠. 요새 많이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죄인 취급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 4. 일·생활 균형 및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에서 ‘무자녀’라는 이유로 자녀가 있는 직원 등에 비해 불합리한 일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형과 관계없이 대체로 흔치 않은 사례였다.

여성 중 일부 사례에서 유사한 경험이 확인되었는데, 추가 업무를 더 해야 했다는 사례들(사례 15, 사례 14)이 있었으나 사례 14의 경우,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았으므로 불이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사례 3의 경우, 자녀가 있는 직원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신은 받지 못하는 점을 짚으며 감정적으로 서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 없는 것도 서러운데 당직까지 하라고 하고.”(사례 15, 여성, 비자발)

“있는데, 저는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페이를 주니까. 보상을 해주니까. (보상이 없으면) 당연히 열 받겠죠.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면은, 차등대우 없이 차별을 하면은 그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사례 14, 여성, 비자발)

“회사에 하나 상품권이 들어왔든지 뭐가 나오면 항상 애 있는 쪽을 더 많이 챙겨주죠. 저 집은 애가 있잖아. … 불이익보다는 약간 항상 서운함 그런 건 있던 것 같아요.”(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사례가 다뤄진 경우도 있었다. 배우자가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면접관이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며, 출산휴가 등을 언급한 경우였다. 출산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이 채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저희 와이프는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직을 몇 번 하려고 면접을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면접 보는 회사에 대부분 이제 면접관들이 남자분들이었는데, 딱 나이가 그 결혼했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때 그걸 꼭 물어본대요. ‘아이 안 가질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본대요. 그리고 약간 어?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면접 때는 아이 안 갖는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 애 낳을 계획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자리에 남자가 됐더라고요.”(사례 12, 남성, 비자발)

전반적으로 무자녀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사례들이 많았다. 직장 내 문화가 많이 바뀌어 결혼이나 출산 등 개인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충분한 지원 정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무자녀

인 것을 부러워하는 반응이 있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자신이 ‘무자녀’이기 때문에 더 우월한 점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아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수가 없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 더 선호한다고 느낀다는 사례도 있었고, 자녀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본인은 업무에 더 집중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했었던 제 포지션의 일이 약간 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아니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외식 쪽 프랜차이즈 쪽에서 매장 오픈 매장 나가거나 매장 순회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남성 비율이 되게 높고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임신하거나 애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었기 때문에.”  
(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집사람도 IT 계통이고 저도 IT 계통이라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 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깨지고 변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젊은 친구들은 ‘아,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새 친구들 보면 이렇게 비혼도 많고 예를 들면 노키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내지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아무래도 제가 아이가 없잖아요. ...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을 할 기회가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저는 시간 맞춰서 잘 올 수 있고 자기 아이한테만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엄마들이 그런 거를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사례 2, 여성, 비자발)

## 5. 노후 및 죽음에 대한 생각

노후 및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죽음이나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치매 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 없이 홀로 초라한 마지막을 맞을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었다.

“내가 먼저 죽는다고 하면 내 장례는 치러줄 수 있는 신앙은 있는데, 신앙이 죽게 되면 아이고, 우리 그다음에는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데?”(사례 2, 여성, 비자발)

“치매나 내가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제일 겁나는 거 같아요.”(사례 15, 여성, 비자발)

“만약에 와이프가 먼저 떠나고 나 혼자 남게 되고 그다음 내가 간다면 좀, 아, 그때쯤이면 어머니도 안 제실 거고 그러다 보면 좀, 자녀가 없으면 좀, 마음이 좀 적적하겠다. 마지막 떠날 때도, 있어도 또 자녀, 그러니까 친자녀가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같은 게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마지막이 좀 초라하지는 않을까.”(사례 10, 남성, 자발-사회경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치매. 그러면은 ‘정신이 아직 있을 때 존엄사를 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사례 16, 여성, 자발-가치관)

한편으로는 노후에 생활자금이 부족해질 것에 대한 우려나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기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걱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 그러니까 빚만 잔뜩 있게 된 거예요. 둘 다. 남편이 비행 조종사였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일 못 해요. 나중에 노후에 빚 딱 갚아버리면 남은 노후 생활 자금이 없게 되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지.”(사례 8, 여성, 비자발)

“언젠가는 생이 끝나는데, 어, 내가 어찌 됐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나 이런 거를 누구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겠구나.”(사례 12, 남성, 비자발)

“사후에 이제 뭐 재산 처리라든가 뭐 집 정, 뭐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둘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그 거를 하고, 남은 한 사람이 이제 가버리면 이거를 정리할 사람들이 없잖아요.”(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나 자신이 그리는 노후에 대한 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주로 ‘자발-가치관’과 ‘자발-사회경제’에서 나타났다. 무자녀 선택에서 자발적 의사가 일정 정도 반영된 유형들이기에 장래에 대한 대비 등도 ‘비자발’에 비해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커피숍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커피숍, 그냥 고즈막한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길고양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꿈



냥퐁냥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사례 5, 남성, 자발-사회경제)

“그 생각을 했어요. 장기기증. 장기기증 신청을 하면. 이제 뭐 연고가 없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노후 준비는 애를 갖지 않는 이 시점부터였었던 거 같아요. 서른여섯 정도 됐을 때. 월급에 대한 어느 부분은 저축을 하고 이 돈 가지고 뭐 집을 늘릴지 아니면 차를 바꿀지. 그런 집을 사 가야 된다. 그거를 나중에 집값, 집을 팔아서 주택 연금을 받든, 실버타운을 들어가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사례 17, 남성, 자발-가치관)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신탁제도에 대한 견해도 청취했다. 대체로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았고, 있으면 좋겠다, 이용할 의향이 있다, 정도의 긍정적이지만 다소 막연한 반응이 주로 나왔다. 그런 경우 자산의 정리라는 측면보다 내가 내 자산을 마지막으로 잘 활용하기 어려울 때 이를 맡아서 해준다는 점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음에 든 게 뭐였었냐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돈을 보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내주면 혹시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달 이렇게 준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사례 2, 여성, 비자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는 거보다 전문가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그 기관이 정말 믿을 수 있다면.”(사례 7, 여성, 비자발)

“저는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뭐 유품도 정리하고, 뭐 재산도 뭐 하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 맡기겠죠.”(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반면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신탁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거나 검토해보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던 한편, 신탁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례도 있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신탁제도가 그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무자녀 유형별로는 ‘자발-가치관’에서 회의적 견해가 좀 더 우세했다.

“저도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알아보지는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기는 해요.”(사례 4, 남성, 자발-가치관)

“특정 나이가 지나서야만이 그거를 온전히 다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나이에 혹시나 뭐 50이나 55세가 됐을 때 그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보존을 하지 못하고 월 생활비조차도 안 나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배제를 하고 있어요.”(사례 9, 남성, 비자발)

## 6. 유형별 분석

### 가. 자발-가치관 유형

‘자발-가치관’ 유형에게 무자녀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 없다고 했으며 태도 또한 단호하였다. 대체로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었다, 다시 결혼해도 없을 것이다,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지 물어도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다만,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움은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 참석자 본인이 아쉬운 경우, 본인은 아쉽지 않으나 배우자가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각각 있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만족도가 높아버리니까 이거와 다른 삶이 더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 영향도 있어요.”*(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저는 없을 거고 그분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없는 이유는 지금은 삶에 만족하니까.”*(사례 4, 남성, 자발-가치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사례 16, 여성, 자발-가치관)

*“저는 다시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러움. 그런 거까지는 있어도 애를 우리가 갖지를 앞아가지고 되게 후회된다. 그런 거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아쉬운 그런 거죠.”(사례 17, 남성, 자발-가치관)

“저는 없는데 영감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닳은 애가 태어났으면 정말 예뻐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사례 6, 여성, 자발-가치관)

‘자발-가치관’ 유형의 참석자들은 혈연, 업무 등의 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무자녀와 관련된 평가를 당하거나 편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이 낳기를 강권하며 부부는 아이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한 참석자는 자신이 그 말이 틀렸음을 입증했다고 하였다. 업무관계에서는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사가 계속해서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인지 물어본다든지, 상담할 때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결혼 여부나 자녀 여부를 물어보며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고 하였다. ‘무자녀’를 무언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핍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가까운 사이라든가, 젊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너네 나중에 애 때문에 사는 거다. 애 없으면 너네 못 버틴다.”(사례 18, 남성, 자발)

“학부모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와서, 그게 이제 일반적

이지는 않은데요. 조금, 뭐 조금 문제가 있으신 엄마들이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몇 살이세요? 꼭 물어요. 애는 있으세요? 꼭 그걸 물어 시거든요. 저를 제압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엄마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뭐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사례 6, 여성, 자발)

“회사에나 이런 데서들도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분들도 있고,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임원급들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사례 18, 남성, 자발)

한편, ‘자발-가치관’ 유형의 부부가 자녀가 없는 생활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선택한다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그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결혼 전부터 무자녀에 대해 합의하고, 결정을 지켜온 경우가 있는 반면, 배우자는 자녀를 원했지만 자신의 무자녀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부부 간의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내 본인이 무자녀 의지가 확고하면 남편이 출산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 아내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결혼을 하면 제가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사례 6, 여성, 자발-가치관)

“신랑은 조금 초반에는 애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신랑은 ‘아, 뭐 우리 둘이 그래도 니 닮은 딸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사례 16, 여성, 자발-가치관)

‘자발-가치관’ 유형 부부의 무자녀 선택에 대한 그들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대체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너희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되었다’, ‘너희가 책임질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니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의였어요.”(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처형 쪽네에서는 니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뭐 니네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까지 전혀 형제 쪽에서 형제자매 쪽에서는 이렇게 크게 터치 그런 거는 저희는 없었어요.”(사례 17, 남성, 자발-가치관)

물론, 매우 크게 반대했다거나 많이 서운해했다는 반응도 확인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태도가 지속되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수용하는 태도로 전환되었다.

“친정 엄마는 처음에는 노발대발하다가 지금은 내려놓으셨어요.”(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본가에서는 되게 서운해하셨죠. 지금은 ‘너네 결정 존중한다, 너네 결정 존중한다, 대신 책임은 너네가 져라. 나중에 애가 없는 걸 후회하더라도 후회는 너가 하는 거다’라고 하시고.”(사례 18, 남성, 자발-가치관)

‘자발-가치관’ 유형은 무자녀와 관련해 입장이 뚜렷하고 명확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비자발 유형들과 차이를 보인다. 사례에 따라 본인도

‘주변의 반대가 상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말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이들을 향해 동정이나 안되었다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일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당사자의 의사가 강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거나 자녀가 없는 삶에 대해 부러워하고, 동경한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저도 사실 부모님을 제일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시아버지, 결혼 했는데 1년 동안 말을 한 번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애기는?’ 뭐 이런 말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신 건가 싶어서 남편한테 처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는 니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애가 있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 애를 낳는 거고, 애가 없는 게 행복할 것 같으면 애가 없는 게 낫다. 3년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지 않으실까?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세요.”(사례 3, 여성, 자발-가치관)

종합해보자면, ‘자발’ 유형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때로는 당당하게 평가해주는 등 이들은 유자녀가 대부분인 우리 사회에서 수적으로는 소수자일 수 있겠으나 직장 생활 및 인간관계로 인한 큰 부담이나 압박은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 자발-사회경제

이 유형에서는 자녀를 낳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경제적 요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

을 정도의 경제적 요건을 마련하지 못했던 자신의 당시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고(사례 11, 사례 13), 자녀를 양육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사례 5, 사례 10).

이들의 인식에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각자의 기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월 500으로는 안 된다’(사례 5) 라든지 ‘외벌이로는 어렵다’(사례10) 등의 기준이었다. 사례 13의 경우, ‘자기 명의의 집’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의미도 있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주거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

“아이를 못 낳게 된 환경 자체는 경제적인, 네, 저희가 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월 500을 벌어서 해야 된다는 게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무시당하지 않게, 그니까 애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려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사례 5, 남성, 자발-사회경제)

“솔직히 지금은 혼자서 돈 벌어가지고는 이거 부부랑 같이 살기도 약간 좀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까지 낳으면 아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사례 10, 남성, 자발-사회경제)

“일은 했지만 그 당시에 뭐 저희 명의의 집이 일단 없었고 아파트를 장만을 한다. 뭐 이런 게 좀 너무 멀리 있었고.”(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사회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적절치 않은 조건을 거론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례 19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이들의 양육,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변화가 크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애를 이 환경 속에서 똑바르게 키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 사회적인 것도 있고, 뭐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모든 것들이 좀 불안정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요즘 애들도 학교 가서 왕따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모르겠어요. 약간 어려운 친구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잘되는 경우도 있겠죠.”(사례 19, 남성, 자발-사회경제)*

한편, 이직, 직장에 적응하는 일, 사업의 실패 등 직업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처로 인해 임신, 출산이 늦어졌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출산과 비교했을 때 직업과 관련해 발생한 상황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해 출산을 미루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된 측면도 있었다. ‘자발-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자발-사회경제’ 또한 자신의 직업이나 커리어를 아이로 인해 포기하기는 어려운, 삶의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또 일을 다시 다른 업종, 이쪽 업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에 대해 좀 많이 몰두하고 있던 시기여서 좀 약간 아기를 가지면 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어려웠겠다.”(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자유,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속박일 수 있죠, 사실. 애를 키*

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나의 정신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노력이 안 들어갈 순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의 이유를 뭐 정당화한다고 할 수도 있죠. 애를 안 낳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걸 수도 있죠. 애를 안 낳기로 결심을 했으니.”(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마지막으로, 자녀를 낳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부부의 생활은 물론, 자녀까지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소득과 출산 및 육아 후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당장 배우자와 둘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었다. 더불어,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는데, 외벌이로는 자녀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부 합산 뭐 600, 6, 700 이 정도는 돼야 뭐 넉넉하게 본인들도 생활하고. 왜냐하면 각자 부부 6, 700 이렇게 벌려면 각자 차 굴려야 되고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유지해야 되고 집안, 집도 있어야 되고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또 각자 보험 들어가고 애들 보험 들어가고. 뭐 애들 학원비, 뭐 수강료 뭐 이런 것들, 교재비, 아이들에게 충분히 뭐 이제 해줄 수 있는 만큼.”(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두 번째로는 아이 돌봄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집은

하원 시간이 있으므로 직장 생활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며, 직장 생활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조건에서는 자녀를 낳을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례 10의 경우, 직장 생활과 아이 돌봄이 모두 안정화되는 측면에서 직장 내에 아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지거나 인력이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제일 큰 거는 아이를 낳아도 일단,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이런 것처럼 그냥 맡기고, 그리고 끝나면 또 데리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일을 하고 일을 끝나면 이제 같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늘어나야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좀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게 되면 이제 아, 취업을 중단하고 아이만 전념해서 키워야지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같은 직장에서 아이도 볼 수 있고 나름대로 내 일도 할 수 있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오히려 그게 더 안정되지 않을까.”(사례 10, 남성, 자발-사회경제)

세 번째로는 출산 및 양육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출산장려금 같은 일시적인 지원이 확대, 지속되는 것보다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지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저는 지금 나오는 출산 정책. 이거는 뭐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진짜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예를 들

어 그 애 한 명 낳으면 얼마 주고. 그런 거. 그런 일시적인 그런 지원 들은. 정말 정말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좀 애를 키웠을 때 걱정을 안 하고 키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 복유립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시스템이 우리랑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고 완전 무상인데다가. 그리고 교육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의료비도 공짜고. 그래서 부모들이 다른 쪽에 어떤 신경을 쓸 거를 이제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복유립 쪽에는 이게 정착이 돼 있잖아요.”(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마지막으로는 입시제도와 사교육 등 교육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제도와 더불어, 지역 간 인프라의 격차,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교육의 현황 등 참석자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언급되었다. 공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입시, 지방의 교육 및 문화 등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등이 개선의 방향으로 언급되었다.

“아이를 정작 낳은 부모들의 마음은 이 아이를 막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 지방도 서울만큼, 수도권만큼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문화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려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뭐 서울에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와서 막 컨설팅 해주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지방에도 자연스

롭게 정착이 돼서 뭐 이런 환경이 뭐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교육 시스템 자체도 지역에도 많이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ebs만 잘 들으면 수능 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 시절로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에 대한 평등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는 생각은 해요.”(사례 13, 남성, 자발-사회경제)

“아예 외국처럼 진짜 대학을 원하는 애들만 가는 그런 사회구조가 된다면 뭐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그러들겠지만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사례 19, 남성, 자발-사회경제)

“지금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가끔 주위에서 보면 대안학교, 사교육 위주가 아닌 대안학교,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거 다 해볼 수 있도록 뭐 학교에서도 음악, 연극 뭐 이런 것들 활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농활도 하고 가서 힘든 일도 해보고 뭐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것에서 어디 직업 관련 된 거 혼자 조사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학교가 많아지면 좀 구조는 바뀔 수 있죠.”(사례 19, 자발-사회경제)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장애 요인이 개선되고, 해결되면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경향이 강했다. 장애 요인

들이 일정 수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나아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였다.

“적어도 20년이에요. 지금 당장 바뀌려고 해도. 근데 정책이 안 바뀌잖아요. 지금 정책이 바뀌려면 또 5년, 10년 있어야겠죠? 30년 후에 출산 못 해요.”(사례 5, 남성, 자발-사회경제)

“지금은 모든 조건이 좋아도 지금은 가질 생각이 없어요. 선생아를 키울 체력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힘들어요,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 오로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이제 정년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네. 그 사이에 지금 현재 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일도 하고 즐기고 뭐 이럴 생각이라서.”(사례 11, 여성, 자발-사회경제)

반면에,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사례도 있었다.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든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든가 아니면 살짝 이제 끊겨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서 이제 다시 취업을 했을 때 다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게 되면 낳을 것 같아요.”(사례 10, 남성, 자발-사회경제)

## 다. 비자발

‘비자발’ 유형의 참석자 6명 중 5명이 난임 치료를 받았다. 난임 치료 시기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표 4-15〉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의 난임 치료 시기

사례	만 연령	성별	혼인연령	혼인연차	난임 치료 시기
1	42	여	31	11	난임 치료 경험 없음
2	43	여	34	10	2016년~2017년
7	45	여	35	11	2014년~2015년
8	46	여	42	3	2019년~2020년
9	42	남	35	8	2014년~2017년
12	44	남	35	11	2016년~2019년

이들이 난임 치료 중 겪은 상처나 좌절은 〈표 4-16〉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표 4-16〉 난임 치료 중 겪은 상처와 좌절

난임 치료 중 겪은 상처와 좌절	사례
비용적 부분으로 부담	7, 9
난임 시술 실패로 실망(자책감)	2, 7, 8, 9, 12, 15
난임 시술 실패로 가족들 걱정	7
난임 시술 어려움	8, 14, 15
난임 시술 과정의 불편함/어려움	2, 15
본인, 배우자 건강상 문제로 난임 치료 중단	2, 12, 14

참석자들은 난임 시술 실패로 인한 실망과 자책감에 대해 주되게 이야기했다. 실패가 거듭되면서 실망이 커지고,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이 들게 된다는 것이었다. 인공수정 후 테스트기에서 흐릿하지만 임신 사인을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약물로 인한 것임

을 알았을 때 상당히 실망했던 사례도 언급되었다.

“두 번째 시험관 실패하고 나서는 정말 이게 수정된 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착상까지 이렇게 딱 됐으면 좋을 텐데, 웬지 내가 못 지켜준 것 같은 그런, 그런 막 너무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사례 2, 여성, 비자발)

“1차 때는 진짜 처음 하니까 기대감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1차 때 그 실망감이 가장 컸고요. 그거 안 되고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가져라 하는데 그게 되나요.”(사례 7, 여성, 비자발)

“인공수정을 하면은 이제 바로 그때 한 며칠 지나서 이거 뭐지? 임신 테스트하잖아요. 줄이 정말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진짜 임신됐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하고, 막 엄청 그때부터, 막 임신된 것처럼 막, 막 챙겨 먹고 막 남편이 나한테 막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게 인공수정하면서 주입하는 무슨 난포 터지는 약인가 무슨 주사 그 영향으로 그런 줄이 생길 수,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사례 8, 여성, 비자발)

한편으로, 난임 치료 자체의 어려움이나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도 무게 있게 다뤄졌다. 난임이라고 해서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법과 성공 확률, 부작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거나 일정 정도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난임 치료를 시작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시험관의 경우, 일정 시간마다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낫겠지만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나 직장 생활과 업무상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 치료 과정에서도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번에 하나 넣으면 안 돼요. 최소한 세 개는 넣어야지 한 번에 확률이 될까 말까요. 세 개를 넣어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나오니까 그중에 세 개를 이식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실패도 아니게 되지만 저는 한 개 나와서 하나 하면은 거의 안 돼, 거의. 90% 될 확률이 없어.”(사례 8, 여성, 비자발)

“난자 채취할 때 그 복수가 차는데 저희 와이프는 좀 복수가 많이 차는 편이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했을 때는 한 3일 정도를 거동을 못 했어요. ... 중간에 한번 난소 채취를 금요일날 했는데 토요일날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 갔었어요.”(사례 12, 남성, 비자발)

“의사가 저희는 인공수정은 해봤자 짱이다. 안 된다. 시험관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설명 듣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시험관을 하게 되면은 쌍둥이나 세쌍둥이도 잘 태어난대요. 성공할 확률도 30%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깐 너무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만약에 쌍둥이를 낳거나 세쌍둥이를 낳아버리면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포기했죠.”(사례 14, 여성, 비자발)

“시험관을 할 때 배에 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배에 주사를 놓는 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시간대를 항상 맞춰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또 약을 넣어야 된다

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사례 2, 여성, 비자발)

이와 더불어, 치료에 드는 비용과 난임 시술 실패로 인한 가족들의 걱정 또한 당사자들이 감당할 부담과 어려움으로 함께 언급되었다.

“비용적인 좀 문제도 부담이 됐죠. 네,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그 래도 한정이 있잖아요. 그거 시험관이 4회,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나이 제한도 뭐. 나이 제한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사례 7, 여성, 비자발)

“계산을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거의 한 4,000만 원 이상 나갔어요. 국가지원이. 지원금을 뭐, 네.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받고도 시도를 더 하고 개인 자부담이 많아요.”(사례 9, 남성, 비자발)

“착상 자체도 안 되고 실패하니까, 와, 그때는 진짜 미치겠더라고 요. 더 막 괜히 알렸다 싶고, 그래서 그 이후에 도전했을 때는 그때 시술받을 때 이제 그 언니한테는 살짝 얘기하고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안 되면 엄마가 더 슬퍼하시더라고, 저도 슬프지만.”(사례 7, 여성, 비자발)

마지막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와 관련한 지원제도나 정책상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했다. 참석자들은 크게 지원비용과 횟수의 확대, 지원항목 및 대상의 확대, 공신력 있는 정보 공유 창구 마련 등을 이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

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되었다.

“한 1~2회 정도는 그냥, 그냥 이제 좀 이렇게 100% 그냥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 횡수 제한이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횡수나 나이 제한 이런 것도 그저 때문에 그때 제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사례 7, 여성, 비자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만약에 70만 원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시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취소가 돼서 4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이 병원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 원인데 4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대로 청구를 하면 횡수는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부담으로 40만 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 횡수를 차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다시 그 70만 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횡수에 대한 것들도 좀 유연스럽게 바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사례 9, 비자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소득이 좀 높아지니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계 넘어가는 집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폭도 조금 넓히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사례 2, 여성, 비자발)

“영양제를 먹는다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약들, 처방받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그나마 약의 종류가 적은 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에는 약을 되게 많이 먹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이 되게 많으면 이제 뭐 아무래도 약값도 더 많이 들기도 하고.”(사례 2, 여성, 비자발)

“형식적인 상담 이런 거 말구요. 출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 믿을만한 자료 있잖아요. 그게 보기보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나라에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더 정확하고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믿음이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14, 여성, 비자발)

“(아이를) 갖고 나서 거기서 보호 시간도 주고 또 태어나서 뭐 출산휴가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갖기까지,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는 없는 거예요. 정말 시험관 시술하고 물론 병가를 내면 되죠. 병가를 내면 되는데 그걸 눈치 없이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뭐 내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병원 가려고 그러면 일 걱정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도 못 하겠고. 말론 그렇다 해도 엄청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도 엄청 싫어한단 말이에요. 엄청 눈치가 보여요.”(사례 8, 여성, 비자발)

난임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해 보았는지 물어보았을 때, 2명은 우울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4명은 본인이 우울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본인이 아닌 아내가 우울을 경험하였다는 사례와 자신은 우울은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들 사례도 넓은 범위에서 우울 경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다수의 ‘비자발’ 유형에서 난임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난임으로 인한 우울 여부

난임으로 인한 우울 여부	사례
없음	1, 8
있음	2, 7, 9, 15
기타	12, 14

“왜 나는 안 되지? 그카면서 일단은 뭐 시험관을 많이 하고 하면서, 착상에 이렇게 실패하니까, 이게 꼭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렇죠.”  
(사례 7, 여성, 비자발)

“우울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큰 트라우마, 데미지를 입은 건데  
우울증은 아니죠. 우울증은 좀 다르죠.”(14, 여성, 비자발)

“저는 뭐 딱히 그저 가지고 크게 그렇게 뭐 고민하거나 그런 건 없  
었는데 와이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물어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래 봐야 그 생각이 더 날 테니까.”  
(사례 12, 남성, 비자발)

우울을 겪을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진료  
와 상담을 받았다는 사례는 1명에 불과하였다. 그 외에는 스스로 산책을  
하는 등 노력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남편을 비롯해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비자발-신체’ 유형의 무자녀 기혼부부  
들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수는 개인적 차원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8〉 난임으로 우울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의 유형

난임으로 인한 우울 해결방법	사례
스스로 해결	2, 7
병원진료, 상담	9
도움 받은 것 없음	15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쪽 뭐 진료도 좀 받고. 주로 이제 제가 또 많이 좀 빨리 가서 얘기해주고 다독이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빨리 극복은 하긴 했어요.”(사례 9, 비자발)

“첫날은 되게 많이 울었고요. 그다음 날까지도 울었던 것 같아요. 3일째 되는 날부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운동이라도 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뭐 동네 산책을 하면서 계속 걸었거든요. 그냥 물 흘러가는 소리 듣고 이제 막 꽃 핀 것도 막 예뻐 보이는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계속 걷고 하는데 더 재미도 붙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것 같아요.”(사례 2, 여성, 비자발)

“얘기하면 뭐 해요. 또 더 막 제가 더 슬퍼지고 더 미안해지고 더 슬플까 봐 더 오히려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운동한 바퀴 돌면서, 한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돌면서 그냥 막 울고 나면, 우했거나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실컷 울고 나니까 풀리더라고요.”(사례 7, 여성, 비자발)

“극복하는 건 없었던 거 같은데 신앙도 딱히 뭐 안 해준 거 같아요. 위로를.”(사례 15, 여성, 비자발)

###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의 과정을 이해하고, 무자녀 선택의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데 근거자료

로 삼기 위해 무자녀 사례 19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석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 관계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족과의 부정적 경험이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발견된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상처를 받고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갖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1명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세 남매 중 맏이로 동생을 챙겨야 했던 경험이 훗날 출산 의향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를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난 사례도 1명 발견되었다.

유형별로는 ‘자발-가치관’ 유형에서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 혹은 부모 간 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이 언급되는 경우가 ‘자발-사회경제’나 ‘비자발’ 유형에 비해 다소 많았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출산 의향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여성 참석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일을 해야 한다’라거나 ‘혼자 살아도 된다’ 등의 말을 들으며 자란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손인 한 남성 참석자는 부모로부터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나중에 무자녀 결정을 부모에게 알렸더니 부모도 결국엔 수용하였다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 참석자들의 부모세대가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자녀 참석자들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거나,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배우자와 함께 하는 생활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현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출산 의향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변화를 살펴보면 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난다. ‘자발-가치관’ 유형은 일찌감치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무자녀 여부를 결정한 시점이 결혼 전후의 시기로 다른 유형에 비해 이른 편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 전부터 무자녀를 지향한 경우, 남편은 출산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발-사회경제’의 경우 초기에는 부정적인 출산 의향을 갖고 있거나 출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가, 출산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결혼하게 되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나 ‘일’과 관련해 집중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다가 이후에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 적극적인 출산 의향을 가져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자발’ 유형은 아이 낳기를 바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난임 치료에 나선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고도 일정 기간 출산을 보류한 채 자신의 일 또는 목적인 바에 집중하다가 이후 보류했던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이미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연령대에 들어서서 난임 치료가 여의치 않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시점의 출산 의향도 바뀐 경우가 있었다. 힘든 난임 치료를 거치면서 건강에 문제를 겪거나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무자녀 의사를 확정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면 낳고 싶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거나, 난임 치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발-가치관’ 유형과 ‘자발-사회경제’ 유형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요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우리 사회는 양육에 좋지 않은 조건’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커리어(혹은 자신의 일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안정과 커리어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 양육과 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었다.

아이에 대한 생각에서 ‘자발-가치관’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를 싫어한다는 반응이 더 많았는데 이런 점도 무자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자녀로 살아가는 장점으로 ‘경제적 여유’, ‘일상생활의 자유’, ‘가족에게 집중 가능’, ‘양육 부담감 없음’ 등이 언급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자발-가치관’ 유형과 ‘자발-사회경제’ 참석자들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만족하는 요소들은 자녀가 있었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자녀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자녀로 살아가는 단점에서 ‘비자발’에서는 ‘양육의 즐거움이 없음’을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자발-가치관’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자발-사회경제’에서는 일부만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 이들은 자녀양육을 떠올릴 때도 좀더 부정적인 연상이 강한 편이다. 앞에서 자신이 이룬 성과들과 자녀 양육이 병행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들은 ‘양육 공포감’이 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발견되는 현상 중에는 사회적 시선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이 있다. 무자녀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은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비자발’ 유형에 대해서는 ‘궁금해함’, ‘이해, 인정함’, ‘별 반응 없음’과 함께 ‘권유 혹은 훈계’가 주된 반응이었다. ‘자발-가치관’ 유형은 ‘권유 또는 훈계’, ‘편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부러워한다’는 반응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권유하거나 훈계하는 사회적 시선은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지방 도시, 농촌지역에서 더 많다

는 의견이 있었다.

‘부러워함’이라는 반응은 실제로 유자녀 기혼부부가 부러워하는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고, 무자녀 참석자들이 주변의 반응에 대해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반영해서 해석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무자녀 참석자들은 자신의 무자녀 결정에 대해 확신이 있고 주변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무자녀 참석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노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쓸쓸’하다거나 ‘초라’하다는 표현으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함께 혹은 홀로 맞이할 자신의 노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자발-가치관’이나 ‘자발-사회경제’ 중 일찌감치 무자녀를 결정한 경우는 노후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자기 나름의 노후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편이었다. 그 외에 상황에 따라 무자녀가 된 경우들은 아직 노후에 대해 막연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주거가 보장되는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가 있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노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이 전문화되길 바라고 있었다. 상속할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를 위해 자산을 대신 정리해주는 신탁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서비스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나 정책적 요구를 검토해보았는데, ‘자발-가치관’ 유형은 자신이 선택한 무자녀 결정에 후회가 없고 자기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강한 편이었다. ‘자발-사회경제’ 유형은 자녀를 갖기 어려운 장애 요인과 관련해 경제적 문제, 돌봄 문제, 입시제도와 사교육 등 교육 제도의 문제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장

에 요인은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자신의 무자녀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비자발’ 유형 참석자들은 불임 및 난임 치료 지원제도에서 지원의 비용과 횟수가 확대되고, 지원항목 및 대상이 확대되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비자발’ 유형의 다수가 난임 치료 과정에서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심리적 문제에 대해 ‘오래 다들 힘드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삭이거나, 개인적으로 우울감을 떨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사회경제’와 ‘비자발’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적 요인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녀 출산을 보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임신과 출산이 쉽지 않은 연령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들 중 임신·출산을 포기하냐, 아니면 난임 치료에 들어서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뿐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과제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출산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출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출산이라는 사건(event)이 발생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도 포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의 서두에서 무자녀라는 개념이 그동안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봤고, 연령 및 결혼지속기간과 자발성 여부에 따라 정의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무자녀의 정의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도 자료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무자녀를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무자녀 부부의 현황 분석을 위하여 센서스 조사의 2% 샘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기 횡단면 자료와 종단면 자료(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횡단면 자료를 통한 분석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종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차수별로 개인의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자녀 선택 유형을 무자녀 선택을 포함하여 출산 연기, 무자녀 전향, 의향 출산, 지속적 무자녀, 출산 전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양적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에 대해 심층면접조사(질적 분

석)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무자녀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1970년대 이전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특히 중졸 이하 저학력 여성들의 무자녀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무자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가능성이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무자녀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강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현황 및 회귀분석, 그리고 종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은,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이었다. 무자녀 현황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무자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선택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무자녀로 전향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초혼연령이라는 요인은 무자녀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특히 교육수준이라는 요인은 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교육수준이 높으면 소득이 높고 따라서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 이외에 실제 소득 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 증가는 지속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자녀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이론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녀 양



육 환경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의 부담이 큰 우리나라는 본인의 커리어를 우선시해서 무자녀를 선택하기보다 양육비의 부담 때문에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무자녀 선택 과정은 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났는데, ‘자발-사회경제’ 유형은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여건 및 커리어 등에 집중하다가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 분석과도 연결되는데, 출산 연기 유형은 출산 의향이 있음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는 출산을 연기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그 요인은 심층면접조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취업 여부로 나타났다.

다만, 실증 분석에서 취업 여부는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해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도 유의하게 증가시킨 요인이었는데, 결국 이 결과는 육아 및 가사 일을 하는 전업주부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분석 결과에서도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인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로 전향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자녀로 남아 있을 확률이 감소하였고, 또한 출산으로 전환될 확률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 특히 여성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일하는 여성의 경우 어릴 때부터 커리어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라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가치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 이후 자신의 일이나 목적인 바에 집중하기 위하여 출산을 보류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보류했던 출산을 준비하

였으나, 이미 가임 가능성이 낮은 연령대에 들어서게 되어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 경우이다. 이들은 임신을 위한 난임 치료도 진행하였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로 인하여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경우가 있었다. 즉 힘든 난임 치료를 거치면서 건강에 문제를 겪거나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무자녀 의사를 확정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연적으로 생기면 낳고 싶다면 희망을 버리지 않거나, 난임 치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양적 분석 결과와 같이 자녀를 낳기로 했다가 낳지 않기로 한 경우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결혼 후 출산까지의 기간이 이전과 같다 하더라도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 기간이 점차적으로 짧아지므로 임신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기획할 당시에는 부부를 분석 단위로 하려고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부부의 현황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 부부를 쌍으로 조사한 '결혼과 출산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부 각각의 출산 의향을 반영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자발적인 무자녀 부부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기술적인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다만, 무자녀 선택에 관한 패널 분석에서는 남편의 특성도 일부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정책과제에서도 남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 제2절 정책과제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무자녀에 이르는 과정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먼저,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이들은 보통 결혼 이전부터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결혼 전후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본인들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이를 결정하였으므로 정책 개입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다른 유형은 결혼 후 출산을 연기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해서 출산을 연기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으려 했으나 가임이 어려워 아이 없는 삶을 택하게 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를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경우(‘자발-사회경제’), 후자를 ‘비자발’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 두 경우는 아이 있는 삶을 꿈꾸었지만 외부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에 의하여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유형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 1. 대상별 정책과제

#### 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이

37) 여기에서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저출산대책의 범위 안에서”이며, 타 복지정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직업, 소득 등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본인의 삶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가 없는 삶으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크게 본인의 경제 및 주거 여건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와 시기적으로 커리어가 우선시되는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는 본인의 경제 및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소득과 출산 및 육아 후 경제활동에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여기에 더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현재의 소득 및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경우 자녀를 출산하는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 입학에 위한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 차례의 대학 입학시험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폐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이를 위한 컨설팅(입시코디네이터)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비용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다.<sup>38)</sup> 즉,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시도가 오히려 부모들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고, 결국 경제력에 따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층과 없는 층이 나뉘며, 이는 대학 입학 정보에 접근하는 정도에서도 격차

38) 윤정아. (2019.9.30.). “학생부 관리에만 480만 원”... ‘입시코디’ 학원 4배↑.

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아이 낳게 되면 향후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고 싶지 않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 다르겠지만,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양적 분석 결과와도 연결되는데, 소득이 낮으면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양육비용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 부담이 커질수록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커지므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EBS만 잘 들으면 수능 보는 데 문제없었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대학은 진짜 원하는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안학교처럼 자유롭게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교육이 되면 이러한 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 돌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질적 분석에서 응답자들은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하고, 직장 내에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에서도 아내의 취업은 출산 연기, 무자녀 전환, 지속적 무자녀 선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특히 일하는 시간을 아이의 어린이집의 하원 시간에 맞춰야 하는 점이 매우 어려운 점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시간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9~18시까지이므로, 일반 취업 여성은 근로시

간을 아이의 하원시간에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 보육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해야 하므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2015년 5월에 시작되었다.

사업 기준은 영아 3반 및 유아 2반 기준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개 반당 1명을 배치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보조교사 배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조막래, 2020).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간은 4시간이지만 보조교사의 업무시간은 이를 넘어서고 있고,<sup>39)</sup>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막래, 2020). 따라서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비용의 정부 지원은 30%이지만 보통 근로자와 같이 50%로 높이고, 지원 시간도 보조교사 업무 평균 시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최소 현재보다 1시간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출장 및 야근 등의 업무로 인하여 일시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다. 이것은 위와 같은 일시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수요를 추정 및 예측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배정되는 예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만성적인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김영란, 2019). 따라서 그동안의 신청 실적 등을 포함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39) 육아정책연구소(2018)에서는 보조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 38분으로 조사됨.

바탕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아이 돌봄 정책의 목적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가 아프더라도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에 대해서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보육 등의 양육 환경을 정비하고, 양육비 등의 양육 부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육 제도에서 필요한 것은 앞으로 보조교사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리는 것과 4대 보험의 정부 지원 부담 비율도 적정선에서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은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닌 수요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비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

심층면접조사에서 비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의 대부분은 결혼 이후 아이를 출산할 상황이 되지 않아 출산을 연기하다가 이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해서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2021)의 국민관심진료행위 중 난임시술(보조생식술)을 받은 통계를 보면, 2018년 215,836명, 2019년 231,203명, 2020년 258,753명으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에서 비자발 무자녀 부부(여성)는 6쌍이었고, 이 중에 5쌍이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 중에는 3년 정도 난임 시술을 받았는데 총비용이 4,000만 원 이상 소요된 경우가 있었으며,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개인 자부담이 매우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횟수의 제한이 있고, 시술 중간에 취소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만, 그때까지의 비용을 개인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횟수가 감소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용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원 횟수 및 소득 기준 등에 있어서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표 5-1〉 시술비 지원사업 범위 확대

년도	내용
2006	체외수정시술 지원 시작 - (지원 횟수) 2회 - (선정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지원금액) 1회당 150만 원(기초수급자 255만 원) 범위 내
2009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확대 - (지원 횟수) 2회 → 3회 -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255만 원 범위 내 → 270만 원 범위 내
2010	지원대상자 확대 및 인공수정시술비 신규지원 - (선정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맞벌이부부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선정기준 적합 여부 판정 - (인공수정시술비) 1회당 50만 원 범위 내 3회까지 신규 지원
2011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 확대 - (지원 횟수) 3회 → 4회 - (지원금액) 1회부터 3회까지는 1회당 150만 원 범위 내 (기초수급자 270만 원) → 180만 원 범위 내 (기초수급자 300만 원), 4회는 100만 원 범위 내
2013	체외수정시술비 4회차 지원금액 확대 - (4회차 시술비) 100만 원 범위 내 → 180만 원 범위 내
2014	체외수정시술비 최대 6회차까지 지원 확대



년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술비 구분지원) 신선패아 3회, 동결패아 3회로 시술비 지원 확대</li> <li>- (동결패아 미발생) 신선패아 4회까지 지원</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외수정시술비 신선패아 지원금액 확대</li> <li>- (신선패아 시술비) 1회당 180만 원 → 190만 원 범위 내</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신선패아 시술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초과 100만 원 범위 내 신규 지원</li> <li>  전국 가구 100% 이하 190만 원 → 240만 원, 3회 → 4회</li> <li>- (인공수정 시술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초과 20만 원 범위 내 신규 지원</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자 기준 변경</li>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 기준중위소득 200%</li> <li>•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30%</li> </ul> </li> <li>- (신선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수급자) 4회, 1회당 300만 원 범위</li> <li>•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4회, 1회당 240만 원 범위</li> <li>• (기준중위소득 130% 초과 ~ 200% 이하) 3회, 1회당 190만 원 범위</li> <li>•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3회, 1회당 100만 원 범위</li> </ul> </li> <li>- (동결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3회, 1회당 100만 원 범위</li> <li>•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최대 3회, 1회당 80만 원 범위</li> <li>• (기준중위소득 130% 초과 ~ 200% 이하) 최대 3회, 1회당 60만 원 범위</li> <li>•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최대 3회, 1회당 30만 원 범위</li> </ul> </li> <li>- (인공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200% 이하) 최대 3회, 1회당 50만 원 범위</li> <li>• (중위소득 200% 초과) 최대 3회, 1회당 20만 원 범위</li> </ul> </li> <li>※ 20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적용</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변경</li>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함</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외수정(신선패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li> <li>- (지원 횟수) 최대 4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li> <li>-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li> </ul> </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변경</li> <li>- (지원대상)</li> </ul>

200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년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li> <li>- (지원내용)</li> <li>•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li> <li>- (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동결배아 최대 3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인공수정 최대 3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li> <li>-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li> <li>-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li> </ul>																							
2019.07	<p>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변경(2019년 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li> <li>•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연령제한 폐지)</li> <li>- (지원내용)</li> <li>•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li> <li>- (지원 횟수) 신선배아 최대 7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동결배아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li> <li>-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단 확대된 대상자 및 횟수는 최대 40만 원</li> </ul>																							
2019.10.24	<p>지원 대상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p>																							
2020	<p>시술별 지원금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li> <li>•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li> <li>- (지원내용)</li> <li>•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등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li> </ul> <table border="1" data-bbox="325 1252 980 1477">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325 1252 580 1295">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th> <th data-bbox="580 1252 845 1295">만 44세 이하</th> <th data-bbox="845 1252 980 1295">만 45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5 1295 454 1415" rowspan="4">체외수정</td> <td data-bbox="454 1295 580 1330">신선배아</td> <td data-bbox="580 1295 845 1330">1~4회</td> <td data-bbox="845 1295 980 1330">최대 110만원</td> </tr> <tr> <td data-bbox="454 1330 580 1365"></td> <td data-bbox="580 1330 845 1365">5~7회</td> <td data-bbox="845 1330 980 1365">최대 90만원</td> </tr> <tr> <td data-bbox="454 1365 580 1415" rowspan="2">동결배아</td> <td data-bbox="580 1365 845 1399">1~3회</td> <td data-bbox="845 1365 980 1399">최대 50만원</td> </tr> <tr> <td data-bbox="580 1399 845 1434">4, 5회</td> <td data-bbox="845 1399 980 1434">최대 40만원</td> </tr> <tr> <td data-bbox="325 1415 580 1477" rowspan="2">인공수정</td> <td data-bbox="454 1415 580 1450"></td> <td data-bbox="580 1415 845 1450">1~3회</td> <td data-bbox="845 1415 980 1450">최대 30만원</td> </tr> <tr> <td data-bbox="454 1450 580 1477"></td> <td data-bbox="580 1450 845 1477">4, 5회</td> <td data-bbox="845 1450 980 1477">최대 2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원금액)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p>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p.94-97.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횡수와 소득의 제한이 남아 있다.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들은 자녀가 너무 갖고 싶어서 시술을 받는 것이고, 신체적 문제가 없었다면 임신을 위한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신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갖게 되었을 사람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출산하여 자녀를 갖는 이들과 동등하게 별도의 비용 없이 자녀를 갖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녀를 매우 갖고 싶어 하는 이들이 시술 비용 부담까지 져야 한다면, 자녀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아픔과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지만, 상담 및 의료 등 적절하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한정적이었다. 난임 상담의 경우 선별 검사 후 센터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선별 검사 후 등록률이 서울과 지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치료에 대한 의욕 차이, 지역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장래 외, 2020).

그러나 이보다 큰 문제점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서울에 있는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포함하여 권역별로 6개 센터(인천권역, 경기권역, 대구권역, 전남권역, 경북권역)가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난임 관련 상담은 2018년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사업 시작 후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아직 사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센터가 앞으로 권역별이 아닌 최소 17개 시도에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전남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 전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현황

구분	수탁기관	주소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2층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가천대길병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지 B 길병원 여성센터 1층
경기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1, 3층
대구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67 을화빌딩 7층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현대여성아동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매기 1길 B(조례동)
경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2층

자료: 보건복지부. (2020). 2021모자보건사업안내. p.122를 참조하여 필자 추가.

그리고 난임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큰 신체적인 부담을 동반한다. 심층면접조사 사례 중에도, 난자를 채취할 경우 복수가 차서 3일 정도는 거동을 못 할 정도인 경우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에서는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최초 1일만이 유급으로 되어 있다. 위의 사례 이외에 5달 동안 난임 관련 시술을 위해서 11일의 연차와 1일의 난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송혜미, 2021.10.6). 또한, 현재 공무원의 경우는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민간 기업에서는 난임 휴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 치료 휴가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할 것이고, 민간 기업에서도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비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에게는 무엇보다도 임신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심리적 아픔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하고, 민간 기업에서도 난임 휴가를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중장기적 정책과제

### 가. 무자녀 부부 조세 관련

이 연구에서는 무자녀 선택이 소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무자녀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소득은 조세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해도 조세 부담률이 낮은 경우의 실제 소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 부담률은 부양가족 등의 인적 공제 및 수당이 있으므로 가족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요 선진국(G7)의 조세 부담률(tax wedge)을 가족 형태(미혼 무자녀, 2자녀가 있는 부부 외벌이와 맞벌이, 무자녀 맞벌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조세 부담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독일의 조세 부담률을 보면, 미혼 무자녀 100%는 2000년 52.9%에서 2020년 49.0%로 감소, 부부 2자녀 100%(외벌이)는 2000년 35.3%에서 2020년 32.9%로 감소, 부부 2자녀 167%(맞벌이)는 2000년 45.4%에서 2020년 41.5%, 부부 무자녀 167%(맞벌이)는 2000년 50.5%에서 2020년 47.2%로 감소하는 것처럼 조세 부담률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국가는 조세 부담률의 절대적인 수치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국가의 조세 부담률은 감소 경향에 있으나 프랑스, 미

국, 캐나다의 경우는 2자녀 외벌이 부부의 조세 부담률 감소 비율이 타국에 비해 큰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 통계에서 미혼 무자녀의 조세 부담률을 100%로 했을 경우, 가족 형태에 따른 상대 비율을 보면(표 5-4),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무자녀 부부가 9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자녀 외벌이 부부의 조세 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33.1%), 미국(49.5%)으로 나타났고, 독일(67.1%)도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2자녀 외벌이 부부가 다른 가족 형태보다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서 보면, 결혼으로 인한 조세 편익은 크지 않지만, 자녀 출산으로 인한 편익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세 부담률 목표가 OECD 평균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외벌이 2자녀 부부의 조세 부담률을 낮추고,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는 조세 부담률을 약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5-3〉 주요국의 가구 형태별 조세 부담률 현황(2000년, 2010년, 2020년)

(단위: %)

	미혼 무자녀 100%			부부 2자녀 100% (외벌이)			부부 2자녀 167% (맞벌이)			부부 무자녀 167% (맞벌이)		
	2000	2010	2020	2000	2010	2020	2000	2010	2020	2000	2010	2020
독일	52.9	49.1	49.0	35.3	32.6	32.9	45.4	41.5	41.5	50.5	47.2	47.2
프랑스	50.4	49.9	46.6	41.3	42.9	37.9	43.3	45.3	40.2	47.7	48.7	43.9
이탈리아	47.1	47.2	46.1	39.3	37.8	36.4	44.2	42.5	40.0	45.7	45.9	43.6
일본	29.8	30.2	32.7	26.4	22.1	27.5	28.2	25.4	29.7	29.3	29.7	32.1
미국	30.8	30.8	28.3	21.2	18.5	14.0	26.9	25.3	21.3	30.5	29.5	26.2
캐나다	32.9	30.4	30.4	23.1	17.6	10.1	29.7	26.5	23.6	31.3	29.0	29.0
영국	32.6	32.6	30.8	27.9	26.5	26.4	28.4	28.4	26.5	31.2	31.3	28.9
한국	16.4	20.1	23.3	15.7	17.8	18.3	15.5	17.9	19.3	15.8	19.0	22.0
OECD평균	36.4	34.7	34.6	27.6	25.2	24.4	31.8	29.8	28.9	35.1	33.2	33.0

주: 167%는 부부의 한 쪽이 평균 급여 수준, 다른 한 쪽이 평균 급여의 67% 수준을 얻는 가구

자료: OECD Stat. (2021). average tax wedge(<https://stats.oecd.org/>에서 2021. 12.10 인출). 필자 작성.

〈표 5-4〉 주요국의 가구 형태별 조세 부담률 및 상대 비율 현황: 2020년

(단위: %)

	미혼 무자녀 100%	부부 2자녀 100% (외벌이)	부부 2자녀 167% (맞벌이)	부부 무자녀 167% (맞벌이)
독일	100.0	67.1	84.7	96.2
프랑스	100.0	81.2	86.2	94.2
이탈리아	100.0	79.1	86.9	94.7
일본	100.0	84.0	90.8	98.2
미국	100.0	49.5	75.1	92.8
캐나다	100.0	33.1	77.5	95.3
영국	100.0	85.5	86.1	93.8
한국	100.0	78.8	83.0	94.5
OECD 평균	100.0	70.4	83.4	95.2

주: 167%는 부부의 한 쪽이 평균 급여 수준, 다른 한 쪽이 평균 급여의 67% 수준을 얻는 가구  
 자료: OECD Stat. (2021). average tax wedge(<https://stats.oecd.org/> 에서 2021. 12.10 인출). 필자 작성.

## 나. 난임 검사 지원 체계 확립

무자녀 부부 중에서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경제적인 상황 및 커리어 지속 등에 의하여 출산을 지속해서 연기하는 과정에서 무자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경우, 여성의 생물학적인 가임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혼화와 출산의 연기에 따라 가임 기간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뿐만 아니라 난임의 원인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일정 정도 있음에도 사회적인 분위기 및 가치관 등에 따라서 남성의 난임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박남철(2007)에 의하면 불임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0%씩이며, 둘이 함께 원인이 되는 경우가 20%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불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남성의 불임 여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난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현재 지자체에 따라 신혼



부부에게 건강검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곳에서는 성병 및 난임 검사 등만 이루어지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가임 가능성에 대한 검사나 난임 검사만을 받으라고 한다면,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혼부부에게 건강종합검진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 가임 및 난임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형평성 관점에서 중앙정부 사업 형태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강유진. (2020).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4(3), 3-26
-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계봉오, 김두섭. (2015)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이재열(편). 한국의 사회동향 2015. (pp. 36-42) 대전: 통계개발원.
- 김근태. (201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1968-2015**. 장덕진 (편). 압축성장의 고고학: 사회조사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1965~2015 (pp. 144-181). 서울: 한올아카데미.
- 김영란. (2019). **아이돌봄사업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김장래, 추경진, 이승재, 이택후, 전승주, 조서은, ... 최안나. (2020). 난임·우울 증상답센터 대상자 특성에 근거한 서비스 체계 고찰 및 개선 방안 - 난임 환자를 중심으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4(4), 181-195.
- 김한곤. (1991). 한국 여성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변동추이와 그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25(여름), 33-51.
- \_\_\_\_\_. (2014).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0-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959-972.
-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 51-78.
- 데이비드 베나타. (2019).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 존재하게 되는 것의 해악**. 이한 옮김. 경기: 서광사.
- 박남철. (2007). 남성불임의 원인과 진단. **대한의사협회지**, 50(5), 415-423.
- 박시내. (2020). 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 **KOSTAT 통계플러스**, 9(1), 18-41.
- 박시내, 박라나, 박혜균. (2020).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대전: 통계개발원.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1). 난임시술(보조생식술) 통계. <https://opendata.hira.or.kr/home.do> 에서 2021.11.18. 인출.
- 송혜미. (2021.10.6.). '그림의 떡' 난임휴가, 오전에 시술받고 출근.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06/109566876/1> 에서 2021.11. 25 인출.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정아. (2019. 9.16). "학생부 관리에만 480만원...입시코디 학원 4배↑".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601071030128001> 에서 2021.11.29. 인출.
-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105-139.
- 이민아. (2012).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할, **한국사회학**, **47(2)**, 143-176.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이지혜. (2018) **시·군·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보건복지 ISSUE&FOCUS 35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현. (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p.43-8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조막래. (2020).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성호. (2016). 결혼 및 자녀 출산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43-174.

조성호, 문승현, 김종훈. (2020). **일자리 안정성과 저출산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연실, 성미애, 이재림. (2014)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 무자녀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26(1), 40-71.

최인희, 김은지, 이상림, 정다은. (2015).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대전: 통계청.

\_\_\_\_\_ (2016). 2015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대전: 통계청.

\_\_\_\_\_ (2020).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대전: 통계청.

\_\_\_\_\_ (2021).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대전: 통계청.

통계청. (각 연도a).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1960; 1966; 197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통계청. (각 연도b).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2005; 2010; 2015년). 대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에서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무자녀 부부 심층면접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a). 여성가족패널 1~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b).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vison, M., & Furnham, A. (2015). Personality and Voluntary

- Childlessnes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32, 45-67.
- Bagavos, B. (2010) Education and Childless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l Field,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and Childlessness among Greek Women Born in 1955-1959,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10*, Vol. 8, 51-75.
- Baudin, T., Croix, D., & Gobbi, P. (2015). Fertility and Child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6), 1852-1882.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 conference of the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9-240.
- \_\_\_\_\_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loom, D & Pebley, A. (1982). Voluntary Childlessness: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Implication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 203-224.
- Bloom, D & Trussel, J. (1984). What are the Determinants Delays Childbearing and Permanent Child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21(4), 591-611.
- Cigno, A. (1991). *Economics of the Family*. Oxford: Clarendon Press.
- Dariotis, K. (2004). *Fertility Intention Emergence and Process during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Voluntary Childlessness as a Special Case*. Paper Presented at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04 Annual Conference, USA.
- Fiori, F., Rinesi, F. & Graham, E. (2017). Choosing to Remain Childless; A Comparative Study of Fertility Intentions Among

- Women and Men in Italy and Britai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3, 319-350.
- Frejka, T. (2017). Child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in M.Kreyenfeld and D.Konietzka(eds.),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Berlin: Springer, 159-179.
- González, MJ. & Jurado-Guerrero, T. (2006). Remaining Childless in Affluent Economies: A Comparison of France, West Germany, Italy and Spain, 1994-2001,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2, 317-352.
- Hagestad, G., & Call, V. (2007). Pathways to Childlessness: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28(10), 1338-1361.
- Heaton, T., Jacobson, C. & Holland, K. (1999). Persistence and Change in Decisions to Remain Childl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531-539.
- Heckman,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1.
- Hoem, J., Neyer, G. & Andersson, G. (2006). Education and Childlessness; Among Swedish Women Born in 1955-1959. *Demographic Research* 14, Article 15, 331-380.
- Houseknecht, S. (1979). Timing of the Decision to Remain Voluntarily Childless\_Evidence for Continuous Socializ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1), 81-96.
- \_\_\_\_\_ (1987). *Voluntary Childlessness*. in Sussman, M. and Steinmetz, S.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Springer, 369-396.
- Jalovaara, M., & Fasang, A. (2017). From Never Partnered to Serial Cohabitators: Union Trajectories to Childlessness, *Demographic Research*. 36(55), 1703-1720.

- Kim, K.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5), 145-172.
- Kreyenfeld, M., & Konietzka, D. (2017).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Rostock,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Miettinen, A., Rotkirch, A., Szalma, I., Donno, A., & Tanturri, M. (2015). Increasing Childlessness in Europe: Time Trends and Country Differences. *Families and Societies Project*, Working Paper 33.  
([www.familiesandsocieties.eu/wp-content/uploads/2015/03/WP33MiettinenEtAl2015.pdf](http://www.familiesandsocieties.eu/wp-content/uploads/2015/03/WP33MiettinenEtAl2015.pdf). Accessed 29 June 2015.)
- Miettinen, A., & Szalma, I. (2014). Childlessness Intentions and Ideals in Europe. *Fin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9, 31-55.  
<https://doi.org/10.23979/fypr.48419>
- OECD. (2021).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에서 2021.2.1. 인출.)
- OECD Stat. (2021). average tax wedge. (<https://stats.oecd.org/> 에서 2021. 12. 10 인출)
- Poston, D. & Trent, K. (1982). International Variation in Childlessness: A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3(4), 473-491.
- Preston, S., Heuveline, P., & Guillot, M. (2001). *Demography: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Wiley-Blackwell.
- Rosenzweig, M., & Wolpin, K. (1993). Maternal Expectations and Ex Post Rationalizations: The Usefulness of Survey Information on the Wantedness of Childr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2), 205-229.



- Rowland, R. (1998). Cross-National Trends in Childlessness, *Working Papers in Demography*, 73,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Sobotka, T. (2017). Childlessness in Europe: Reconstructing Long-Term Trends Among Women Born in 1900-1972, in M.Kreyenfeld and D.Konietzka(eds.),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Berlin: Springer, 17-53.
- Tanturri, M & Mencarini, L. (2008). Childless or Childfree? Paths to Voluntary Childlessness in Ita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1), 51-77.
- Tocchioni, V. (2018). Exploring the Childless Universe; Profiles of Women and Men without Children in Italy, *Demographic Research*, 38(19), 451-470. (<http://www.demographic-research.org/Volumes/Vol38>. doi: 10.4054/DemRes.2018.38.19.)
- Veevers, J. (1973). Voluntarily Childless Wives: An Exploratory Stud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7, 356-366.
- 菅桂太. (2008). わが国における40歳時無子の傾向と要因に関する考察、人口学研究、第42号、57-70.
- 守泉理恵. (2019). 日本における無子に関する研究、人口問題研究、75-1号、26-54.



## 간행물 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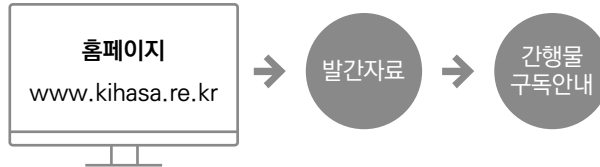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